

한국고대사학회 제185회 정기학술발표회

학술회의 자료집

- 일시 : 2023년 5월 13일(토) 13:30~18:00
- 장소 : 경북대학교 인문한국진흥관 학술회의실2 (B103호)
- 주최 : 한국고대사학회
- 후원 : 경북대학교

韓國古代史學會
한국고대사학회 ·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경북대학교

시 간 표

사회: 안주홍(경북대)

[인사말] 13:30~13:40

개회사: 정재윤(한국고대사학회 회장, 공주대)

환영사: 노중국(한국고대사학회 고문, 계명대)

[제1주제] 13:40~14:40

백제부여출자설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발표: 한상현(일본 와세다대), 토론: 윤용구(경북대)

[제2주제] 14:40~15:40

고구려 중기 官制의 구조와 의미

발표: 이규호(한국국학진흥원), 토론: 이준성(국사편찬위원회)

[휴 식] 15:40~16:00

[제3주제] 16:00~17:00

신라 왕경의 朝路

발표: 이동주(경북대 인문학술원), 토론: 이현태(국립경주박물관)

[제4주제] 17:00~18:00

人名으로 본 '靺鞨系 종족'의 계승과 단절

발표: 김락기(인천문화재단), 토론: 김종복(안동대 사학과)

목 차

한상현	백제부여출자설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1쪽
윤용구	토론문	25쪽
이규호	고구려 중기 官制의 구조와 의미	29쪽
이준성	토론문	55쪽
이동주	신라 완경의 朝路	61쪽
이현대	토론문	82쪽
김탁기	人名으로 본 ‘靺鞨系 종족’의 계승과 단절	85쪽
김종복	토론문	107쪽

백제부여출자설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한상현(일본 와세다대)

1. 들어가며
2. 동아시아 세계에서 부여가 가지는 역사적 지위
3. 백제부여출자설의 국제적 계기와 국내적 계기
4. 나가며

1. 들어가며

백제는 건국초부터 종말기에 이르기까지 왕실의 부여출자설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근대 역사학 연구에서도 백제 왕실의 부여출자설에 대해 사실이라고 판단해왔다.¹⁾ 하지만 백제 왕실의 부여출자설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료가 박약하며, 백제가 주장하는 부여출자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따라서 백제 왕실의 부여출자설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단, 본고의 목적은 백제부여출자설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출자설을 주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밝히는 데 있다.

1) 今西龍, 1934, 『百濟史研究』, 近澤書店; 稻葉岩吉·矢野仁一, 1935, 「朝鮮滿州史」, 『世界歴史大系』 11, 平凡社; 白鳥庫吉, 1947, 「百濟の起源について」, 『歴史』 創刊號; 末松保和, 1954, 「新羅建國考」, 『新羅史の諸問題』;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梁起錫, 1989, 「百濟初期의 王位繼承과 王權의 性格」, 『湖西文化研究』 8; 千寬宇, 1989, 『古朝鮮史·三韓研究史』, 일조각; 金杜珍, 1990, 「百濟始祖 溫祚神話의 形成과 그 傳承」, 『韓國學論叢』 13; 김기섭, 1993, 「한성시대 백제의 왕계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83; 李道學, 1994, 「4世紀 征服國家論에 대한 檢討」, 『韓國古代史論叢』 6; 姜鐘元, 1999, 「百濟 近肖古王의 王位繼承」, 『百濟研究』 27.

문화인류학자 마셜 사린즈는 ‘지배자는 웅거한 지역의 지배기반을 초월해야하기에 권력의 유래를 외부에서 찾는다. 이를 통해 권력을 정당화한다’는 외래왕설(Strange king)을 제창하였다. 마셜 사린즈는 외래왕이 세계의 여러 신화, 전설에서 공통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²⁾ 이러한 관점으로 고구려의 건국전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전설을 창출한 당대의 창출주체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³⁾ 이와 마찬가지로 백제의 시조 전설에 대해 전설을 창출한 주체의 의도나 논리에 착목하여, 시조의 출자문제를 사실이나 아니냐하는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 백제왕권형성기의 문제로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백제 왕실이 왕실의 유래를 부여에서 찾고자 한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애당초 왕실의 출자란 왕실의 혈통을 신성시하고 이를 과시하기 위해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출자의 대상으로 지목된 존재는 그 시대에 있어서 가치와 권위가 인정된다. 즉, 백제에게 부여는 왕실의 유래로 지목하기에 마땅한 권위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려사』에서는, 태조왕건의 조부인 작제건이 당 숙종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즉, 고려 왕실의 혈통을 당 황실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⁴⁾ 이 일화는 주목할

2) Marshall Sahlins, July 1981, “The Stranger-King, or Dumézil among Fijians”, *The Journal of Pacific History* 16-3 (上野千鶴子訳, 1984, 「外來王-あるいはフィジーのデュメジル」, 『現代思想』, 54~56쪽).

3) 李成市, 1998, 「高句麗の建國傳説と王権」,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100~101쪽.

4) 『高麗史』 卷1, 高麗世系 “唐肅宗皇帝潛邸時, 欲遍遊山川, 以明皇天寶十二載癸巳春, 涉海到涓江西浦. 方潮退, 江渚泥淖, 從官取舟中錢, 布之, 乃登岸. 後名其浦爲錢浦. 【閔漬編年綱目, 引碧巖等禪錄云, 「宣宗年十三, 當穆宗朝, 戲登御床, 作揖群臣勢, 穆宗子武宗心忌. 及武宗即位, 宣宗遇害於宮中, 絕而後蘇, 潛出遠遁, 周遊天下, 備嘗險阻. 塩官安禪師默識龍顏, 待遇特厚, 留塩官最久. 又宣宗嘗爲光王, 光卽楊州屬郡, 塩官杭州屬縣, 皆接東海, 爲商船往來之地方. 當懼禍, 猶恐藏之不深, 故以遊覽山水爲名, 隨商船渡海. 時唐史未撰, 於唐室之事, 無由得詳. 但聞肅宗宣皇帝時, 有祿山之亂, 未聞宣宗遭亂出奔之事, 誤以宣宗皇帝, 爲肅宗宣皇帝云.」又世傳, 忠宣王在元, 有翰林學士從王遊者. 謂王曰, 「嘗聞王之先出於唐肅宗, 何所據耶. 肅宗自幼未嘗出閭, 祿山之亂, 卽位靈武, 何時東遊, 至有子乎.」王大慚不能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후에 고려 제26대 충선왕이 원나라에 체재할 당시 그를 따르던 한림학사가 이 일화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당 숙종은 안사의 난 때문에 영무에서 즉위했기에 동방에 갈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충선왕은 대답할 수 없었는데, 그를 따르고 있던 문인인 민지가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서의 잘못입니다. 숙종이 아니라 선종입니다.”라고 얼버무렸다고 『고려사』는 전한다. 즉, 고려 왕실에게 있어 그 선조가 당 숙종이던 선종이던, 그러한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려 왕실의 혈통이 당 황실로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고려 왕실이 권위의 정당성을 당 황실에서 찾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백제가 출자의 대상으로서 설정한 ‘부여’는 당대에 권위를 가진 역사적 존재로서 인식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여가 고대 동아시아 세계에서 어떻게 인식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부여의 위치비정이나 국가구조와 관련된 연구가 집중되었을 뿐이다.⁵⁾ 고대 동아시아 세계에서 부여인식에 관해 언급된 것은 부여가 나름 강력한 국가였기에 중원왕조로부터 호의적으로 인식되었다는 것뿐이다.⁶⁾

출자를 주장하는 것은 왕실의 존엄을 과시한다고 하는 주요한 목적이 있기에 출자의 대상은 당대에 나름의 가치와 권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단순히 부여가 강

對，閔漬從旁對曰，「此我國史誤書耳。非肅宗，乃宣宗也。」學士曰，「若宣宗，久勞于外，庶或然也。」】遂至松嶽郡，登鶴嶺南望曰，「此地必成都邑。」從者曰，「此八眞仙住處也。」抵摩訶峴養子洞，寄宿寶育第，見兩女悅之，請縫衣綻。寶育認是中華貴人，心謂，「果符術士言。」即令長女應命，纔踰闕，鼻衄而出，代以辰義，遂薦枕。留期月【閔漬編年，或云一年。】覺有娠，臨別云，「我是大唐貴姓。」與弓矢曰，「生男則與之。」果生男曰作帝建。”

5) 池内宏, 1951, 「夫餘考」(原載: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3, 1930), 『滿鮮史研究』 上世 第一冊, 吉川弘文館; 日野開三郎, 1988, 「夫餘國考—特にその中心地の位置に就いて—」(原載: 『史淵』 34, 1946), 『東北アジア民族史』 上, 三一書房; 井上秀雄, 1975, 「朝鮮の初期國家—三世紀の夫餘國」, 『日本文化研究所研究報告』 1; 李丙燾, 1976, 「夫餘考」,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6) 吳澤呶, 2020, 「百濟姓氏의 歷史的 展開와 大姓八族」, 東國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38~39쪽.

력한 국가였으며 이로 인해 중원왕조로부터 호의적으로 인식되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백제가 왕실의 유래를 부여에서 찾고자 한 동기로서 불충분하다. 백제에게 ‘부여’는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왕실의 출자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여가 백제에게 있어 어떤 국제적, 국내적 가치가 있었는지 밝혀냄으로서 백제 왕실의 부여출자설의 역사적 배경과 그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2. 동아시아 세계에서 부여가 가지는 역사적 지위

종래 연구에서는 부여가 고대 동아시아 세계에서 어떻게 인식되었는가에 대해 부여가 호의적으로 인식되었다고 간단히 지적했지만, 이러한 문제는 백제가 부여를 출자의 대상으로 삼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백제가 왕실의 출자를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대상이 중원왕조이며, 중원왕조로부터 책봉을 받아 그 예적 질서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백제는 중원왕조로부터 받은 관작을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기에 왕권의 상당 부분이 중원왕조의 권위에 기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⁷⁾ 하지만 종래 연구에서는 부여가 중원왕조로부터 호의적으로 인식되었다고는 언급하나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중원왕조 측의 부여인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검토한다. 또한 이를 통해 백제가 부여출자설을 주장함으로써 스스로를 고대 동아시아 세계에서 어떻게 규정하고자 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확실히 부여는 중원왕조로부터 호의적으로 인식되었지만,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다. 아래의 『한서』 왕망전을 보면, 전한대의 부여인식을 알 수 있다.

【사료 1】 『한서』 권99 왕망전

이보다 앞서 왕망은 고구려병을 징발하여 오랑캐를 토벌하고자 했으나

7) 백제 제25대 무령왕의 경우, 묘지석에서 ‘寧東大將軍百濟斯麻王’라고 전하는 것을 통해 백제 내부에서 중국에서 받은 관작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고구려병이 가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군은 고구려병을 강제로 꺾박하여 가게 하였다. 그러니 모두 도망쳐서 요새를 나가 고구려병은 법을 어기고 약탈하기에 이르렀다. 요서대운 전담(田譚)은 이를 추격했지만 살해당하였다. 주군(州郡)은 고구려후 추(騶)를 책망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엄우가 상소하기를 “맥인이 법을 어기는 것은 추가 봉기한 것을 따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음이 틀림없기에 주군에 명하여 이를 위무해야 합니다. 지금 큰 죄를 씌우면 배반할 것이 두렵습니다. 부여의 속도 반드시 이에 화합할 것입니다. 흉노도 아직 이기지 못했는데 부여, 예맥이 다시금 봉기하는 것은 큰 우환입니다.”라고 하였다. (하략)⁸⁾

이에 따르면, 왕망이 오랑캐를 토벌하기 위해 고구려를 징병하였으나 고구려병이 이를 따르지 않고 탈영하여 주군(州郡)이 그 책임을 고구려후 추에게 물으려 하였다. 하지만 엄우는 고구려에게 그 죄를 묻게 되면 배반할 것이 예상되며, 만약 배반하게 되면 ‘부여지속(夫餘之屬)’이 반드시 이에 응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흉노를 아직 제압하지 못하였는데 부여, 예맥이 봉기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간언하고 있다. 즉 사료 1에 의하면 적어도 부여는 전한에게 있어서 경계해야 할 이민족이었으며, 호의적이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중원왕조의 부여인식은 언제부터 호의적이게 되었던 것일까. 그 단서는 『후한서』 부여전의 조공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사료 2】 『후한서』 권85 부여전

건무 연간(25~55)에 동이의 여러 나라들이 모두 와서 조헌(朝獻)하고 들어와 알현하였다. 25년(49)에 부여왕이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바치므로, 광무제가 후하게 보답하니 이에 사절이 해마다 왕래하였다. 안제 영초 5년(111)에 부여왕이 처음으로 보병과 기병 7~8천명을 거느리고 낙

8) 『漢書』 卷99, 王莽傳 “先是, 莽發高句驪兵, 當伐胡, 不欲行, 郡強迫之, 皆亡出塞, 因犯法為寇. 遼西大尹田譚追擊之, 為所殺. 州郡歸咎於高句驪侯騶. 嚴尤奏言, 貉人犯法, 不從騶起, 正有它心, 宜令州郡且尉安之. 今猥被以大罪, 恐其遂畔, 夫餘之屬必有和者. 匈奴未克, 夫餘, 穢貉復起, 此大憂也. (下略)”

량을 노략질하여 관리와 백성을 죽였으나 그 뒤에 다시 귀부하였다. 영녕 원년(120)에 사자(嗣子) 위구태를 보내어 궁궐에 나아와서 조공을 바치므로 천자가 위구태에게 인수와 금채를 하사하였다. 순제 영화 원년(136)에 그 왕이 경사에 와서 조회하므로, 황제는 황문고취(黃門鼓吹)와 각저희(角抵戲)를 하게 하여 부여왕을 보내었다.⁹⁾

자료 2에 의하면 부여가 처음으로 후한에 조공한 것은 건무 25년(49)이다. 아마도 이를 계기로 부여는 본격적으로 중원왕조의 예적 질서에 편입되었을 것이다. 그 이유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한서』에는 부여의 조공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전한은 부여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이열전에 부여전을 두지 않았다. 예적 질서로의 편입의 지표가 되는 조공은 일시적 혹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항속성을 띠어야 한다.¹⁰⁾ 더욱이, 『한서』의 편찬자인 반고는 후한대의 대표적인 이론가이며, 그의 이민족관은 기미부절론(羈縻不絕論)이었다.¹¹⁾ ‘기미지의(羈縻之義)’의 구체적인 실현방법은 통교를 유지하는 것이었다.¹²⁾ 즉, 통교는 금수의 본성을 가지는 ‘이(夷)’가 ‘화(華)’의 예(禮)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보아왔기 때문에 『한서』에 보이는 이민족관은 이러한 기미론에 입각한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¹³⁾ 이에 따르면 중원왕조가 부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전을 두지 않았던 것이 설명 가능하다. 간단히 말해 전한대의 부여는 중원왕조와 통교하지 않고, 중원왕조의 예적 질서의 바깥에 위치해있었다고 할 수 있다. 후한대에 이르러 조공기사가

9) 『後漢書』 卷85, 夫餘傳 “建武中, 東夷諸國皆來獻見. 二十五年, 夫餘王遣使奉貢, 光武厚答報之, 於是使命歲通. 至安帝永初五年, 夫餘王始將步騎七八千人寇鈔樂浪, 殺傷吏民, 後復歸附. 永寧元年, 乃遣嗣子尉仇台闕貢獻, 天子賜尉仇台印綬金綵. 順帝永和元年, 其王來朝京師, 帝作黃門鼓吹·角抵戲以遣之.”

10) 全海宗, 1973, 「漢代的 朝貢制度에 대한 一考察」, 『東洋史學研究』 6.

11) 尹龍九, 1997,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象」, 『韓國古代史研究』 14.

12) 金翰奎, 1988, 「漢代的 天下思想과 羈縻之義」, 『中國의 天下思想』, 民音社.

13) 小倉芳彦, 1970, 「華夷思想의 形成」, 『中國古代政治思想研究』, 青木書店, 328~329쪽 ; 尹龍九, , 앞의 논문, 1997, 123~124쪽.

보이는 것은 본격적으로 중원왕조와 통교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야말로 중원 왕조의 부여인식이 호의적으로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결정적인 것은 순제 영화 원년(136)에 ‘부여왕이 경사에 와서 조회하므로 황제는 황문고취, 각저희를 벌여 부여왕을 보내었다.’라는 부분이다. 동이계족에서 군장이 직접 내조한 것은 부여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따라서 부여왕이 스스로 내조한 것은 후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주목을 요하는 것은 ‘황문고취’와 ‘각저희’이다. 황문고취는 후한 광무제 때 만들어진 황문무무(黃門武舞)이며 천자가 군신을 위해 준비한 연회 때에 연주되었다. 각저희는 두 사람이 힘을 겨루는 연예(演藝)의 하나이다. 이는 언뜻 보면 단순한 여흥의 하나라고 여겨질 수 있으나, 시노 토시오(志野敏夫)는 이는 단순한 여흥이 아니라, 군신의례로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¹⁵⁾

먼저, 황문고취에 대해 시노는 천자가 ‘작악(作樂)’을 베푸는 것은 황제의 공덕을 보이기 위함이며, 베풀어진 쪽은 황제의 덕에 감화되어 교화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한다. 또한 각저희에 대해서도 단순히 씨름같은 것이 아니라 강무의 예를 나타내는 희락(喜樂)이며, 무예의 모범연기(模範演技)를 보여 강의하고, 더하여 왕이 병권을 쥐고 있는 천하질서의 주재자라는 것을 명백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황문고취, 각저희는 황제와 부여왕 사이에 이루어진 복속관계를 확인하는 의식이라고 보아야 한다.¹⁶⁾ 이를 바탕으로 사료 2에서 ‘보내었다(遣)’고 표현한 것은 순제가 부여

14) 이에 대해 『후한서』의 찬자인 범엽의 부여인식이 『삼국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즉, 『삼국지』 편찬 당시 부여에 대한 호의적 인식이 『후한서』 편찬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리고 있지는 못하나, 부여인식이 호의적으로 전환된 연원을 범엽은 사료2에서 찾고자 했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5) 志野敏夫, 1985, 「漢の衛士と「饗遣故衛士儀」」, 『早稲田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 [哲学・史学]』 別冊11.

16) 시노는 136년 단계에서 이미 부여왕이 외신(外臣)이 되었다고 해석하지만 이 복속의례를 통해 비로소 부여왕이 외신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왕을 외신으로써 보내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136년에 이루어진 부여왕의 내조에 의해 부여는 중원왕조의 예적 질서에 편입되었고, 이로 인해 중원왕조의 부여인식은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부여 뿐 아니라 흉노의 사례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후한서』 남흉노열전의 논찬이 바로 그것이다.

【사료 3】 『후한서』 권119 남흉노열전

선제(宣帝)는 흉노의 조정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호한야선우가 칭신하는 때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임시방편으로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회유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그들을 변경의 방위군으로 삼으니, 국경에서의 위급한 일은 없어지게 되었고 병사들과 백성들의 노고를 줄일 수 있었다. 황제는 친히 거가의복을 정돈하고 위수 강변에서 종과 북을 울리면서 직접 성대한 의식을 갖추어 남면하여 선우의 내조를 받았다. 그리하여 삭방과 이수 지방은 다시는 흉노 말들의 발자취가 없게 되었다. 이것이 6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 후에 왕망이 제위를 찬탈하고 이민족들의 마음을 어지럽혀서 그들을 동요시켰다. 이어 경시제의 난으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중국은 천이 찢어지듯이 분열하였다. 이때부터 흉노는 야심이 발동되어 이리의 나쁜 마음이 다시 생겨나서 틈을 타 침략하기를 일삼았으니, 그 폐해가 국경지대의 연변으로 흘러들어 왔다. (중략) 그 후에 흉노에서 내란이 일어나자 일축왕 비가 달려와서 호한야선우의 우호를 닦고 한과 북흉노의 충들을 막으며 변병으로서 황제를 받들고 신하를 칭하면서 영원히 외적의 침입을 막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천자는 여러 계책을 모두 검토한 후에 화합을 생각하여 받아들였다. 이에 천자는 담당관에게 조서를 내려서 북방 변경지대를 개방하여 비옥한 지역을 선택하고 물과 목초를 헤아려서 그들을 거주케 하였다. 중랑장을 보내어 법도를 완전히 갖추고 그들과 접하도록 하였다. 의상을 만들고 제도와 법령을 갖추게 한 후, 인새와 발수를 내려주어서 선우란 칭호에 걸맞게 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흉노는 분열되어 처음으로 남정과 북정 두 선우정이 존재하게 되었다.¹⁷⁾

17) 『後漢書』 卷119, 南匈奴列傳 “宣帝值虜庭分爭, 呼韓邪來臣, 乃權納懷柔, 因爲邊衛, 罷關徼之徼, 息兵民之勞. 龍駕帝服, 鳴種傳鼓於清渭之上, 南面而朝單于, 朔·易無復匹馬之蹤, 六十餘年矣. 後王莽陵篡, 擾動戎夷. 續以更始之亂, 方夏幅裂. 自是匈奴得志, 狼心復生, 乘閒

사료 3에 의하면, 『후한서』의 찬자인 범엽은 흉노 선우의 내조와 이에 따른 군신의례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즉, 중원왕조에게 있어서 이민족 군장의 내조는 그 이민족이 중원왕조의 예적 질서에 편입되는 것이며, 변경의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 이민족에 대한 인식도 경계 수준에서 충실한 번국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숙신의 사례 역시 참고가 된다. 숙신은 주대에 중국 동북 지방에 존재하였던 이민족이며, 주 무왕에게 호시(楛矢)와 석노(石弩)를 헌상했다고 전해진다.¹⁸⁾ 주대 이후, 숙신의 조공은 이민족으로부터의 조공, 다시 말해 외국이 중원왕조에 복속되었다는 것을 표상해왔다. 아래의 사료는 숙신의 조공을 중원왕조가 어떻게 인식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료이다.

【사료 4】 『삼국지』 권28 위서 종회전

지금 주상폐하의 성덕은 흠명하며, 전대의 유서를 계승, 발양하고 있다. 재상은 공평엄숙하며 신의가 있고 왕실에 몸을 바치고 있다. 은혜를 베풀자 모든 것이 협화하고 모든 오랑캐에 덕을 베풀자 숙신이 조공하기에 이르렀다.¹⁹⁾

【사료 5】 『후한서』 권70 공융전

후에 조조가 오환을 토벌하고자 하자 이를 비롯하며 말하기를 ‘대장군이

侵佚，害流傍境。(中略) 其後匈奴爭立，日逐來奔，願脩呼韓之好，以禦北狄之衝，奉藩稱臣，永爲外扞。天子總攬羣策，和而納焉。乃詔有司開北鄙，澤肥美之地，量水草以處之。馳中郎之使，盡法度以臨之。制衣裳，備文物，加璽紱之綬，正單于之名。於是匈奴分破，始有南北二庭焉。”

18) 『晉書』 卷97, 東夷傳·肅慎條 “周武王時，獻其楛矢，石弩”；『翰苑』 蕃夷部·肅慎條 “肅慎記曰，昔武王克商通道，九夷百蠻，使各以其賄來貢，使無忘職業。於是肅慎貢楛矢·石[弩]，其長[有尺]咫。先王欲昭其[令]德之致遠也，以示後人，使永監焉。故銘其[楛]曰，肅氏之貢矢，王又以賜陳胡公。成王時復入賀，王使榮伯作賄肅慎之命也。誦，成王[之名]。”

19) 『三國志』 卷28, 魏書·鐘會傳 “今主上聖德欽明，紹隆前緒，宰輔忠肅明允，劬勞王室，布政垂惠而萬邦協和，施德百蠻而肅慎致貢。”

원정하고 하시니 해외가 조용해졌습니다. 옛 숙신도 호시를 조공하지 않고 있으며 정령이 소무의 소와 양을 훔쳤으니 이들도 같이 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²⁰⁾

【사료 6】 『한원』 번이부 숙신조

숙신기에 이르기를 ‘한 무제 때 숙신이 오지 않았다. 조를 내려 숙신이 오지 않는 것을 한탄하였다.’고 한다.²¹⁾

사료 4는 촉 정벌에 나선 종회가 촉의 장군들에게 보낸 격문의 일부이며, 위 황제가 덕을 베풀자 숙신이 조공해왔다고 말한다. 사료 5는 조조가 오환을 정벌하려고 하자 공융이 숙신도 조공하지 않는데 같이 정벌하는 것이 어떠냐고 조롱한 바를 전하고 있다. 사료 6은 전한의 무제가 숙신이 조공하지 않는 것을 한탄했다고 전한다. 이러한 사료에 비추어보면 숙신의 조공은 단순한 이민족의 조공이 아니라, 황제의 덕을 흠모하여 내조하는 이민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숙신으로부터 조공이 오지 않는 것은 그 황제에게 이민족을 교화할 정도의 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전한의 무제가 한탄한 것은 이러한 의미였을 것이다.

당 대에 이르면 숙신은 이미 소멸해있었다. 하지만 숙신의 조공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남아 당 중심의 국제질서의 재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당이 역사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숙신과 숙신의 조공을 소환했다고 보는 연구가 있다.²²⁾ 이에 따르면 당 대에 편찬된 『진서』 동이전에 숙신조가 삽입된 것이나 7세기에 여러 종류의 『숙신기』가 존재했던 것을 통해 당이 숙신의 역사적 의의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숙신의 사례를 비추어 볼 경우, 부여의 존재는 중원왕조에게 있어서 동이의 번국을 상징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침 부여왕이 내조했을 당시는 이미 숙신으로부터 조공이 없어졌을 때였다.²³⁾ 이민족의 조공을 상징해왔던 숙신의 조공이 없

20) 『後漢書』 卷70, 孔融傳 “後操討烏桓, 又嘲之曰, 大將軍遠征, 蕭條海外. 昔肅慎不貢楛矢, 丁零盜蘇武牛羊, 可并案也.”

21) 『翰苑』 蕃夷部·肅慎條 “肅慎記曰, 漢武帝時, 肅慎不至. 策詔慷慨, [恨]不能致之也.”

22) 권순홍, 2021, 「『肅慎國記』와 7세기 唐의 肅慎 소환」, 『선사와 고대』 67.

어진 시대에 동이의 군장이 스스로 내조해 온 것은 후한의 예적 질서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이다. 즉, 부여는 중원왕조에 의해 ‘동이의 번국’으로서 표상되었던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진서』에 전하는 부여의 복국에 관한 기사이다.²⁴⁾ 서진은 모용선비에 의해 멸망한 부여를 굳이 지원하여 복국시켰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는 서진이 모용선비의 영역확대에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부여의 복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해석한다.²⁵⁾ 하지만, 이민족을 견제하기 위해 멸망한 나라를 굳이 복국시키는 것은 그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약화된 부여가 모용선비를 견제할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는 중원왕조의 천하사상을 바탕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황제가 천자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이(四夷)로부터 조공이 필수불가결한데, 동이의 번국을 표상하는 부여가 멸망한다는 것은 예적 질서를 구성하는 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진이 노예로 팔린 부여 사람들을 부여에 송환하고 또 그러한 매매를 금지한 것은, 황제의 덕을 베풀고 동시에 부여를 복국시켜 천자로서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채우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를 정리하면, 후한 대에 부여왕이 입조하는 것으로 인해 부여는 중원왕조에 의해 ‘동이의 번국’으로 표상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당대에 그치지 않고 부여가 멸망한 이후에도 중원왕조의 동이인식으로 자리잡았다. 백제가 왕실의 유래를 부여에서 찾고

23) 『晉書』 卷97, 東夷傳·肅慎條 “爾後千餘年, 雖秦漢之盛, 莫之致也. 及文帝作相, 魏景元末, 來貢楛矢, 石弩, 弓甲, 貂皮之屬.”

24) 『晉書』 卷97, 東夷傳·夫餘條 “武帝時, 頻來朝貢. 至太康六年, 為慕容廆所襲破, 其王依慮自殺, 子弟走保沃沮. 帝為下詔曰, 夫餘王世守忠孝, 為惡虜所滅, 甚愍念之. 若其遺類足以復國者, 當為之方計, 使得存立. 有司奏護東夷校尉鮮于嬰不救夫餘, 失於機略. 詔免嬰, 以何龕代之. 明年, 夫餘後王依羅遣詣龕, 求率見人還復舊國, 仍請援. 龕上列, 遣督郵賈沈以兵送之. 廆又要之於路, 沈與戰, 大敗之, 廆眾退, 羅得復國. 爾後每為廆掠其種人, 賣於中國. 帝愍之, 又發詔以官物贖還, 下司冀二州, 禁市夫餘之口”

25) 池培善, 1986, 『中世東北亞史研究』, 一潮閣.

자 한 것은 이러한 중원왕조의 부여인식에 기반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백제가 부여출자설을 이용하여 고대 동아시아 세계에서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자 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3. 백제부여출자설의 국제적 계기와 국내적 계기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부여는 중원왕조에게 있어서 단순한 동방의 이민족이 아니라 ‘동이의 번국’을 상징하는 역사적 존재였다. 하지만 후한 대에 성립한 중원왕조와 부여의 관계는 3~4세기에 걸쳐 부여가 모용선비에 의해 멸망함에 따라 붕괴하고 만다. 그 후 부여는 왕족의 일부가 전연에 종속되거나 고구려의 부용국이 되는 등, 국제무대에서 퇴장하게 된다.²⁶⁾ 부여의 멸망은 중원왕조에게 있어서 ‘동이의 번국’으로부터 조공이 없어지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는 예적 질서를 지탱하는 한 부분에 결함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313년에 동이제국을 관할하고 있던 낙랑군, 대방군이 고구려에 의해 붕괴됨에 따라 당대의 중원왕조였던 서진과 그 뒤를 이은 동진은 동이에 뺏어있던 영향력마저 상실하게 된다. 이는 천자가 사이로부터 조공받아야 한다는 정통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백제는 이러한 중원왕조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었기에 동진으로부터 자기 존재의 승인을 받기 위해 부여출자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 백제는 낙랑, 대방군 고지의 지배권과 ‘마한주(馬韓主)’가 아닌 ‘백제왕’으로서 중원왕조의 승인을 원했다. 한편, 중원왕조(동진)는 멸망하여 없어진 부여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이 절실했다. 이렇게 양자의 이해가 일치함에 따라 372년에 근초고왕은 ‘鎮東將軍領樂浪太守’에 책봉될 수 있었던 것이다.²⁷⁾ 이후 중국이 남북조시대에 돌입하자 백제는 주로 남조와 교섭하게 된다. 남조는 북조에 의해 길이 막혀 동이로부터 조공을 받는 데에

26) 이승호, 2018, 「夫餘 政治史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7~208쪽.

27) 『晉書』 卷9, 本紀·孝武帝2年條 “六月, 遣使拜百濟王餘句為鎮東將軍領樂浪太守”

제약이 있었고 백제는 책봉이라는 중원왕조의 권위와 중국의 선진문물이 필요하였다. 이 또한 양자의 이해가 일치함에 따라 호혜적 관계가 성립하고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²⁸⁾

이러한 상황 아래 성립한 백제부여출자설에 대해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있다. 바로 백제부여출자설과 고구려의 관계이다. 부여출자를 주장한 것은 백제뿐 아니라 고구려도 주장하였다. 이에 백제의 부여출자설은 고구려를 크게 의식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²⁹⁾ 즉,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백제시조 온조는 고구려시조 주몽의 아들이기에 백제 왕실은 고구려의 방계 혹은 동생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백제가 부여국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고구려보다 우월한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하고자 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³⁰⁾

이러한 지적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첫째,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전하는 시조신화를 사실의 반영이라고 보고 고구려시조 ‘주몽’과 부여시조 ‘동명’을 암묵적으로 동일인물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둘째,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시조전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백제가 스스로 고구려의 ‘방계’라고 주장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는 성립할 수 없다. 애당초 주몽과 동명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 말하는 ‘시조 동명성왕의 성은 고씨, 휘는 주몽이다.’라고 양자를 동일인물로 본 것은 고구려가 아니라 양의 문인인 배자야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³¹⁾ 이에 따르면, 고구려시조 주몽과 부여시조 동명을 동일시한 기사는 『양서』 제

28) 이에 대해 멸망한 부여의 유산을 전연, 고구려, 백제가 나누어 가졌는데 왜 동진은 백제만을 인정하였는가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확실히 전연, 고구려, 백제는 부여의 유산을 서로 가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단, 전연과 고구려의 경우, 이를 동진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았다. 아마 부여왕을 포로로서 끌고간 것(전연)이나, 부여출자를 주장한 것(고구려)은 그것만으로도 국내적으로 정치적 의미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백제는 부여출자를 동진에게 호소하여 승인을 받아야 국내적으로 정치적 의미가 발생하므로 적극적으로 이를 동진에게 어필하였다. 그로 인해 동진은 백제만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9) 矢木毅, 2012, 『韓國·朝鮮史の系譜—民族意識·領域意識をたどる』, 塙書房.

30) 矢木毅, 2012, 위의 책, 40~41쪽.

이전 고구려조에서 처음 보이며, 이는 배자야의 「방국사도」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 근거로 『양서』 제이전에서 고구려의 국가제사인 ‘동맹(東盟)’을 ‘동명(東明)’으로 고쳤을 뿐 아니라, 고구려조의 내용에 『삼국지』 위서동이전 부여조에 보이는 부여의 습속을 고구려의 습속인 것 마냥 삽입한 것을 들고 있다. 즉 배자야는 고구려와 부여의 시조신화를 일체화한 것이다. 이러한 배자야의 건강부회적 해석은 고구려뿐 아니라 양직공도의 활국(滑國, 에프탈)에서도 보이고 있다. 이는 배자야의 독자적인 민족계보관이 『양서』 제이전과 그 원전이 된 「양직공도」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백제가 스스로 고구려의 ‘방계’라고 주장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제외하면 백제는 스스로의 출자를 부여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고구려에서 유래했다고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백제는 동명의 자손이라고 주장한 적은 있지만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동명’과 ‘주몽’은 별개의 인물이며, 양자를 동일인물로 본 것은 고구려, 백제가 아닌 배자야이기에 백제가 주장하는 시조 ‘동명’은 고구려의 ‘주몽’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위서』 동이열전에 전하는 개로왕의 표문에서 ‘신은 고구려와 같이 부여로부터 나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고구려와 근본이 같다는 것이지 고구려로부터 유래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삼국사기』의 초기기사를 엄밀한 사료비판 없이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는 4세기부터 적대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주목하면 백제가 스스로 고구려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전하는 시조전설은 후대에 의해 변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부실한 전제 위에서 논의되는 백제부여출자설과 고구려의 관계에 대한 야기의 해석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백제에 의한 부여출자설 창출이 가지는 대외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내적으로는 어떠한 배경과 의의가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그 의

31) 李成市, 2014, 「『梁職貢圖』高句麗·百濟·新羅の題記について」, 『梁職貢圖と東部ユーラシア世界』(鈴木靖民, 金子修一 編), 勉誠出版.

의를 대외·대내라고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찰해야한다. 다시 말해, 부여출자설 그 자체가 백제 지배층 내에서 널리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위신이 있었는지 아니면 부여출자설을 중원왕조에 주장하는 것으로 인해 얻은 성과를 백제 지배층 내부로부터 인정받았는지를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

먼저 전자를 검토했을 경우, 부여출자설이 백제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주장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즉, 백제왕실이 외부(부여)로부터 유래했다는 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유래 대상은 백제 내부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더하여 부여라는 존재 자체가 백제 내부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313년에 낙랑군, 대방군이 붕괴할때까지 백제의 전신인 마한지역은 부여와의 사이에 낙랑군, 대방군, 고구려가 있었기 때문에 부여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백제 내부 지배층에게 부여란 그저 소원한 존재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백제부여출자설이 역사적으로 변용을 겪음에 따라, 부여출자설이 국내나 왜국과의 외교에서 사용되게 된다. 예를 들면,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으며, 『일본서기』에서 위덕왕 때부터 위덕왕을 ‘여창(餘昌)’이라고 지칭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백제의 국성(國姓)이 왜국과의 교섭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즉, 부여출자설이 제창된 당초부터 백제 국내에서 부여출자설 그 자체가 왕실 권위의 기반이 된 것이 아니라, 부여출자설이 점차 백제사회에 정착함에 따라 내부에서도 왕실의 정통성을 지지하는 요소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초기 백제의 부여출자설 그 자체가 국내에서 인지되었다기보다는 부여출자설이 중원왕조에 의해 승인됨으로 인해 점차 백제 내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중원왕조의 권위가 백제 내부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사료로부터 그러한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사료 7】 『삼국지』 권30 위지동이전 한전

경초 연간(237~239)에 명제가 몰래 대방태수 유흔과 낙랑태수 선우사

를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대방, 낙랑의 두 군을 평정하였다. 그리고 여러 한국의 신지(臣智)에게는 읍군의 인수를 더해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읍장의 벼슬을 주었다. 한족의 풍속은 의책을 입기를 좋아하여, 하호들도 군에 가서 조알할 적에는 모두 의책을 빌려 입으며, 자신의 인수를 차고 의책을 착용하는 사람이 천 여명이나 된다.³²⁾

【사료 8】 『송서』 권97 이만열전 백제국조

원가 27년(450) 여비가 방물을 바치며 국서를 올려 사사로이 대사 풍야 부를 서하태수로 삼을 것을 추인해 주고, 표문으로 역림, 식점 및 요노를 요구하자 태조는 모두 들어주었다. (중략) 대명 2년(458), 여경(餘慶)이 사신을 보내어 표문을 올려 말하기를, “신의 나라는 대대로 특별한 은혜를 입구 문무의 훌륭한 신하들이 대대로 조정의 관작을 받았습시다. 행관군장군 우현왕 여기 등 11명은 충성스럽고 부지런하여 높은 지위에 나아감이 마땅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가엾게 여기시어 모두 관직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행관군장군 우현왕 여기를 관군장군으로 삼고, 행정로장군 좌현왕 여곤과 행정로장군 여훈을 모두 정로장군으로, 행보국장군 여도와 여예를 모두 보국장군으로, 행용양장군 목금과 여작을 모두 용양장군으로, 행영삭장군 여류와 미기를 모두 영삭장군으로, 행건무장군 우서와 여루를 모두 건무장군으로 삼았다.³³⁾

【사료 9】 『남제서』 권58 동이전 백제조

(전략) 영삭장군 면중왕 저근은 정치를 두루 잘 보좌하였고 무공 또한 뛰어났으니 이제 가행관군장군 도장군 도한왕이라 하였고, 건위장군 팔중후 여고(餘古)는 젊을 때부터 임금을 도와 충성과 공로가 진작 드러

32) 『三國志』 卷30, 魏志東夷傳·韓傳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33) 『宋書』 卷97, 夷蠻列傳·百濟國條 “[元嘉]二十七年, 毗上書獻方物, 私假臺使馮野夫西河太守, 表求易林, 式占, 腰弩, 太祖並與之. (中略) [大明]二年, 慶遣使上表曰, 臣國累葉, 偏受殊恩, 文武良輔, 世蒙朝爵. 行冠軍將軍右賢王餘紀等十一人, 忠勤宜在顯進, 伏願垂愍, 並聽賜除. 仍以行冠軍將軍右賢王餘紀為冠軍將軍. 以行征虜將軍左賢王餘昆, 行征虜將軍餘暈並為征虜將軍. 以行輔國將軍餘都, 餘乂並為輔國將軍. 以行龍驤將軍沐衿, 餘爵並為龍驤將軍. 以行寧朔將軍餘流, 麋貴並為寧朔將軍. 以行建武將軍于西, 餘婁並為建武將軍.”

났으므로 이제 가행영사장군 아착왕이라 하였고, 건위장군 여력은 천성이 충성되고 정성스러워 문무가 함께 두드러졌으므로 이제 가행용양장군 매로왕이라 하였으며, 광무장군 여고(餘固)는 정치에 공로가 있고 국정을 빛내고 드날렸으므로 이제 가행건위장군 불사후라 하였습니다.³⁴⁾

사료 7에 의하면 삼한의 군장들은 낙랑, 대방군으로부터 책봉과 인수를 받았으며, 의책을 좋아하고 자신의 인수, 의책을 입는 사람이 천 여명이나 된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삼한의 재지세력이 중원왕조로부터 받은 책봉을 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삼한의 풍속을 바탕으로 부여출자설을 보면, 백제왕실이 부여출자설을 창출한 목적을 알 수 있다. 즉, 부여출자설을 이용하여 중원왕조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야말로 백제 내부의 지배층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권위의 근원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백제왕실의 권위가 중원왕조의 인정을 바탕으로 하게 된 것은 원래 삼한지역에서 군장의 권위가 중원왕조의 인정에 기반했던 것에 유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백제왕실의 권위를 중원왕조에서 찾고자 한 것은 후대에도 이러한 사례가 보인다. 그 근거가 바로 사료 8과 9이다. 사료 8, 9에 의하면 백제왕은 신하에게 중국의 장군호를 사서(私署)하고 이를 중국황제에게 추인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관해 다양한 연구성과가 있지만, 적어도 중원왕조에게 추인된 장군호가 백제내부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³⁵⁾ 더욱이 「무령왕릉지석」에서 보이는 「영

34) 『南齊書』 卷58, 東夷傳·百濟條 “(前略) 寧朔將軍面中王姐瑾, 歷贊時務, 武功竝列, 今假行冠軍將軍都將軍都漢王. 建威將軍八中侯餘古, 弱冠輔佐, 忠効夙著, 今假行寧朔將軍阿錯王. 建威將軍餘歷, 忠款有素, 文武列顯, 今假行龍驤將軍邁盧王. 廣武將軍餘固, 忠効時務, 光宣國政, 今假行建威將軍弗斯侯.”

35) 백제의 중국장군호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坂元義種, 1978, 「五世紀の<百濟大王>とその王侯」,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梁起錫, 1984, 「五世紀 百濟의 「王」·「侯」·「太守」制에 對하여」, 『史學研究』 38; 鈴木靖民, 2003, 「왜와 백제의 부관제」,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노중국, 2012, 「백제의 王·侯號, 將軍號制와 그 運營」, 『百濟研究』 55; 정동준, 2015, 「백제의 중앙관제에 미친 중원왕조(中國王朝)의 영향에 대하여 -중앙관사의 구성을 중심으로-」, 『史林』 44; 박찬우, 2015, 「한

동대장군백제사마왕」의 사례나 2007년에 전라북도 고창군 오호리고분에서 발견된 「□(伏?)義將軍之印」명 청동인(525)에서도 백제 내부에서 중국 장군호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사례로부터 적어도 6세기 전반까지 백제왕실의 권위는 중원왕조의 권위에 기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백제에서 부여출자설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중원왕조의 승인을 받고 이를 국내에서 권위 향상을 위한 근거로써 이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원왕조의 사정을 이용하여 백제가 부여출자설을 주장한 결과, 이후 중원왕조의 인식은 크게 변모하게 된다. 아래의 사료는 그러한 인식의 변모를 엿볼 수 있는 사료이다.

【사료 10】 『진서』 권109 모용황제기

(고)구려, 백제 및 우문, 단부 사람은 모두 전쟁에 의해 끌려온 자들이기에 중국인처럼 의를 흠모해서 우리나라에 온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자들이 10만호에 달해 도성이 좁아지고 있으며 장래 나라의 해악이 될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마땅히 그 형제종속을 나누어 서쪽 변경의 성들로 옮기고 은혜로써 이들을 위무하고 법으로써 이들을 금제해야 합니다. 또한 빨리 풀어져 살게하여 나라의 허실을 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³⁶⁾

【사료 11】 『진서』 권113 부견제기 상

(부락(苻洛)은) 사자(使者)를 나누어 파견하여 선비, 오환, 고구려, 백제 및 설라(薛羅), 휴인과 같은 모든 나라에서 징병하고자 했으나 모두

성기 백제의 장군호 활용 배경과 정치적 의미, 『백제문화』 52 ; 백길남, 2015, 「4~5세기 百濟의 中國系 流移民의 수용과 太守號」, 『동방학지』 172 ; 정동준, 2015, 「백제에서의 장군호 수용과 막부제」, 『역사와 현실』 97 ; 井上直樹, 2018, 「백제의 王號 侯號 太守號와 將軍號 - 5세기 후반 백제의 지배질서와 동아시아 -」, 『百濟學報』 25.

36) 『晉書』 卷109, 慕容皝載記 “句麗, 百濟及宇文, 段部之人, 皆兵勢所徙, 非如中國慕義而至, 咸有思歸之心. 今戶垂十萬, 狹湊都城, 恐方將為國家深害. 宜分其兄弟宗屬, 徙于西境諸城, 撫之以恩, 檢之以法, 使不得散在居人, 知國之虛實.”

이에 따르지 않았다.³⁷⁾

【사료 12】 『양서』 권54 제이전 신라조

그 나라는 백제의 동남 5천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 땅의 동해안은 대해이며, 남북은 고구려, 백제와 접하고 있다.³⁸⁾

사료 10~11에서 보이는 ‘백제’는 역사상의 백제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사료 10은 전연의 기실참군 봉유가 간언한 내용의 일부인데, 수도에 고구려, 백제, 우문, 단부 사람이 많아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전연과 백제는 사료 상 교류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백제’는 『진서』의 편찬자가 백제와 부여를 혼동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³⁹⁾ 사료 10에 보이는 고구려, 우문, 단부는 모두 전연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전연과의 전쟁이 없었던 백제 보다는 285년에 전연에 의해 멸망한 부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료 11은 전진의 3대왕 부견의 사촌동생인 부락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380)의 내용이다. 여기서도 ‘백제’가 보이는데, 전진과 백제의 접촉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부락의 동이인식이 『삼국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부터 ‘백제’를 역사상의 백제라고 볼 수 없다. 『삼국지』 위지동이전의 정식 명칭은 ‘오환선비동이전’인데, 부락이 동원하고자 했던 동이제족과 유사하다. 이에 사료 11의 ‘백제’도 역사상의 백제가 아니라 부여일 가능성이 높다. 사료 12 역시 신라부터 백제까지 거리가 5천리인 것은 지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에 이 역시 백제가 아니라 부여로부터의 거리를 상정한 지리정보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⁴⁰⁾

37) 『晉書』 卷113, 苻堅載記上 “分遣使者徵兵於鮮卑, 烏丸, 高句麗, 百濟及薛羅, 休忍等諸國, 並不從.”

38) 『梁書』 卷54, 諸夷傳·新羅條 “其國在百濟東南五千餘里. 其地東濱大海, 南北與句驪, 百濟接.”

39) 關尾史郎, 1981, 「前燕政權成立の前提」, 『歴史学研究』 488, 19쪽 ; 여호규, 2015, 「4세기-5세기 초엽 백제의 대중교섭 양상」, 『백제의 성장과 중국』, 한성백제박물관, 132~136쪽.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백제와 부여를 ‘혼동’한 결과라고 지적하지만, 이는 단순한 혼동이 아니라 백제와 부여를 동일시한 당시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현상은 북조에서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남조에서만 보인다. 즉, 남조와 백제의 교류가 부여를 매개로 시작했기 때문에 남조에게 부여는 백제를 규정하는 하나의 요소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중국 정사에서 북조사서의 백제전에서 백제가 부여로부터 유래했다고 전하지만 남조의 사서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보이지 않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제가 교류가 적은 북조에 부여출자를 호소해온 결과로 이러한 기술이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미 남조에서는 ‘백제=부여’라는 도식이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백제왕실의 출자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지를 정리하면, 백제가 부여출자를 주장한 것은 대외적·대내적 목적이 있었다. 먼저 대외적인 면을 살펴보면, 백제는 중원왕조에서 부여가 ‘동이의 변국’을 상징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중원왕조에게 부여출자를 어필하고 이미 없어진 부여를 대신함으로써 고대 동아시아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대내적인 면을 살펴보면, 부여출자를 주장하는 것으로 얻은 중원왕조의 승인(책봉)에 기반하여 국내에서 왕실의 권위를 백제 내부의 지배층에게 과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백제의 부여출자설의 영향은 동아시아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특히 중국 남조에서 ‘백제=부여’라는 도식이 성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4. 나가며

백제가 왕실의 출자를 부여에서 찾은 주요한 유인(誘因)은 중원왕조의 부여인식에 기반하고 있었다. 중원왕조에게 부여는 전한대까지는 경계해야 할 이민족 중 하나였다. 후한대에 이르러 부여왕이 입조하여 군신의례를 행한 것으로 인해 부여는 중원왕

40) 矢木毅, 2012, 앞의 책, 45~47쪽.

조에게 있어서 ‘동이의 번국’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러나 3~4세기에 모용선비에 의해 부여가 실질적으로 멸망하자 ‘동이의 번국’은 소멸하게 된다. 이는 중원왕조가 자기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예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부정합(不整合)이 일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백제는 이러한 중원왕조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었기에 그러한 예적 질서의 공백에 자신을 위치시키고자 왕실의 부여출자를 주장하였다. 즉, 백제는 중원왕조가 자신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써 각인시킬 수 있었으며, 중원왕조는 예적 질서의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서로의 기대가 일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에당초 백제가 중원왕조로부터 승인을 얻는 것은 절실한 문제였다. 백제의 전신인 삼한제국에서는 중국의 군현인 낙랑군, 대방군으로부터 인수, 의책을 사여받는 것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있었다. 하지만 313년 고구려에 의해 낙랑군, 대방군이 붕괴함에 따라 변군과의 교섭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변군과의 교섭과 달리 중원왕조와 직접 교섭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역의 군장 정도로는 부족했기에 백제는 외교 전술의 일환으로서 부여출자를 주장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중원왕조로부터 얻은 책봉호는 삼한의 군장들이 변군으로부터 획득했던 권위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높은 권위를 상징하였다. 즉, 백제 국내의 지배층은 중원왕조의 승인을 얻은 왕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백제왕실은 높아진 권위를 바탕으로 삼한제국에서 자신을 우위에 놓을 수 있게 되었다.

백제사의 전개는 백제가 처한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가 부여출자설의 창출이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백제가 주변지역에서 자신을 우위에 놓기 위해서이기도 하였다. 즉, 백제는 고구려처럼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한 것⁴¹⁾이 아니라 자신을 중국 중심의 세계에 위치시킴으로써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자신의 우위성을 과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41) 노태돈, 1988, 「5세기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人の 天下觀」, 『韓國史論』 19.

<참고문헌>

한국어문헌

- 全海宗, 1973, 「漢代的 朝貢制度에 대한 一考察」, 『東洋史學研究』 6.
- 李丙燾, 1976, 「夫餘考」,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 梁起錫, 1984, 「五世紀 百濟의 「王」·「侯」·「太守」制에 對하여」, 『史學研究』 38
- 池培善, 1986, 『中世東北亞史研究』, 一潮閣.
- 金翰奎 외 4인, 1988, 『中國의 天下思想』, 民音社.
-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 노태돈, 1988, 「5세기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人의 天下觀」, 『韓國史論』 19
- 梁起錫, 1989, 「百濟初期의 王位繼承과 王權의 性格」, 『湖西文化研究』 8
- 千寬宇, 1989, 『古朝鮮史·三韓研究史』, 일조각
- 金杜珍, 1990, 「百濟始祖 溫祚神話의 形成과 그 傳承」, 『韓國學論叢』 13
- 김기섭, 1993, 「한성시대 백제의 왕계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83
- 李道學, 1994, 「4世紀 征服國家論에 대한 檢討」, 『韓國古代史論叢』 6
- 姜鐘元, 1999, 「百濟 近肖古王의 王位繼承」, 『百濟研究』 27.
- 李文基, 1999, 「新羅 金氏 王室의 少昊金天氏 出自觀念의 標榜과 變化」, 『歷史教育論集』 24.
-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3,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 노중국, 2012, 「백제의 王·侯號, 將軍號制와 그 運營」, 『百濟研究』 55
- 박찬우, 2015, 「한성기 백제의 장군호 활용 배경과 정치적 의미」, 『백제문화』 52
- 백길남, 2015, 「4~5세기 百濟의 中國系 流移民의 수용과 太守號」, 『동방학지』 172
- 정동준, 2015, 「백제의 중앙관계에 미친 중원왕조(中國王朝)의 영향에 대하여 -중앙관사의 구성을 중심으로-」, 『史林』 44

- 정동준, 2015, 「백제에서의 장군호 수용과 막부제」, 『역사와 현실』 97
- 한성백제박물관, 2015, 『백제의 성장과 중국』, 한성백제박물관
- 이승호, 2018, 「夫餘 政治史 研究」, 東國大學校 大学院 史学科 博士学位論文
- 井上直樹, 2018, 「백제의 王號·侯號·太守號와 將軍號 - 5세기 후반 백제의 지배질서와 동아시아 - 」, 『百濟學報』 25
- 吳澤炫, 2020, 「百濟姓氏의 歷史的 展開와 大姓八族」, 東國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권순홍, 2021, 「『肅慎國記』와 7세기 唐의 肅慎 소환」, 『선사와 고대』 67

일본어문헌

- 今西龍, 1934, 『百濟史研究』, 近澤書店.
- 稲葉岩吉·矢野仁一, 1935, 「朝鮮滿州史」, 『世界歷史大系』 11, 平凡社.
- 白鳥庫吉, 1947, 「百濟の起源について」, 『歴史』 創刊號.
- 池内宏, 1951, 『滿鮮史研究』 上世 第一冊, 吉川弘文館.
- 末松保和, 1954, 『新羅史の諸問題』.
- 小倉芳彦, 1970, 『中國古代政治思想研究』, 青木書店.
- 井上秀雄, 1975, 「朝鮮の初期國家—三世紀の夫餘國」, 『日本文化研究所研究報告』 1.
-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 關尾史郎, 1981, 「前燕政權成立の前提」, 『歴史学研究』 488
- Marshall Sahlins, July 1981, “The Stranger-King, or Dumézil among Fijians”, The Journal of Pacific History 16-3 (上野千鶴子訳, 1984, 「外来王—あるいはフィジーのデュメジル」, 『現代思想』).
- 志野敏夫, 1985, 「漢の衛士と「饗遣故衛士儀」」, 『早稲田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 [哲学·史学]』 別冊11

日野開三郎, 1988, 『東北アジア民族史』 上, 三一書房

李成市, 1998,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矢木毅, 2012, 『韓國・朝鮮史の系譜—民族意識・領域意識をたどる』, 塙書房

鈴木靖民, 金子修一 편, 2014, 『梁職貢図と東部ユーラシア世界』, 勉誠出版.

「백제부여출자설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토론문

윤용구(경북대)

I

본 발표는 후한 대 이래 ‘東夷의 번국(蕃國)인 부여를 계승한 百濟國’이라는 권위를 중원 왕조로부터 승인받으려는 외교적 필요에서 백제가 ‘夫餘出自說’은 창출하였고, 이를 통해 중국 중심인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동이지역(한반도와 일본열도) 내의 외교적 우위를 과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원 왕조로부터 국가적 승인을 받은 ‘부여출자설’은 대내적으로는 왕실의 권위 향상을 도모하는데 이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번 발표는 ‘濫祚傳說’ 또한 당대 百濟人이 아닌, ‘一統三韓’의 매개물로서 통일기 ‘新羅’에 의해 창출되었다는 파격적인 연구(韓相賢, 2023)에 뒤 이은 것이다. 온조와 함께 백제 시조로 전해지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沸流’ 전설, 그리고 『주서』와 『수서』 등 중국사서에 보이는 ‘仇台 전승’ 모두 ‘부여출자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구가 주목된다.

먼저 지적할 것은 ‘부여출자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외교적 목적에서 창출(創出)되었다는 발표자의 결론의 비교 사례로 제시한 고구려 ‘부여 출자설’의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가 동일하다는(李成市, 1998 ; 2022)¹⁾ 점이다. 이 때문인지 결론을 염두에 두고, 관련 사료와 연구 성과를 선택적으로 제시하는 서술구조가 보인다. 유념할

-
- 1) ① 고구려는 5세기 초엽에 스스로 부여에서 출자한 것을 자처하게 되지만, 이 역시 역사적 사실이라기 보다는 고구려의 정치적 전략에서 표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108쪽)
② 고구려의 건국전설은 당시 고구려가 놓인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뛰어난 정치적인 전략으로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19~120쪽)

사항임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II

첫째, 백제가 ‘부여출자설’을 언제 창출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3장에서 부여의 멸망에 뒤이은 東晋으로부터 자기 존재를 승인받기위해 부여 출자를 주장했다는 표현으로 미루면 4세기 후반 근초고왕대로 보이지만, 발표문 모두에 “백제는 건국 초부터 종말기에 이르기까지 왕실의 부여출자설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전제함으로써 발표자의 논지를 알기 어렵다. 동진에 사신을 보낸 백제왕이 餘姓을 썼다는 것하고, 부여출자설을 승인했다는 설명은 바로 연결되기 어렵다.

둘째, 부여출자설이 중국의 南朝史書에는 기록이 없고, 北朝史書에만 보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다. “북조는 백제가 부여출자를 호소한 결과로 기록이 남았고, 남조는 백제=부여라는 도식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백제 왕실의 출자를 적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였다. 백제=부여라는 도식의 성립으로 제시한 사료10·11은 『晉書』載記의 기록으로 北魏 崔鴻의 『十六國春秋』 등 霸史에서 발췌한 것이다. 남조계 사서로 보기 어렵다. 사료12는 백제에서 동남 5천리 떨어진 신라라는 기록은 夫餘로부터의 거리라는 해석을 따랐으나, 신라의 남쪽이 백제라는 기록으로 볼 때 표기에 오류로 보인다. 矢木懿의 역설을 인용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작 남조 사서인 『梁書』 백제전과 그 원자료로 여겨지는 『양직공도』 백제국사 題記는 백제를 ‘三韓(馬韓)之屬’이라 하였고, 『建康實錄』 백제전에는 “百濟, 弁辰之國”이라 하고 있다. 부여가 아닌 ‘三韓 出自說’이다.

셋째, 백제의 부여출자설의 확실한 기록은 『魏書』 百濟傳에 처음 보인다. 곧 백제전의 시작을 「其先出自夫餘」라 하였고, 472년 개로왕이 보낸 표문에 “백제는 고구려와 더불어 부여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그런데 같은 책 고구려전에도 「出於夫餘」로 되어 있다. 뒤 이어 백제전에는 없는 長文의 부여 東明 전승이 수록

되어 있다. 남조 사서인 『梁書』 고구려전에도 동명의 전승과 그 후예로 고구려를 기록하였다. 梁은 고구려의 부여출자설은 국가적으로 승인하고, 반대로 백제는 三韓의 무리로 본 것인가. ‘東夷의 번국(蕃國)인 부여를 계승한 百濟國’이라는 부여출자설의 승인은 남조와 북조 어디서도 명확하지 않다.

III

백제의 건국시조에 대한 전승은 부여·고구려와 달리 다양한 계통의 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삼국사기』의 비류와 온조는 『중국사서』 어디에도 없지만 부여계와 고구려계로 나뉘는 모습은 仇台 전승에서도 동일하다.(임기환, 1998 ; 윤용구, 2004) 발표자의 설명과 달리 『삼국사기』 외에도 백제가 고구려에서 유래했다는 중국사서(『수서』·『당회요』)도 있다.

부여는 3세기 이후 여러 차례 선비와 고구려 등의 침략으로 중심지 이동과 주민의 분산이 이루어 졌다. 북쪽 嫩江 방면으로 이동한 豆莫婁(410~726)가 자기 정체성을 지속한데서 볼 수 있듯이, 요서와 동옥저 등으로 흩어진 주민도 상당수에 달한다. 백제의 기원을 부여와 같은 생물학적 방법으로 동질성을 찾아가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지만, 그렇다고 ‘외교적 창출’에 따라 만들어진 인식으로만 본다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동명묘 제사 등 많은 기록은 설명이 어려워진다. 5세기 고구려와 경쟁의 산물로 해석해 온 국내학계의 여러 연구(정재윤, 2008)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명료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건국 시조의 전승이란 왕권의 신성성과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산물이라는 관점은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동이의 번국으로서 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 백제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속에서 부여출자설의 승인을 절실하게 생각했다는 부분은 사료 상 확인할 수 없다. 이른바 조공책봉체제라는 동아시아세계론의 최근 동향은 중국 주변국이 지닌 독자적인 국제질서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이지 않은가.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 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 李成市,1998 「高句麗の建國傳説と王權」,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이병호·김은진 옮김,2022, 『고대 동아시아의 민족과 국가』 삼인
- 韓相賢,2023 「百濟始祖 〈溫祚傳説〉の再檢討」, 『東アジアにおける朝鮮史の展望-李成市先生退職記念論集』 汲古書院
- 임기환,1998 「백제 시조 전승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고찰」, 『백제연구』 28, 충남대 백제연구소
- 정재운,2008 「백제의 부여 계승의식과 그 의미」,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 윤용구,2018 「부여 구태와 마한 진왕-백제가 표방한 두 개의 출자관」, 『초기 백제사의 제문제』 동북아역사재단
- 이승호,2020 「부여 문헌사 연구의 쟁점과 백제의 부여 계승의식」, 『백제는 부여를 계승하였나』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총서 17

고구려 중기 官制의 구조와 의미

이규호(한국국학진흥원)

- | | |
|------------------|-------------------|
| 1. 머리말 | 2) 대주부-주부의 관계와 분화 |
| 2. 중기관제의 형성과 分化 | 3) 兄系 관등의 성립 |
| 3. 중기 관제의 쟁점과 의미 | 4. 맺음말 |
| 1) 第二相 王山岳의 정체 | |

1. 머리말

주지하듯 고구려는 313년 낙랑군과 대방군 축출을 기점으로 하여 사방으로 본격적인 확장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5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서쪽으로 요하, 남쪽으로 한강, 북쪽으로 송화강, 동쪽으로 두만강 하류에 이르는 영역을 확보하였다. 民戶가 이전에 비하여 세 배가 되었다는 기록은¹⁾ 약 150여년 간 진행된 고구려의 확장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국가영토의 확대는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배층의 증가도 필연적으로 불러온다. 국가의 운영을 담당하는 고구려 왕실을 비롯한 중앙조정은 새롭게 획득한 지역의 원활한 통치와 더불어, 재지 지배층에 대한 고구려 지배질서로의 편입을 시도하였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관제라고 할 수 있는데, 기왕의 고구려 관제는 중심 집단인 5부를 대상으로 형성된 것이었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구려는 국내의 모든 지배층을 왕 아래로 일원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관제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형성된 것이 兄과 使者라는 두 축의 관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기 관제였다.

1) “東至柵城, 南至小海, 北至舊夫餘, 民戶參倍於前”(『위서』 권100, 고구려).

단, 이 시기 고구려 관제에 대한 문헌 기록은 대단히 빈약하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는 대외관계 기사만 있고, 『위서』 고구려전에는 謁奢, 太奢, 大兄, 小兄이라는 네 개의 관등만을 전할 뿐 아니라, 『양서』 고구려전은 이전 시대의 기록인 『삼국지』 고구려전의 내용을 거의 답습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히도 현재 발견된 각종 금석문 자료에는 문헌에 보이지 않던 관등들이 확인되어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고구려 중기 관제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 있다. 첫째는 兄과 使者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사자는 조세수취와 같은 행정적 직능을 가진 낮은 신분의 지배층에서 비롯하였다고 보는 한편, 형은 族長과 같은 상위 지배층에서 비롯되었다고 이해한 견해가 일찍부터 제기된 바 있다.²⁾ 이는 사자가 초기 관제에서 왕과 대가에 의해 自置되는 하위관원이었고, 兄은 族長적 성격을 지닌 于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위서』부터 『수서』에 이르는 고구려 관제의 서술이 왕실과 귀족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³⁾ 근래에는 兄이 皂衣에서 비롯된 近侍職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사자는 일반 행정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왕에 대한 근시 여부에 따라 형과 사자의 성격을 구분하기도 한다.⁴⁾

이와 달리 4세기 이후의 형과 사자는 사회적 기반에 따른 차별성이 없었으며,⁵⁾ 『위서』~『수서』의 관제 서술도 같은 계통을 서열 순으로 묶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⁶⁾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형과 사자의 성격 구분보다는 문헌과 금석문 자료를 종합하여 중기 관제의 모습을 복원하는데 힘쓴 연구들이 제출되었다. 그에 따르면 중기 관제는 어느 시점에 일괄적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373년(소수림왕3)의 율

2) 김철준, 1990 「高句麗·新羅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한국고대사학회연구』, 서울대출판부, pp.234~240

3) 이러한 시각은 2000년대 초반에도 보인다(노중국, 2003 「삼국의 관등제」 『강좌 한국고대사』2, 가락국사적개발원, pp.107~108.

4) 이동훈, 2019 『고구려 중·후기 지배체제 연구』, 서경문화사, pp.65~68.

5) 서영대, 1981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 『한국문화』2, pp.110~111.

6) 武田幸男, 1989 「高句麗官位制の史的展開」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pp.368~369.

령 반포와 427년(장수왕15)의 평양천도를 계기로 하여 단계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았다.⁷⁾ 구체적으로는 3세기 후반 大小로 분화되어 있던 兄과 使者가 373년에 상향분화가 이루어지고, 427년에는 하향분화가 이루어졌다고 파악하는데, 고구려의 중앙집권화 진전에 따른 관직의 증설 등을 배경으로 삼는다. 또한 최근에는 고구려가 반포한 율령의 성격을 염두에 두면서 중기 관등제를 정리한 연구도 제출되었다.⁸⁾

이처럼 열악한 사료 환경 속에서도 고구려 중기 관제의 구조와 변천과정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필자 역시 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진전을 보기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있어서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고, 기왕의 연구들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다. 중기 관제는 초기의 그것을 일부 계승하면서도, 긴 시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변화하여 후기 관제의 성립에 기초를 마련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왕의 주요 연구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중기관제의 형성과 分化

잘 알려진대로 4세기 이후 고구려 관제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兄과 使者系 관등이었다. 이것들은 명칭 앞에 大小를 붙여 상하로 분화함으로써 서열을 구성하였다. 그런데 이들 두 계통의 관등은 어느 한 순간에 완비된 형태로 구축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두고 점차 분화하여 형성되었다. 아래의 기사들은 그 가운데 가장 이른 기간인 2세기 후반~3세기 후반의 모습을 보여준다.

7)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8) 이정빈, 2020 「율령 반포와 관등제 정비」 『고구려 중기의 정치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가-1. [고국천왕 13년(191)] 겨울 10월 왕이 晏留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대의 말한 마디가 없었다면 나는 [乙]巴素를 얻어 함께 다스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지금 많은 공적이 쌓인 것은 그대의 공이다.”라 하였다. 곧 大使者로 拜하였다.⁹⁾

가-2. [동천왕 20년(246)]왕이 나라를 회복하고 공을 논하는데, 密友와 紐由를 第一로 삼았다. 밀우에게 巨谷과 靑木谷을 주고, [劉]屋句에게 鴨綠原과 杜訥河原을 주어 식읍으로 삼게 했다. 유유를 추증하여 九使者로 삼고, 그 아들 多優를 大使者로 삼았다.¹⁰⁾

가-3. [서천왕] 2년(271) 봄 정월, 西部 大使者 于濑의 딸을 왕후로 삼았다.¹¹⁾

가-4. [봉상왕]3년(294) 가을 9월에 국상 상루가 죽자, 남부 大使者 倉助利를 國相으로 삼고, 벼슬을 올려 大主簿로 삼았다.¹²⁾

위의 네 기사는 使者 관등이 분화한 大使者의 모습을 전한다. 기왕의 연구들에서 여러 차례 다뤄졌듯이, 본래 사자는 왕과 大加가 自置하였던 관등 중에 하나로서 조세수취와 같은 행정적 직무를 가짐과 동시에 그들의 대리자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이해된다.¹³⁾ 가-1, 2은 대사자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여준다. 가-1에서는

9) “冬十月，王謂晏留曰，若無子之一言，孤不能得巴素以共理。今庶績之疑，子之功也。乃拜爲大使者”(『삼국사기』 권17, 동천왕 13년).

10) “王復國論功，以密友·紐由爲第一。賜密友巨谷·靑木谷，賜屋句鴨淥·杜訥河原，以爲食邑。追贈紐由爲九使者，又以其子多優爲大使者”(『삼국사기』 권17, 동천왕 20년 10월).

11) “二年，春正月，立西部大使者于濑之女爲王后”(『삼국사기』 권17, 서천왕 2년).

12) “三年，秋九月，國相尚婁卒，以南部大使者倉助利爲國相，進爵爲大主簿”(『삼국사기』 권17, 봉상왕 3년).

13) 이규호, 2022 「고구려 초기 官制의 重層的 구조와 운영」, 『고구려발해연구』73, pp.63~64.

4연나의 반란을 진압한 고국천왕이 을파소를 국상으로 삼은 뒤, 을파소를 천거한 동부 안류¹⁴⁾의 공로를 인정하며 대사자로 임명하고 있다. 가-2도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관구검의 침공에서 전공을 세운 동부 유유¹⁵⁾에 대해 공로를 인정하여 九使者¹⁶⁾(大使者)로 삼는 한편 그의 아들을 대사자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볼 때 대사자자의 등장 계기는 공로에 의한 승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안류와 유유는 모두 동부, 즉 방위부 소속이었는데 이 시기 고구려의 5부는 소위 고유명부와 방위명부의 공존기였다. 그리고 가-1, 2 무렵은 방위명부 성립기로서 계루부의 여러 세력을 중심으로 국내성 일대에 형성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⁷⁾ 그러므로 안류 등의 방위부 소속 인물들은 계루부 출신으로 파악되며, 행적으로 볼 때 왕의 가신이거나 이미 본래의 근거지를 떠나온 세력들로 볼 수 있다.¹⁸⁾

대사자 수여 이전 그들의 지위는 현재 알 수 없다. 그러나 고구려왕은 우태와 같은 사자 이상의 上位官보다 大使者라는 새로운 관등을 주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자, 조의, 선인이 왕과 대가의 가신과 같았다는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면¹⁹⁾ 안류 등

14) “十三年，夏四月…於是，四部共舉東部晏留。王徵之，委以國政，晏留言於王曰，微臣庸愚，固不足以參大政。西鴨渌谷左勿村乙巴素者，琉璃王大臣乙素之孫也，性質剛毅，智慮淵深，不見用於世，力田自給。大王若欲理國，非此人則不可”(『삼국사기』 권16, 고국천왕 13년).

15) “冬十月，儉攻陷丸都城，屠之，乃遣將軍王頎追王。王奔南沃沮，至于竹嶺，軍士分散殆盡，唯東部密友獨在側，謂王曰，今追兵甚迫，勢不可脫。臣請決死而禦之，王可遜矣。遂募死士，與之赴敵力戰。王間行脫而去，依山谷聚散卒自衛，謂曰，若有能取密友者，厚賞之。下部劉屋句前對曰，臣試往焉。遂於戰地，見密友伏地，乃負而至。王枕之以股，久而乃蘇。王間行轉輒，至南沃沮，魏軍追不止。王計窮勢屈，不知所爲，東部人紐由進曰，勢甚危迫，不可徒死。臣有愚計，請以飲食犒魏軍，因伺隙，刺殺彼將。若臣計得成，則王可奮擊，決勝矣”(『삼국사기』 권 17, 동천왕 20년).

16) 九使者는 이 기사에서 명칭만 보여 구체적인 성격은 알 수 없다. 九와 大의 字形이나 유유의 아들이 大使者를 받은 것에서 볼 때, 대사자의 誤記인 듯 하다.

17) 盧泰敦,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pp.164~168 ; 李鍾旭, 1982 「高句麗 初期의 地方統治制度」 『歷史學報』 94:95, pp.109~113.

18) 동천왕이 옥저 방면으로 피신할 때 그를 따랐던 자들을 ‘諸加’로 표현한 사례가 참조된다. “六年(245), 儉復討之。位宮輕將諸加奔沃沮”(『양서』 권54, 高句麗).

은 독자적인 기반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 한편으로 이것은 고구려왕이 사자에서 대사자를 분화시킬 만큼 많은 세력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가-3은 이와 같은 대사자 임명의 또 다른 사례를 보여주는 기사이다. 여기서는 서부 대사자 우수의 딸이 서천왕의 왕후가 되었다고 하는데, 고국천왕비였던 연나부 우씨²⁰⁾의 사례를 고려할 때, 우수 역시 본래 연나부 소속의 우씨 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가-3에는 우씨의 소속이 서부로 되어 있다. 왕후를 배출하던 연나부 지배층이 왕도 주변의 서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²¹⁾

이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우수의 대사자 관등이다. 연나부에서 서부로 소속을 바꾼 우수가 연나부 출신 인물에게 자주 수여되던 패자나 우태가 아니라²²⁾ 사자계 관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다. 4나부의 지배층에게 수여되는 관등이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패자는 중천왕 2년(254) 비류부 읍우를 끝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며,²³⁾ 우태 역시 동천왕 4년(230) 연나부 명립어수를 끝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²⁴⁾ 고유명 5부가 방위명 5부로 변화함에 따라 생긴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본래 4나부의 지배층에게 새로운 관등의 수여가 필요했고, 그 중 하나가 사자에서 분화된 대사자였다고 할 수 있다.

19) “諸大加亦自置使者·阜衣先人, 名皆達於王, 如卿大夫之家臣”(『삼국지』 권30, 東夷傳, 고구려).

20) “二年, 春二月, 立妃于氏爲王后. 后提那部于素之女也”(『삼국사기』 권16, 고국천왕 2년).

21) 李鍾旭, 1982 앞의 논문, pp.49~50 ; 임기환, 2004 앞의 책, p.104 ; 여호규, 2014 앞의 책, pp.384~385.

22) “拜荅夫爲國相, 加爵爲沛者, 令知内外兵馬, 兼領梁貊部落”(『삼국사기』 권16, 신대왕 2년) ; “中畏大夫沛者於畀留·評者左可慮, 皆以王后親戚, 執國權柄”(『삼국사기』 권16, 고국천왕 12년) ; “四年, 秋七月, 國相高優婁卒, 以于台明臨於湫爲國相”(『삼국사기』 권17, 동천왕 4년).

23) “七年, 夏四月, 國相明臨於湫卒, 以沸流沛者陰友爲國相”(『삼국사기』 권17, 중천왕 7년).

24) 주23의 동천왕 4년과 동일.

가-4는 대사자의 승진 사례로서, 대주부로 승진하여 국상이 되었다고 하여 대사자의 상위에 대주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주부는 일찍이 패자와 함께 좌보와 우보를 맡은 바 있고,²⁵⁾ 패자와 우태는 좌우보를 계승한 국상에 임명될 수 있는 관등이었다.²⁶⁾ 또한 『삼국지』 고구려전의 관제 서술에서도 주부는 패자와 우태 사이에 위치하므로 그에 상당하는 지위라고 파악된다. 따라서 이 시기 대주부의 관등을 가지고 국상에 임명되는 것은 어색하지 않다. 한편 『삼국사기』에 보이는 대주부와 『삼국지』의 주부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이 기사에서 보다 주목되는 것은 대사자와 대주부 간의 승진관계이다. 초기 관제에서 사자와 주부는 모두 행정적 직무를 가진 동일 계통의 관등으로 파악되며, 군사적 직무를 지닌 패자, 조의와 더불어 동일 계통 간의 승진양상을 살필 수 있다.²⁷⁾ 후술하겠지만 이 무렵 패자를 대체한 1위관으로서 대로가 있었음에도 국상인 창조리의 관등이 대주부였던 것은, 관제의 변화라는 과도기 속에 잔존한 초기 관제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사자 관등의 분화는 방위명 5부로 모여든 기존의 고유명 5부 지배층에 대한 새로운 지배질서의 확립이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고구려왕은 제가에게 ‘왕의 사자’라는 의미의 대사자, 사자 등을 수여함으로써 집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단, 사자 관등의 분화는 초기 관제에서 보였던 주부와 사자를 계승 발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초기 관제 이후 소멸된 관등의 역할을 대신한 것도 있었을 것이다. 먼저 3세기 중반부터 그 단초가 보이는 대로가 있다.

나-1. 官을 두는데 對盧가 있으면 沛者를 두지 않고 沛者가 있으면 對盧를 두지 않는다.²⁸⁾

25) “二年，春二月，拜貫那沛者彌儒爲左輔…秋七月，左輔穆度婁，稱疾退老。以桓那于台菸支留爲左輔，加爵爲大主簿”(『삼국사기』권15, 차대왕 2년).

26) 주23의 신대왕 2년 및 동천왕 4년과 동일.

27) 이규호, 2022 「고구려 초기 官制의 重層的 구조와 운영」 『고구려발해연구』73.

나-2. (개로왕 21년[475] 9월) 고구려 對盧 齊于, 再曾築婁, 古爾萬年 등이 병사를 거느리고 北城을 공격하여 7일만에 함락시키고 이동하여 南城을 공격하였는데 성안이 위중하여 왕이 나와서 도망쳤다...²⁹⁾

나-1은 대로에 대해 소개하는 기사로서 대로와 패자가 호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패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견해들이 제기된 바 있다.³⁰⁾ 동시기 병존 혹은 패자 폐지 후 대로의 설치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3세기 무렵의 고구려 5부는 고유명부에서 방위명부로 전환되는 과도기였고, 양자의 등장 시기 역시 상이하다. 다만 고유명부와 패자, 방위명부와 대로가 비슷한 시기에 짝지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패자는 고유명부를 기반으로, 대로는 방위명부를 기반으로 성립된 것으로 파악된다.³¹⁾

고유명부에서 방위명부로의 변화는 고구려 왕실의 집권력 강화과정과 함께하기 때문에 패자가 소멸하고 대로가 등장하는 과정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3세기 중반을 배경으로 하는 『삼국지』 고구려전은 과도기의 모습을 보고 ‘대

28) “其國有王, 其官有相加·對盧·沛者·古雛加·主簿·優台·丞·使者·阜衣·先人, 尊卑各有等級…其置官, 有對盧則不置沛者, 有沛者則不置對盧”(『삼국지』 권30, 고구려).

29) “高句麗對盧齊于·再曾築婁·古爾萬年等帥兵, 來攻北城, 七日而拔之, 移攻南城, 城中危恐, 王出逃…”(『삼국사기』 권25, 개로왕 21년 9월).

30) 성격의 차이로 구분한 견해와 성립기반의 차이로 본 견해로 나뉜다. 먼저 성격의 차이로 볼 때는 대로=족장, 패자=대로 보좌역(김철준, 1990 앞의 책, p.229), 대로=일반 읍락 대수장층, 패자=나부의 직책(김광수, 1983 「고구려 고대 집권국가의 성립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pp.109~114), 왕 직속 관료 체계 최고위 관으로(노중국, 1979 「高句麗 國相考」上·下 『한국학보』16·17합집, p.18) 파악한다. 반면 성립기반의 차이로 볼 때는 병존 이후 패자의 소멸(이종욱, 1982 「고구려 초기의 중앙정부조직」 『동방학지』33, pp.38~40), 패자=나부계, 대로=방위부계(임기환, 2004 앞의 책, pp.120~125), 패자=나부의 대가, 대로=계루부의 대가(윤성용, 1997 「고구려 귀족회의의 성립과정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11, pp.327~333)로 이해한다.

31) 임기환, 2004 앞의 책, pp.120~125.

로가 있으면 패자를 두지 않고, 패자가 있으면 대로를 두지 않는다.’라고 서술한 것이다.³²⁾

한편 패자는 소속부의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³³⁾ 대로가 패자를 대체했다면 그의 권한도 대체했을 수 있는데, 나-2는 그와 관련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기사에서 대로는 백제 공격을 지휘한 주체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대로 역시 군사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대로가 지닌 군사적 권한의 범주가 패자처럼 소속부에 한정되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면 대로의 지위는 패자와 비교해 어떠했을까. 패자는 3인의 비류부장³⁴⁾이나 4연나³⁵⁾ 등을 고려해도 각 부 내에서 매우 소수가 부여받는 특권적 지위였다. 그런데 ‘대로가 있으면 패자를 두지 않고, 패자가 있으면 대로를 두지 않는’ 과도기를 거친 뒤에는 나부가 해체되면서 방위부의 대로가 패자의 지위를 대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패자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대로 역시 방위부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획득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로는 고구려 방위명 5부의 서열 정점에 있는 1위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³⁶⁾

다음으로는 우태와 조의가 소멸되는 관등인데, 이 무렵 새롭게 등장하는 관등으로 兄系 관등이 있다.

32) 선행연구에서도 해당 기록이 3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패자가 대로로 교치되던 상황을 반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여호규, 2014 앞의 책, p.397).

33) “二十年，春二月，遣貫那部沛者達賈伐藻那，虜其王”(『삼국사기』 권15, 태조왕 20년) ; “二十二年，冬十月，王遣桓那部沛者薛儒伐朱那，虜其王子乙音爲古鄒加”(『삼국사기』 권15, 태조왕 22년).

34) “十五年，春三月，黜大臣仇都·逸苟·焚求等三人爲庶人。此三人爲沸流部長…”(『삼국사기』 권14, 대무신왕 15년).

35) “十二年，秋九月，中畏大夫沛者於畀留·評者左可慮，皆以王后親戚，執國權柄，其子弟並恃勢驕侈，掠人子女，奪人田宅，國人怨憤。王聞之，怒欲誅之，左可慮等與四椽那謀叛”(『삼국사기』 권16, 고국천왕 12년).

36) 임기환, 2004 앞의 책, p.231 ; 여호규, 2014 앞의 책, p.402 ; 이규호, 2017 「고구려 對 盧의 성격과 역할」 『사학연구』127, pp.148~149.

나-3. [봉상왕] 2년(293) 8월 慕容廆가 침략해왔다. 왕이 신성으로 가서 적을 피하려 하였다. 행차가 鵠林에 이르자 모용외가 왕이 나간 것을 알고 병력을 이끌고 추격하였다. 거의 따라잡게 되자 왕이 두려워하였는데, 이 때 新城宰 北部 小兄 高奴子가 500騎를 이끌고 적을 맞아 힘껏 싸우니 모용외의 군대가 패퇴하였다. 왕이 기뻐하여 고노자의 爵을 더하여 大兄으로 삼고 鵠林을 食邑으로 삼게 하였다.³⁷⁾

나-3은 3세기 말 모용선비의 침입을 물리친 高奴子의 활약을 적고 있다. 기사에 의하면 그는 본래 소형이었다가 모용외의 군대를 물리친 공로로 대형이 되었다. 이 기사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첫째는 兄의 등장시점이다. 위의 기사는 293년의 사건이지만, 이것은 사료상의 등장시점일 뿐이므로 실제로는 시기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가까운 시점에 앞서 언급한 5부의 과도기이자 일부 초기 관등의 소멸 시점이 있다. 이는 형의 등장 이 방위명 5부로 결집한 지배세력에 대한 수여의 목적으로 등장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해준다.

둘째는 수여대상의 문제이다. 북부 소형이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 형계 관등의 수여는 방위부 소속인물에게 주어지고 있다. 초기 관등 가운데 패자가 대로로 대치되고, 주부는 존속했으며 사자계 관등은 후대에도 계속 분화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다면 우태나 조의, 선인이 남아, 이들과 형계 관등의 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기왕의 논의에서도 이 점에 주목하여 우태, 조의와 형의 관계를 다루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셋째, 동일 계통간 승진관계이다. 나-3에 의하면 고노자는 전공을 통해 소형에서 대형이 되었다. 형과 사자가 교차해서 서열을 이루었던 고구려 관제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고노자의 경우도 동일 계통으로 승진한 것이다. 이 역시 앞서 살핀 사자계 관등

37) “二年，秋八月慕容廆來侵。王欲往新城避賊。行至鵠林，慕容廆知王出，引兵追之。將及王懼，時新城宰北部小兄高奴子，領五百騎迎王，逢賊奮擊之，廆軍敗退。王喜，加高奴子爵爲大兄，兼賜鵠林爲食邑”(『삼국사기』 권17, 봉상왕 2년 8월).

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초기 관제의 모습이 잔존한 결과라고 파악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3세기 후반경에는 대로, 주부, 대사자, 대형, 소사자, 소형, 선인³⁸⁾이 있었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초기 관제의 해체 이후 형성된 관제의 기본적인 틀이 되었고,³⁹⁾ 여기서 점차 분화하여 6~7세기 관제의 모습으로 변화해갔다.

다-1. 其官名有謁奢·太奢·大兄·小兄之號. 頭著折風, 其形如弁, 旁插鳥羽, 貴賤有差
(『위서』 고구려전)

다-2. 建威將軍國小大兄左將軍龍驤將軍遼東太守使持節東夷校尉幽州刺史鎮
(『덕흥리고분 목서』)

다-3. 大兄冉牟…祖父⁴⁰⁾大兄慈⁴⁰⁾大兄⁴⁰⁾(『모두루묘지』⁴⁰⁾)

다-4. 乙亥年八月前部小大使者於九婁治(『농오리산성 마애석각』)

다-1~3은 4세기 말~5세기 초반의 기록들로서, 고구려 관제의 상위분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활용되어왔다. 다-1의 謁奢, 太奢는 『한원』 고려기의 기록에 의거하여⁴¹⁾ 태대사자와 대사자를 가리키는데, 대사자가 다시 태대사자와 대사자로 상위분화했음을 보여준다. 다-4 역시 대사자가 태대사자와 소대사자로 분화했음을 잘 보여준다.

38) 본문에서는 이 무렵 선인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들 수 없어 언급하지 않았지만, 초기나 후기에 선인이 모두 최하위관으로 있다는 점에서 시종일관 존속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39) 武田幸男, 1989 「高句麗官位制の史的展開」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40) 판독안은 이준성, 2020 「牟頭婁 墓誌의 판독과 역주 재검토」 『목간과문자』25을 참조하였다.

41) “次大夫使者, 比正三品, 亦名謂謁奢…次大使者, 比正四品, 一名大奢”(『한원』 고려기).

사자가 이러했다면 형도 비슷했을 것인데, 다-2의 國小大兄(小大兄)은 형제 관등 역시 태대형과 소대형으로 분화되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상위분화의 계기로 지목되는 것은 372년의 율령반포였다.⁴²⁾ 3세기 후반이 서열로서의 관등과 직무로서의 관등이 아직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던 시기였음을 고려할 때, 4세기부터 율령반포에 이르기까지 국가행정에 필요한 주요관부의 설치에 따른 관직은 점차 증가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등과 관직의 복합적 성격을 지닌 초기 관제의 모습은 관직의 증가로 인해 변화하게 되었다. 4세기에 활동했던 모두루 가문의 인물들은 각기 대형과 대사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창조리나 고노자가 활동했던 3세기 후반과는 달리 이미 관등 그 자체기반의 차별성은 사라지고 서열의 표시만을 나타내게 되었다.⁴³⁾

그런데 관료조직의 측면에서나, 지배층의 신분표시 측면에서나 관제의 구성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하위관등의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을 것이다.

다-5. 前部太使者多于桓奴, 主簿貴德…新羅土內幢主下部拔位使者補奴…古牟婁城守事下部大兄耶□(『충주고구려비』)

다-6. 己丑年, 三月, 廿一日, 自此下向□[下]二里, 內[中]百頭上位使尔丈作節矣(『평양성 석각』 제3석)

다-5는 충주고구려비에 보이는 인명들로서, 직명+소속부+관등+인명의 순으로 서술되어 있다. 비문의 건립연대에는 논란이 있으나, 비문이 전하는 사건이 5세기 중반이라는 점은 대체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⁴⁴⁾ 따라서 5세기 중반 고구려 관제의 모습

42) “三年, 始頒律令”(『삼국사기』 권18, 소수림왕 3년).

43) 서영대, 1981 앞의 논문, pp.110~111 ; 여호규, 2014 앞의 책, pp.397~400.

44) 연대에 관한 견해들의 논점에 대해서는 장창은, 2014 「『忠州高句麗碑』 연구의 현 단계」

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拔位使者라는 관등이다. 발위사자는 『한원』 고령기에 의하면 대형과 소형 사이에 상위사자와 함께 차례로 8, 9위에 위치하고 있다. 양자는 位를 공통으로 하는 명칭으로 보아 같은 시점에 분화된 것으로, 소사자에서 발위사자와 상위사자로 분화되었다고 파악한다.⁴⁵⁾ 6세기 중엽으로 비정되는 다-6의 평양성 석각 속 상위사는 소사자의 분화결과를 확인시켜준다.

또한 명칭이 기존과 달리 대, 소가 붙지 않은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태대사자, (소)대사자에 대소사자, 소소사자까지 분화되면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위와 상위로 명명한 것이이라 하였다.⁴⁶⁾ 5세기 중엽에 소사자가 이와 같이 분화되었다면 소형 역시 그러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4세기 후반에 대사자와 대형이 함께 상위분화했으므로, 소형도 소사자와 비슷한 시기에 하위분화했을 것이며, 그 결과는 『한원』에 나오는대로 小兄과 諸兄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3세기 후반부터 진행해온 관제구조의 변화는 427년의 평양천도를 끝으로 그 모습을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그 구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고구려 남방진출사 연구』, 경인문화사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한편 최근에는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고대사학회가 공동으로 충주고구려비를 재판독했는데, 판독안은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1 『충주고구려비』, 동북아역사재단을 참고.

45) 임기환, 2004 앞의 책, pp.212~217.

46) 여호규, 2014 앞의 책, pp.406~407. 소형과 제형의 분화양상 역시 소사자의 이유와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3c末		4c(율령반포 : 373)		5c(평양천도 : 427)	
관직	관등	관직	관등	관직	관등
국상	對盧		對盧		對盧
	(大)主簿		大主簿		大主簿
			太大使者		太大使者
			太大兄		太大兄
太守	大使者	太守, 守事	大使者	太守, 守事	大使者
	大兄		大兄		大兄
	(丞?)		(主簿)		主簿
	小使者	宰	小使者	宰 新羅土內幢	拔位使者
宰	小兄		小兄	主	小兄
	先人		先人		先人

표 7 고구려 중기 관제의 분화양상

이처럼 고구려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관제를 발달시켜왔다. 고구려 관제의 마지막 형태인 6~7세기 관제에 나타나는 관등 대부분은 5세기 중엽 즈음에 이미 모두 확인된다. 때문에 6~7세기 관제의 기반이 이 시기에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한다.⁴⁷⁾ 이는 단순히 신분적인 구분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 측면에서도 관부와 관원의 분화과정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기 관제의 성립과 변화과정은 구조적인 면에서 큰 이견을 가지기 어렵다. 다만 초기 관제로부터의 계승적 발전, 새로운 관등의 출현과 분화 등을 고려하면 이견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 장에서는 미루어 두었던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검토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보겠다.

47) 임기환, 2004 앞의 책, p.225. 최근에도 이러한 측면에서 중기 관제가 검토되었다(이정빈, 2021 앞의 논문, pp.65~68).

3. 중기 관제의 쟁점과 의미

1) 第二相 王山岳의 정체

먼저 중기 관제를 살핌에 있어서 그간 별로 주목되지 않았던 기사를 하나 들고자 한다. 종래의 논의에 보완이 될 것이다.

라-1. 玄琴(거문고)의 제작은 新羅古記에 이르기를, 일찍이 쑤나라 사람이 七絃琴을 고구려에 보냈는데, 고구려인들은 비록 그것이 악기라는 것은 알았으나 그 聲音과 연주법을 알지 못하여 국인으로 그 음과 연주법을 알 수 있는 자를 구하며 후한 상을 준다고 하였다. 이때 第二相 王山岳이 그 본래의 형태를 보존하면서 그 법제를 상당히 바꾸어 그것[玄琴]을 만들고 곁하여 1백여 곡을 지어 연주하였다. 이때 검은 학이 와서 춤을 추어, 마침내 현학금이라 하였는데 이후에는 현금이라고만 하였다.⁴⁸⁾

위의 기사는 『삼국사기』 樂誌에 소개된 내용으로서 고구려에 현금이 전래된 계기를 전한다. 고구려인들은 쑤에서 보낸 칠현금이 악기임은 알았으나 연주할 줄은 몰랐는데, 왕산악이 이를 알고 나름대로 고쳐서 거문고를 만들고 곡을 지었다고 한다. 종래에는 왕산악을 통해 낙랑 왕씨와 같은 평양 지역 지배층이 고구려 정계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언급하였다.⁴⁹⁾

그런데 이 기사는 그뿐만 아니라 왕산악이 第二相으로 소개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 기사가 어느 시기에 일어난 일인지가 중요할 것인데, 그 단서는 ‘진나라 사람’에서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조위 이후의 쑤으로 양국 간의

48) “玄琴之作也，新羅古記云，“初晉人以七絃琴，送高句麗，麗人雖知其爲樂器，而不知其聲音及鼓之之法，購國人能識其音而鼓之者，厚賞。時第二相王山岳，存其本樣，頗改易其法制而造之，兼製一百餘曲，以奏之。於時玄鶴來舞，遂名玄鶴琴，後但云玄琴”(『삼국사기』 권32, 樂誌).

49) 서영대, 1981 앞의 논문, pp.98~99 ; 임기환, 2004 앞의 책, p.272.

관계를 고려할 때, 西晉(265~317)보다는 東晉(317~420)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라-1은 4세기 초반~5세기 초반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왕산악의 第二相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먼저 相을 고구려 초기의 國相처럼 재상의 의미로 보고 두 번째 서열의 재상이라 파악하는 것이다. 앞서 3세기 후반에 제2위관이었던 대주부로서 국상이 된 창조리가 있으므로, 관직은 재상이되 관등은 2위였음을 나타낸다고 이해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국상이 4세기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상 이외에 다른 ‘相’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第二相을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을지는 난관이 많다고 생각한다.

第二相이 가리키는 정체는 『삼국사기』가 인용한 사료가 新羅古記라는 점에 주목하면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다. 第二相은 문맥으로 보아 관등 내지 관직으로 볼 수 있는데, 『삼국사기』 직관지에서 고구려의 사자를 ‘相’으로 기록하고 있음이 유의된다.

고구려	신라
主簿	一吉滄
大相	沙滄
位頭大兄·從大相	級滄
小相·狄相	奈麻
小兄	大舍
諸兄	舍知
先人	吉次
自位	烏知

표 8 『삼국사기』 고구려 관등의 신라 관등 대응표

위의 표에 의하면 신라에 편입된 고구려 유민들은 본국의 관등에 준하여 신라의 관등을 수여받았음을 보여준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 여기서의 相은 사자를 가리키므로 대상 이하의 相 계통 관등은 사자계 관등의 서열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상은 3위였던 주부 아래의 4위 태대사자를 가리킬 것이며, 그로부터 순서대로 대사자(從大相), 발위사자(小相), 상위사자(狄相)에 대응된다.

이처럼 신라측에서 고구려의 사자를 ‘상’으로 표기했다고 했을 때, 라-1이 인용한 신라고기의 第二相이라는 표현에서의 相은 사자를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 第二가 서열상 두 번째를 의미한다고 하면, 第二相은 사자계 관등 가운데 두 번째에 위치한 대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第二相 왕산악은 대사자 왕산악으로 치환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1의 국인이 동진 시기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에 거주하던 5부인이고⁵⁰⁾ 왕산악을 낙랑 고지에 거주하던 낙랑 왕씨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북부여를 연고로 하는 대사자 모두루나 덕흥리 일대(낙랑 지역)를 연고로 하는 소대형 □□鎮과 같이 고구려에 의해 대사자~대형급으로 편제된 지방 지배층의 한 사례가 되리라 생각한다.

2) 대주부-주부의 관계와 분화

이제 앞에서 미루어 두었던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해보겠다. 먼저 주부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자. 앞에서는 『삼국사기』의 대주부와 『삼국지』의 주부가 동일한 것을 가리키며, 이것은 6~7세기 후기 관제에서 3위에 해당하는 주부이고, 표1에 정리했듯이 4~5세기에도 큰 변동없이 유지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와는 서열이 다른 주부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료를 다시 제시하였다.

라-2. 前部太使者多于桓奴, 主簿貴德…新羅土內幢主下部拔位使者補奴…古牟婁城守事下部大兄耶□(『충주고구려비』)

일반적으로 전근대 인명의 표기는 서열이 높은 순으로 기술된다. 그럴 때 라-2의 앞부분인 太使者 多于桓奴와 主簿 貴德의 기술 순서가 주목된다. 이에 의하면 대사자가 주부보다 상위가 되는데, 이것은 앞서 살핀 3위관인 주부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50) 최의광, 2004 「고구려의 ‘國人’ 연구」, 『사충』58, pp.36~37.

4~5세기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주부의 서열에 변동이 있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가 6세기 중엽에 다시 3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당시 관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별로 설득력 있는 가정이 아니다.

따라서 라-2의 주부는 당시 2위관이었던 주부와는 다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서 3세기 후반인 가-4에 대주부가 나오는 것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 대주부의 실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셋으로 나뉜다. 첫째는 대주부(『삼국사기』)=주부(『삼국지』)라는 의견이다. 『삼국사기』 초기기록의 대주부와 『삼국지』의 주부가 위상과 역할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이 6세기 이후까지 이어졌다고 본다.⁵¹⁾ 둘째는 대주부=대로라는 의견이다. 대주부와 대로가 서로 시기를 달리하여 보이는 점, 대로가 왕실지지기반 관등이라는 점, 대대로의 이칭인 '吐猝'과 주부의 고구려식 표현인 '鬱折'의 발음이 유사하므로 계통성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대주부의 고구려식 표현을 대로라고 이해하였다.⁵²⁾ 셋째는 주부에서 대주부가 분화했다는 의견이다. 『삼국지』의 주부는 『삼국사기』의 대주부와 주부를 포괄하는 관이며, 『충주고구려비』의 기사를 대주부의 하위에 주부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하위관인 주부는 귀족연립정권의 성립과 함께 소멸되었다고 본다.⁵³⁾

정리하자면 문제는 초기의 주부가 중기에 들어서며 분화했는가, 했다면 배경은 무엇인가. 또 대주부와 대로는 같은 것을 가리키는가로 정리될 수 있겠다. 먼저 대주부와 대로는 같은 것을 가리키는가의 문제인데, 필자는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본다. 『한원』 고구려기에서 동일한 계통의 관등군은 동일한 어미를 가지고 있어 계통성을 보여준다.⁵⁴⁾ 그런데 대대로와 주부는 이칭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일치하지 않

51) 여호규, 2014 앞의 책, pp.214~216.

52) 조영광, 2015 「고구려 초기 관등의 기원과 성격에 대하여」 『사학연구』119, pp.57~60 ; 이준성, 2016 「고구려 초기 대가의 성격과 상위 관제의 爵的 운영」 『동북아역사논총』53, pp.339~341.

53) 임기환, 2004 앞의 책, p.233 및 pp.235~236.

54) 예컨대 형계관등은 '支', 사자계관등은 '奢'가 말미에 붙는다.

는다. 고려기에서 울절을 ‘華言’이라 하면서 주부라고 한 것은 모든 고구려 관등에 중국식 명칭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부가 중국에서 연원하였기 때문에 그를 특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대로와 주부가 동시에 등장하는 『삼국지』에도 구분되어 서술된 것으로 볼 때, 일찍부터 양자는 별개의 관등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⁵⁵⁾

다음으로 주부의 분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겠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3세기 후반에 성립되기 시작한 중기 관제의 원형은 초기 관제의 일부를 계승하는 한편, 5세기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였다. 따라서 3세기 후반에 국상으로 임명되는 대주부는 5세기까지도 큰 변화없이 지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사자보다 하위에 주부가 있었다고 보면 그것은 본래의 주부를 하위분화시켜서 대주부와 주부로 나누었다고 이해해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관제의 분화는 시대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주부의 분화 역시 어떠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겠지만, 문제는 주부의 성립과정과 역할을 고려하건대 사자계 관등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즉, 기왕에 형과 사자라는 두 계통의 관등을 축으로 하여 분화발전 시키고 있던 고구려의 입장에서 굳이 비슷한 계통인 주부를 분화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찾아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충주고구려비』의 내용을 존중한다면 어쨌든 5세기 중엽 무렵에는 대사자의 하위관등으로서 주부는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왜 생기게 된 것일까. 이 점에서 『삼국지』 고구려전의 관제 기록을 다시금 상기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삼국지』에만 있는 내용이지만, 하위관인 사자, 조의, 선인과 상위관인 우태 사이에 쯤이 주목된다. 물론 쯤은 이름만 전할 뿐 구체적 사례도 찾을 수 없어 실존했던 관등인가 의심을 받는 것이 대세이다. 그러나 쯤은 군현의 長吏였고, 군현과 일찍부터 교류와 상쟁을 반복했던 고구려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생각할 때, 일정한 역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⁵⁶⁾

55) 양자가 모두 등장하는 『주서』 이후의 사서들 역시 전부 둘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

3세기 중엽 이후 승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승이 서열상 사자 바로 앞이고 사자에서 대사자가 상위분화했다고 보면, 표1에 정리했듯 승이 있을 법한 위치는 대사자의 바로 아래에 둘 수 있다. 그리고 이 위치는 『충주고구려비』에 나타난 주부의 위치와 거의 같다. 추정에 불과하지만 초기 관제에서 漢군현으로부터 수용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닌 주부와 승이 있었는데, 중기 관제로 이행하면서 승이 어느샌가 소멸되고 그 자리에 주부를 분화시켰다고 볼 수는 없을까. 그리고 주부는 중기 관제의 하위분화가 이루어지는 5세기 중엽무렵까지 존속하다가 그 역할을 다하고 하위의 형·사자에게 자리를 넘겨주었다고 짐작된다.

요컨대 주부는 본래 3세기 중엽까지 상위관으로서 단독으로 존재하였다가, 3세기 말 이후 어느 무렵 승의 자리를 대체하고자 하위분화하여 대주부와 주부로 나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야만 『충주고구려비』의 기록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본래 주부였음에도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대주부라고 나오게 된 이유는 후대의 대주부의 위상이 소급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

3) 兄系 관등의 성립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구려 중기 관제는 초기 관제 가운데 왕의 집권력 강화와 관련이 있는 관등들을 계승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점에서 형계 관등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다른 관등들과 달리 형계 관등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자와 대로의 사례와 같이 어느 한쪽이 소멸되더라도 그를 대체한 새로운 관등이 생성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형계 관등 역시 이전의 관제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형계 관등은 일찍이 우태와 선후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56) 이종욱, 1982 앞의 논문, pp.46~47.

즉, 우태는 ‘웃치’로 읽히며 연장자, 윗사람 등을 뜻하는데, 이는 족장적 성격을 지닌 자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語義상 兄과 통한다고 본 것이다.⁵⁷⁾ 이 견해는 우태의 어원에 주목하여 형과의 관계를 풀어낸 것이지만 계승관계로 볼 근거는 語義뿐이고, 왕이나 대가의 하위지배층으로 설정한 사자계 관등의 대응으로서 상위지배층인 형계 관등을 설정하려던 것이었다.

大兄을 大兄加로 기록한 『한원』 고려기를 근거로 하여 북위의 阿干 계통 관직군과 연결시키기도 한다.⁵⁸⁾ 阿干은 akan 내지 aka로 읽히는데, 모두 형, 연장자라는 뜻으로서 加는 그 音譯으로 보면서 신라에서 阿滄을 阿干으로도 쓰는 것을 방증사례로 들고 있다. 이에 따라 大兄加라는 표현은 음역과 의역이 혼재된 표기로 이해한다. 그러나 加가 兄이라는 뜻이라면 고구려의 지배세력인 諸加는 모두 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견해는 어원적 측면에서 보아도 兄系 관등의 이칭에 주목하지 않았다. 『한원』 고려기에 의 고구려 관등 이칭은 音借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형계 관등의 이칭 어미에는 ‘~支’가 붙어있어 aka 내지 akan과는 차이가 있다. 兄이 의역이라고 한다면 그 뜻은 ‘~인 사람(윗사람)’과 유사할 텐데, 북위의 ‘~眞’, 몽골의 ‘~赤’는 모두 ‘~인 사람’을 뜻할 때 붙는 접미어이다. 이들의 독음은 모두 ‘ci’로 읽히기 때문에, 兄의 접미사인 ‘~支’의 의미를 생각할 때 비교할 만한 사례가 된다.⁵⁹⁾

이에 최근에는 다시 우태를 형계 관등과 선후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후대의 자료들을 검토해보면 형계 관등의 이칭은 ‘~支’로 표기되는데, 우태의 독음으로서 ‘웃치’의 ‘치’와 서로 통하므로 계승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6세기 이

57) 김철준, 1990 앞의 책, pp.234~236.

58) 뒤신, 2009 「고구려 형계 관직의 내륙 아시아 연원」 『동북아 관계사의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59) 오히려 加가 aka 등으로 읽히면서 연장자, 지위가 높은 사람 등의 의미를 가진다는 지적은 兄이라는 관등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고구려 지배자 집단을 총칭하는 의미로서 諸加(大加, 小加)와 관련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후 자료에 등장하는 阜衣頭大兄 또한 『삼국지』에 보이는 조의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형계 관등이 우태 및 조의를 대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⁶⁰⁾

한편으로는 형계 관등이 후기의 중리직에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형계 관등을 비행정 담당 관직에 수여한 것으로, 사자계 관등을 행정 담당 관직에 수여한 것으로 구분해보기도 하였다.⁶¹⁾ 이는 초기 관제에서 사자가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고 조의선인이 근시를 담당했다는 논자의 시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는 두 직군이 일원화되었을 것이라 하고 있다.

먼저 우태가 형계 관등과 직접적 계승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보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여전히 어원적 근거 이외에는 별다른 관계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支’의 의미를 ‘~인 사람’으로 이해한다면 使者의 ‘者’에서도 찾을 수 있어, 우태와 형이 일대일로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그에 따라 우태와 형은 서로 연원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우태는 나부의 소멸과 함께 사라졌고, 형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보기도 한다.⁶²⁾ 그러면 형계 관등과 조의의 관계는 어떨까. 6세기 중엽 이후의 阜衣頭大兄를 통해 조의와 형의 관련성을 보여준다고 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조의두대형(위두대형)은 4~5세기부터 이어져 온 관등이라기보다는 6세기 중엽 후기 관제의 성립과정에서 등장한 관등이다. 현재의 자료로는 이 공백에 조의가 어떻게 형과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부 대사자 우수를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의 집단은 본래 패자나 우태를 받아왔음에도 소속부의 변화와 함께 대사자가 되었다. 이 사실은 고유명 5부의 지배층을 편제한 관등이 그 기능을 잃고 고구려왕의 아래에 새롭게 편제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패자가 소멸하고 대로가 등장했듯, 우태가 소멸한 이후 형계 관등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보아야 한다.⁶³⁾

60) 조영광, 2015 앞의 논문, pp.52~55.

61) 이동훈, 2019 앞의 책, pp.65~70.

62) 여호규, 2014 앞의 책, p.395. 단, 이 경우에도 우태를 대체한 것으로 형을 설정한 것이다.

초기 관제는 구체적 직무가 드러나지 않은 우태와 선인을 바탕으로 하여, 각 단위에서 군사와 행정을 담당하는 관등을 상위분화하여 구성하였다. 즉, 우태의 상위에는 패자(대로)와 주부가 있고, 선인의 상위에는 사자와 조의가 있었다. 그리고 중기 관제는 이 가운데 왕의 집권력을 뒷받침하는 대로, 주부, 사자, 선인을 존속시켰다고 하였다. 대로의 사례로 볼 때,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관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대체할 관등은 만들었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점에서 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于台, 先人과 통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兄, 于台, 先人은 모두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앞선) 사람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의미상 중기 관제의 형은 초기 관제의 우태와 선인을 대체할만한 관등으로 지목될 수 있다. 그런데 선인은 중기 관제에도 여전히 초기와 마찬가지로 최하위관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 종래의 견해대로 우태만이 남지만, 우태가 형과 일대일로 대체되지 않음은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이 문제는 초기 관제의 어떠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기 관제를 성립시켰는가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다. 고구려왕의 입장에서 초기 관제의 문제는 관원의 임명권을 왕이 독점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었다. 즉, 왕과 대가는 그들의 세력기반을 관리하기 위해 사자, 조의, 선인이라는 공통적인 관원조직을 自置했던 것이다. 비록 왕은 그 외에도 국가운영에 필요한 상위관을 둘 수 있었지만, 대가의 이와 같은 자치권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왕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자치권을 자신에게로 수렴하는 한편, 그러한 자치권을 지닌 대가마저도 왕이 직접 제어할 수 있어야 했을 것이다.⁶⁴⁾

그러기 위해 제도적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이 그들을 왕의 사자, 조의, 선인으로 삼는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앞서 보았듯 사자가 이미 2세기 후반부터 분화되어 계루

63) 다만 우수의 사례에서 볼 때 우태의 위상과 역할은 형과 사자(구체적으로는 대형과 대사자)가 나누었다고 생각된다.

64) 패자의 소멸 이유가 독자적 기반과 관원의 설치에 있었다고 본 견해도 이러한 맥락에 해당한다(조영광, 2015 앞의 논문, pp.49~50).

부 내의 지배층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고 하면, 사자와 비슷한 지위를 갖는 조의도 분화·확대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⁶⁵⁾ 그리고 방위명 5부만이 남은 시점을 계기로 기존의 조직을 일신하여 조의를 바탕으로 우태의 위상마저도 일부 계승한 ‘兄’이 등장한 것이 아닐까 한다. 형이 선인과 의미가 통하면서도 선인보다 상위관이고, 형이 분화한 관등 가운데 조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과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파악된다.

요컨대 대로와 주부, 형과 사자계 관등으로 구성된 중기 관제의 근간에는 왕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 지배체제의 의도가 담겨져 있으며, 그것은 중기 관제의 성립단계에서 왕 이하의 지배층을 모두 ‘왕의 사자, 조의, 선인化’하는데서 출발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에 고구려왕에 대응하는 존재로서 ‘奴客’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맺음말

65) 사실 이에 대한 단서가 엿보이는 것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등장하는 비류나 조의 양신과 연나 조의 명림답부이다. 행적으로 볼 때 대가에 의해 임명된 속관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왕으로부터 조의를 받았다고 여겨지지만 소속부를 달리하고 있는 점에서 계루부 내 왕의 조의와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이규호, 2022 앞의 논문, pp.66~67).

<참고문헌>

- 盧泰敦,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1 『충주고구려비』, 동북아역사재단
-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 이동훈, 2019 『고구려 중·후기 지배체제 연구』, 서경문화사
-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 장창은, 2014 「『忠州高句麗碑』 연구의 현 단계」 『고구려 남방진출사 연구』, 경인문화사
- 김광수, 1983 「고구려 고대 집권국가의 성립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김철준, 1990 「高句麗新羅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한국고대사학회연구』, 서울대출판부
- 노중국, 1979 「高句麗 國相考」上·下 『한국학보』16·17합집
- 노중국, 2003 「삼국의 관등제」 『강좌 한국고대사』2, 가락국사적개발원
- 뤼신, 2009 「고구려 형제 관직의 내륙 아시아 연원」 『동북아 관계사의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 서영대, 1981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 『한국문화』2
- 윤성용, 1997 「고구려 귀족회의의 성립과정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11
- 이규호, 2017 「고구려 對廬의 성격과 역할」 『사학연구』127
- 이규호, 2022 「고구려 초기 官制의 重層의 구조와 운영」, 『고구려발해연구』73
- 이정빈, 2020 「율령 반포와 관등제 정비」 『고구려 중기의 정치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 李鍾旭, 1982 「高句麗 初期의 地方統治制度」 『歷史學報』 94:95
- 이중욱, 1982 「고구려 초기의 중앙정부조직」 『동방학지』33

이준성, 2016 「고구려 초기 대가의 성격과 상위 관제의 爵的 운영」 『동북아역사논
총』53

이준성, 2020 「牟頭婁 墓誌의 판독과 역주 재검토」 『목간과문자』25

조영광, 2015 「고구려 초기 관등의 기원과 성격에 대하여」 『사학연구』119

최의광, 2004 「고구려의 ‘國人’ 연구」, 『사총』58

武田幸男, 1989 「高句麗官位制の史的展開」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고구려 중기 官制의 구조와 의미」 토론문

이준성(국사편찬위원회)

이규호 선생님은 지난 2021년 『高句麗 官制 研究』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 연구자입니다. 학위논문에서는 고구려 초기에서 후기까지의 관제 전반을 다루면서, 그것이 다원적이고 중층적인 구조에서 일원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을 살핀 바 있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기존에 주목하지 않던 사료상의 작은 단서들을 포착하고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꾸준하게 연구 성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학위논문의 3장(4~5세기 兄使者와 一元的 官制로의 전환)을 바탕으로 몇몇 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추가 서술한 것입니다. 『삼국지』 동이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략의 구조를 살필 수 있는 초기 관제, 『주서』·『수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후기 관제와 달리 중기 관제의 경우 서로 계통을 달리하는 여러 파편적 자료들 사이에서 대강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고구려 중기만을 대상으로 관제의 구조와 의미를 살피려는 발표자의 시도가 반갑습니다. 발표자의 노력이 중기 관제 연구의 공백을 메워주고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논증 과정에 의문이 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고구려 초기·중기의 국가구조와 정치체제에 대한 관점

29쪽 : “기왕의 고구려 관제는 중심 집단인 5부를 대상으로 형성된 것이었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31쪽 : “중기 관제는 초기의 그것을 일부 계승하면서도, 긴 시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변화하여 후기 관제의 성립에 기초를 마련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다.”

위에 제시한 문장을 보면 발표자는 고구려의 관제가 ‘한계를 지닌 초기 관제’ → ‘과도기적 성격의 중기 관제’를 거쳐 후기에 이르러 완성된 형태(?)의 관제를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고구려 중기를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이 ‘관제’의 형성과 변화라는 제도적 측면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고구려사 전반에 대한 발표자의 시각에 입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발표문에서는 고유명부에서 방위명부로의 전환 및 이에 연동하는 중앙귀족의 등장 등 기존 통설에 입각하여 관제의 변화를 살피고 있습니다만, 기존 연구에서 대체로 고구려 중기를 과도기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 및 보강이 이뤄진다면 발표자의 논지가 더 명확하게 전달되리라 판단합니다.

한편 그 동안의 고대사 연구가 고대국가형성론에 입각하여 왕권과 중앙집권력의 강화를 ‘발전’의 방향으로 바라보던 시각이 강하였다는 지적¹⁾을 다시 상기해본다면, 중기 관제를 ‘과도기적 성격’으로 도식화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본 발표의 목적이 고구려 중기 관제의 구조와 의미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관제는 결국 각 시기별로 그것을 수여하는 측과 수여받는 측의 관계 속에서 해명되어야 하는 것이고, 동일한 관제라 하더라도 시기마다 서로 다른 귀족세력들의 존재 양태에 따라 그 운용 방법과 성격이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정치 세력들 사이의 역학 관계 등에 좀 더 많은 고민이 포함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2. 추가 설명 및 논증을 요하는 사안들

1) 사자 관등 분화의 의미

35쪽 : “요컨대 사자 관등의 분화는 방위명 5부로 모여든 기존의 고유명 5부 지배층에 대한 새로운 지배질서의 확립이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고구려왕은 제가에게 ㉠ ‘왕의 사자’라는 의미의 대사자, 사자 등을 수여함으로써 집권력

1) 노태돈, 2008, 「고대사연구 100년 - 민족, 발전, 실증」 『한국고대사연구』52.

을 강화할 수 있었다. 사자 관등의 분화는 ㉠ 초기 관제에서 보였던 주부와 사자를 계승 발전한 것이었다.”

31~35쪽에 걸쳐서 2세기 말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대사자의 사례를 분석하며 그것을 방위부로 집결하는 지배층에 대한 편제 방안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논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사자’ 뿐 아니라 ‘사자’ 관등도 같은 목적으로 수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자 관등의 분화가 주부와 사자를 계승 발전한 것이라는 설명 역시 추가 논증이 필요합니다.(㉢) 초기 관제에서 주부와 사자는 통상 그 위상과 성격이 차이가 꽤 큰 것으로 파악되기에, 사자 관등의 분화가 양자를 계승 발전한 것이라는 설명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대로와 패자의 관계

37쪽 : 한편 패자는 소속부의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대로가 패자를 대체했다면 그의 권한도 대체했을 수 있는데, 나-2는 그와 관련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대로가 지닌 군사적 권한의 범주가 패자처럼 소속부에 한정되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고유명부에서 ‘패자’는 자신이 속한 부의 자치적 성격에 기반하여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방위부의 경우 보통 자치적 성격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로’가 ‘패자’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고유명부에서의 패자의 역할을 방위명부에서 대로가 그대로 수행하였을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생각합니다. 고유명부의 해체 과정에서 방위명부가 등장하는 것이고, 양자의 차이는 고구려의 국가 구조와 정치체제의 전반적인 변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패자와 대로의 위상은 서

로 같은 것일 수 없습니다. 양자 사이에 유사한 권한을 상정하고 ‘호환’되는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른 각각의 특성을 찾고 그것을 부각하는 것이 관제의 변화를 이해하고 시대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대주부-주부의 관계

48쪽 : 주부는 본래 3세기 중엽까지 상위관으로서 단독으로 존재하였다가, 3세기 말 이후 어느 무렵 승의 자리를 대체하고자 하위분화하여 대주부와 주부로 나뉘었을 가능성이 있다.

45~48쪽의 설명은 주부(=대주부)가 상위관으로 존재하다가, 3세기 말 이후 기존의 주부=대주부, 기존의 승=주부로 분화하였다는 논지입니다. 『충주고구려비』의 기사를 존중하고 해명하려는 시도이기는 하지만, 다른 추가 자료 없이 상위관인 ‘주부’가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위관인 ‘승’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추측으로 이어가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기타(논문 구성에 대한 의견)

1) 발표자는 서론에서 兄과 使者의 성격에 대한 기존 연구를 크게 두 계통으로 대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의견을 각각 제시한 후, “필자 역시 큰 이견이 없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경우 두 가지 연구 방향에 대해 각각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어느 쪽에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미리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2) 2장(중기 관제의 형성과 분화)과 3장(중기 관제의 쟁점과 의미) 구성이 다소 어색합니다. 3장이 본 발표의 핵심이라면 2장의 내용이 너무 장황하게 느껴지고, 2장의 내용이 핵심이라면 3장의 내용이 2장 안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방향으

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본 발표에서는 고구려 중기 관제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발표자의 참신한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쟁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존 통설과 다른 중기 관제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발표자의 결론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신라 왕경의 朝路

이동주(경북대 인문학술원)

- I. 머리말
- II. 관련 사료의 검토
- III. 조로의 실체
- IV. 조로의 후보지
- V. 맺음말

I. 머리말

왕경은 지방 촌락과는 달리 독특한 경관을 연출한다. 한 공간에 권위건축물이 집중되며, 국왕의 거소인 궁과 그 주변에 관부가 설치되어 권력행사를 뒷받침하게 된다. 즉 한 국가의 수도인 왕경은 국왕이 거주하고 있는 정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신라의 왕경은 천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한 곳에서 유지되었다. 이는 한 도시의 유구함으로 회자되지만 역으로 누적된 인공물로 인해 일률적인 공간재편을 어렵게 만든다. 지배세력은 지향하는 정치이념에 따라 공간을 재편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중대에 이르면 유교적 정치 지향에 따라 공간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 격자형의 도시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러한 도시구조는 직선화된 도로의 조영에서 비롯된다. 도로의 구획을 통해 가로망이 형성되며 그 내부는 坊이 된다. 坊의 내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였다.¹⁾ 가령 중국 장안성에는 坊이라는 행정구획 제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구획은 사방에 장벽을 쳐서 출입을 제한시키고, 인원을 통제할 목적을

1) 세오 다쓰히코·최재영 옮김, 2006, 『장안은 어떻게 세계의 수도가 되었나』, 황금가지, 127~128쪽.

된다. 자연스레 왕과 관료, 일반민 들은 거주 공간이 구분되었고, 격자망 도로에 의해 방법과 치안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실현될 수 있었다.

왕경에서 확인된 도로의 대부분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영 되었다. 이러한 고고학적 현상은 통일기에 이르러 왕경내 가로구획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었음을 시사한다. 아마 이 즈음 토지를 인공적으로 분할하여 대대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다. 그간 왕경의 도로와 관련해서는 속성분류에 주목한 느낌이 강하다. 각 연구자마다 분류기준과 분류안을 토대로 왕경 도로의 특성을 검출해 내었다. 왕경 내 도로를 너비에 따라 소로·중로·대로 등으로 구분하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²⁾ 다만 도로라 할지라도 조영 된 공간이나 규모에 따라 성격을 달리한다고 여겨진다. 예컨대 『周禮』 考工記에는 왕성내 동서남북을 달리는 도로의 너비는 9궤, 왕성 외부를 따라 도는 도로의 너비는 7궤, 성곽 밖의 간선도로의 너비는 5궤로 위계화하였다.³⁾ 『周禮正義』의 注疏에는 수레의 수용량에 따른 도로의 구분도 보인다. 즉 우마가 다닐만한 오솔길 정도를 徑, 수레가 다닐만한 사잇길을 畛, 乘車 한 대가 통행할 수 있는 途, 乘車 두 대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는 道, 乘車 세 대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는 路로 구분하고 있다.⁴⁾ 따라서 道路란 수레의 수용 규모에 따라 엄밀히 구분되는 용례라 하겠다.

도로는 조영 된 공간에 따라 위계를 달리했고, 특히 궁역 인근에 위치할 경우 권위의 구현을 위해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받게 된다. 궁에서 일직선으로 뻗은 도로는 국가 의례와 연동하므로 출입에 차별을 둠으로서 격차가 존재하였다. 본고는 이점에 주목하여 신라 왕경의 도로 가운데 가장 격이 높았을 조로에 주목해 보았다.

2) 신라 왕경의 도로 현황에 관해서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6, 「IV 신라 왕경의 도로 검토」 『신라 왕경의 도로』, 438~447쪽 참조.

3) 『周禮』 卷41, 冬官 考工記下; 經塗九軌, 環塗七軌, 野塗五軌.

4) 『周禮正義』 卷29, 凡治野, 夫間有途, 途上有徑; [十夫有溝, 溝上有畛; 百夫有洫, 洫上有塗; 千夫有澮, 澮上有道; 萬夫有川, 川上有路. 以達於畿 徑, 畛, 塗, 道, 路, 皆所以通車徒於國都也. 徑容牛馬, 畛容大車, 塗容乘車一軌, 道容二軌, 路容三軌. 都之野塗與環塗同. 可也]

여기서는 조로의 실체를 구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보았다. II장에서는 조로와 관련된 문헌 자료를 살펴보았다. 신라의 조로는 삼국사기에 1건 등장한다. 그런데 조로는 고려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이 유의된다. 조로를 그저 통행을 위한 도로로 보기에 주저되기 때문이다. 문헌에 보이는 조로를 바탕으로 III장에서는 조로의 실체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조로는 의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朝會, 朝官, 朝服 등 공통분모가 확인된다. 조로는 결국 궁의 입지와도 무관하지 않다. 마지막 IV장에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신라 왕경의 도로 가운데 조로의 후보지를 거론해 보았다. 신라에는 대궁인 본궁을 비롯하여 동궁, 남궁, 북궁 등 여러 궁이 존재하였다. 각 궁에는 왕경의 주요 시설들을 잇는 대로가 존재했던 것 같다. 조로가 왕경 내 가장 권위있는 도로라면 본궁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II. 관련 사료의 검토

동아시아 도성의 계획의 원리는 『周禮』 考工記에 크게 간섭받고 있다. 고공기는 도성의 대략적인 구조, 곧 왕성의 형태와 규모, 도로 개수와 너비, 왕궁을 중심으로 左廟右社, 前朝後市 등 주요 시설의 배치 규정이 있다. 아울러 성문의 루의 높이, 왕성의 문의 높이, 도로의 종류와 규격 등도 서술되어 있다.⁵⁾ 고공기에 규정된 천하의 성읍은 천자의 王城, 제후의 國都, 경·대부의 都로 3단계의 등급이 있다. 성의 높이가 높을수록, 도로 너비의 숫자가 높을수록 귀한 것이 된다. 고공기의 도로는 궁성이 중심이 되면서 자연스레 동서남북 사방에 축선이 생기는 구조이다. 이러한 축선은 후대에 궁성에서 뻗어나가는 주작대로라는 이미지를 구상할 때 많은 영감을 준 것 같다. 같은 도로라 할지라도 궁성에서 뻗어나갈 경우 다른 도로와는 차별되기 때문이다. 이

5) 『周禮』 卷41, 冬官 考工記下; 匠人營國, 方九里, 旁三門. 國中九經九緯, 經塗九軌. 左朝右社, 面朝後市, 市朝一夫. 王宮門阿之制五雉, 宮隅之制七雉, 城隅之制九雉, 經塗九軌, 環塗七軌, 野塗五軌. 門阿之制, 以爲都城之制, 宮隅之制, 以爲諸侯之城制, 環塗以爲諸侯經塗, 野塗以爲都之經塗.

길은 왕의 명령이 지방으로 하달되는 통로이자, 지방에서 진상되는 물품이 상납되는 통로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그렇다면 신라 왕경에 대입했을 때 이와 같은 길은 없었을까.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길이 바로 『三國史記』에 보이는 조로가 아닐까한다. 조로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은 『三國遺事』에도 일부 전하고 있다. 우선 아래를 보자.

A: 時有無名子, 欺謗時政, 構辭榜於朝路. 王命人搜索, 不能得. 或告王曰, “此必文人不得志者所爲. 殆是大耶州隱者巨仁耶.” 王命拘巨仁京獄, 將刑之.(『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眞聖王 2년)

사료 A는 진성여왕 2년(888)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시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로에 글을 걸었다. 이에 왕이 사람을 시켜 찾도록 했는데 잡지 못하였다고 한다. 어떤 자가 왕에게 고하길 “이는 필시 문인 가운데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한 자의 소행일 것입니다. 아마도 大耶州에 은거하고 있는 巨仁일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거인을 잡아 도성의 감옥에 가두게 하고 장차 처형하려 하였다. 『三國遺事』에 의하면 글의 내용은 “南無亡國 刹尼那帝 判尼判尼蘇判尼 于于三阿干 梟伊娑婆訶”의 다라니 문구였다. 풀이하면 “刹尼那帝는 여왕을 말하고 判尼判尼 蘇判尼는 두 소관을 말한 것이니, 소관은 官爵의 이름이요, 于于三阿干은 서너 명의 충신을 말한 것이며, 梟伊는 梟好를 말한 것이다.”⁶⁾고 한다. 『三國史記』에서는 조로에 글을 걸었다고 한 반면 『三國遺事』에서는 다라니 은어를 지어 길 위에 던져두었다고 하여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가 옥중 벽에 썼다는 시도 문헌 간 약간 다르다.

A-1: 于公慟哭三年旱, 鄒衍含悲五月霜, 今我幽愁還似古, 皇天無語但蒼蒼.(『三國史記』)

6) 『三國遺事』 卷2, 紀異2 진성여대왕 거타지

A-2: 燕丹泣血虹穿日, 鄒衍含悲夏落霜. 今我失途還似舊, 皇天何事不垂祥.(『三國遺事』)

사료 A-1의 경우 獄事에 능한 한나라 우공이 孝婦를 위해 변론했지만 그녀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이에 3년간 가뭄이 들자 그녀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고서야 비가 내렸다고 한다. 그리고 추연은 연 혜왕의 대신의 참소로 죄를 물어 감옥에 가두자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렸다는 고사이다. 한편 사료 A-2에서는 연나라 태자 단이 등장한다. 그는 자객 형가를 보내 시황제를 암살하려고 하였다. 결국 일이 실패로 돌아가지 피눈물을 흘렸다는 고사이다. 왜 옥사와는 무관한 연나라 태자 단이 등장하는지 알기는 어렵다. 다만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억울한 심정을 나타내려 했다는 점에서 소환되었는지 모르겠다. 왕거인의 옥사와 관련된 여러 갈래의 전승들이 민간에 전해지고 있었던 것 같다.

조로를 배경으로 일어난 일대 소동으로 대야주에 은거하고 있던 왕거인이 억울한 옥사에 휘말렸다. 왕거인이 글의 작자로 거론된 것은 그가 문인이었다는 점,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한 반정부적 인사라는 점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三國遺事』에 따르면 글은 다라니경을 발음을 흉내 내어 한자어로 작문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불교적 소양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왜 하필 조로에 글을 걸었을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의 활동 공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진평왕대 김후직은 간언으로 왕의 사냥을 만류하였지만 가납되지 않았다. 이에 아들들에게 자신의 유골을 대왕이 사냥하러 다니는 길의 옆에 묻으라고 유언하였다.⁷⁾ 김후직은 죽어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왕이 주로 다니는 사냥길을 택했던 것이다. 또한 효성왕 4년(740) 7월 隸橋에서 나온 붉은빛 옷을 입은 여인은 조정의 정치를 비방하면서 孝信公의 대문을 지나 홀연히 보이지 않았다⁸⁾고 한다. 후속해서 동 왕 4년 8월 파진찬 영종의 반란 기사가 이

7) 『三國史記』 卷45, 列傳5 金后稷

어진다. 아마 효신공은 영종의 반란 사건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 같다. 정치를 비방한 여인이 효신공택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성여왕대 조로에서 일어난 벽서 사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일까. 조로라는 공간을 중시하면 독자는 왕 혹은 奏對 자격이 있는 朝官이었을 것이다. 조로는 후대의 문헌인 『高麗史』에도 제법 확인된다. 조로의 성격을 가늠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일별 하면 다음과 같다.

B: 元宗元年二月, 御史臺榜曰, “叅上員衣冠不稱者, 僧人笠子不中者, 及賤隸騎馬朝路者, 一依前判, 禁之. 不從令者, 收付所司.”(『高麗史』 卷85, 志39 刑法2 禁令)

C: 十四年四月, 監察司榜曰, “國家, 連因旱乾, 禾穀不登, 無識之徒, 因祭松岳, 群飲山谷, 因緣失行者有之, 故法司已曾論請受判. 然禁防稍弛, 今復盛行. 且露衣簷笠, 兩班妻郊外之服, 今畜夫奴隸之妻, 亦皆着之, 尊卑無別. 自今, 一皆禁斷, 違者, 犯物沒官, 重論其罪. 僧徒及奴僕·雜類, 騎馬, 公行朝路, 無所畏忌, 或走馬, 踏殺行人. 自今, 攸司捕捉監禁, 犯人論罪, 送馬于典牧, 若本主不能教, 令奴隸犯禁者, 並與其主, 論罪.”(『高麗史』 卷85, 志39 刑法2 禁令)

D: [前略]今雞鳴不鼓趨, 得非知時者非其人, 隳官曠職之罰乎? 獸之怪, 虎入宮者一, 豹入城者一, 犢有兩頭者一. 虎豹, 山野之惡獸也, 今見于宮中與朝路, 得非將爲惡獸之所窟穴乎?[後略](『高麗史』 卷101, 列傳14 諸臣 權敬中)

E: 蔡松年, 東州平康縣人. 以御殿行首, 拜郎將, 久不改銜. 崔忠獻問其故, 不答, 旁有人曰, “其父今未拜叅, 若改銜出朝路, 恐乃父望見, 不知其子而下馬避走耳.” 忠獻義之, 尋拜父叅職.[後略](『高麗史』 卷102, 列傳15 諸臣 蔡松年)

8) 『三國史記』 第9, 新羅本紀9 孝成王 4年 秋七月, 有一緋衣女人, 自隸橋下出, 誘朝政, 過孝信公門, 忽不見.

F: 十四年七月, 教曰, “差使別監行李次, 庶子以下, 下馬祇送, 已有成規, 諸衙門官, 與差使別監, 違禮頡頏者有矣. 自今, 以違命論, 又各衙門常坐員, 上下爭禮, 以至公事遲緩者有之, 自今禁之. 又參上員, 朝路步行, 并論罪.”(『高麗史』 卷48, 志38 刑法1 職制)

우선 사료 B는 元宗 원년(1260) 2월 御史臺에서 榜을 붙여 관원의 의관과 승려의 샷갓을 규정에 맞게 쓰도록 하고 있다. 참서관으로 의관에 적합하지 않거나, 승려로서 샷갓을 규정에 맞지 않게 쓴 자, 천한 백성이나 노비가 조로에서 말을 탄 자는 한결 같이 이전에 내린 劄에 의거하여 금지하도록 하였다. 조로를 그저 ‘관원이 다니는 길’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관원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닐 수 있도록 허용된 길은 아니었다. 어사대의 방은 상하질서를 엄격히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조로는 권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료 C는 忠烈王 14년(1288) 4월 監察司에서 榜 역시 기우제 때의 음주와 露衣·簷笠 착용 등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즉 노의와 침립은 양반의 아내가 교외에서 입는 옷임에도 농부와 노비의 아내까지 이를 입으니 존귀와 천함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僧徒 및 奴僕과 雜類들이 말을 타고 공공연하게 朝路를 다니며 무서워하고 거리끼는 바가 없고, 때로는 말을 달리다가 행인을 밟아 죽이기까지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유사는 범인을 체포하여 죄를 논하고 말은 典牧司로 보낼 것이며, 노예가 금지령을 어길 경우 주인도 함께 죄를 논한다는 것이다.

사료 D는 권경중 열전에 나오는 조로이다. 그가 『明宗實錄』 편찬에 참여하면서 4년 동안 하늘, 사물, 물, 새, 짐승 등 여러 災異를 기록한 議論을 올린다. 그 가운데 길짐승의 변괴로 범이 궁궐에 들어온 것, 표범이 도성에 들어온 것, 머리 둘 달린 송아지가 태어난 것 등을 거론하였다. 그리고 범과 표범은 산야에 사는 포악한 짐승인데 궁중과 조로에 들어온 것은 조정이 포악한 짐승들의 소굴로 변할 징조로 거론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궁중과 조로에 들어온 들짐승으로 인해 조정 자체가 짐승

의 소굴로 변한다는 인식이다. 그렇다면 조로가 궁과 조용하는 권위성을 추출할 수 있다.

사료 E는 채송년 열전에 나오는 조로이다. 그는 낭장으로 제배되었지만 오랫동안 관함을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 부친이 參職으로 제배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가 관함을 바꾼다면 조로에서 자기 아들인 줄 모르고 下馬하였다가 피해 달아날 것을 우려해서 라고 하였다. 조로는 기본적으로 말을 타고 가다가 상급자를 만나게 되면 말에서 내려 피하는 것이 상례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료 F는 恭愍王 14년(1365) 7월 教書에서 차사별감에 대한 예우와 각 아문 관원의 근무 태도 등을 지적하면서 각 아문에 상주하는 관원이 상하가 예를 다투다가 公事가 지연됨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참상원이 조로에 걸어 다니는 것도 논죄함을 지시하고 있다. 이 사례로 인해 조로는 관원이라 할지라도 아무나 다닐 수 없었던 길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문헌에 보이는 조로는 신분이 비천한 자는 다닐 수 없으며 관원이라 할지라도 다닐 수 있는 관원이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B와 사료 C의 사례처럼 관사에서 방을 붙여 조로 통행을 금지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느낌이다. 특히 사료 C의 경우처럼 신분이 비천한 자가 말을 타면서 사람을 치어 죽이는 사례까지 보인다. 여러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조로로 다녔던 것은 騎馬하기에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는 조로가 넓은 너비에 직선화된 길이었음을 시사한다. 정리하자면 문헌에 보이는 조로는 관원이라도 모두가 통행할 수 없었고, 권위가 있는 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로의 성격을 유념하면서 다음 장에서는 왕경에서 조로의 실체에 대해 논해 보기로 한다.

Ⅲ. 조로의 실체

신라 왕경 도로의 일반적인 특징은 직선으로 구획하여 노면은 밤자갈을 깔고 황갈

색 점질토와 사실토를 섞어 평탄하게 다졌다. 그리고 대부분 배수구를 만들었다. 시대가 내려오면서 건물의 침범으로 인해 노면의 너비가 좁아진다. 논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너비에 따라 편의상 대로(15m 이상), 중로(10m 내외), 소로(5m 내외)로 구분하고 있다.⁹⁾ 여러 규격의 도로는 수레의 수용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너비에 비례해서 통행량이나 중요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왕경 대로에는 수레바퀴 흔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궤폭이 1~2m 내외이다.¹⁰⁾ 한 연구에 따르면 귀족 등이 타던 소형수레는 궤폭이 0.7~1.1m, 상업적, 군사적 수송과 관련된 수레는 1.6~2m라고 한다.¹¹⁾

고려의 경우 도성 내 도로와 관련된 규정은 확인되지 않지만, 지방도로는 대, 중, 소로로 구분하고 있다.¹²⁾ 고고학 자료를 통해 드러난 도로의 너비는 대로는 550cm 이상, 중로는 350~550cm, 소로는 350cm 이하로 추정된다. 수레의 궤폭은 150cm 내외인 것이 빈도수가 가장 높다.¹³⁾ 그러므로 범박하게 대로는 수레 4대 남짓, 중로는 2~3대, 소로는 2대 정도가 교통 할 정도의 너비가 된다. 조선의 경우 법전에 도로의 너비가 규정되어 있다. 도성 내 大路는 너비가 56尺, 中路는 16尺, 小路는 11尺으로 구분하였고, 배수구는 양 측면에 조영하며 너비는 각 2척이었다.¹⁴⁾

앞서 언급한 『주례』 고공기에서는 도로 너비의 숫자가 높을수록 귀한 것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대로 이상이 朝路였을 것이다. 조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닌 권위와 관련 있다. 그렇다면 조로는 朝會, 朝官, 朝服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관인들의 평

9) 박방룡, 2013, 「4장 도성의 구조」 『신라도성』, 학연문화사, 269쪽.

1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6, 『신라 왕경의 도로』, 446쪽.

11) 장용석, 2006, 「신라 도로의 구조와 성격」 『영남고고학』 38.

12)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전제; 공해전시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전제; 조세

『高麗史』 卷82, 志36 兵2 참여

13) 이용욱, 2022, 「고려~조선시대의 도로 및 수레연구」 『한국상고사학보』 116.

14) 『經國大典』 卷6, 工典, 橋路; 都城內 道路, 大路廣五十六尺, 中路十六尺, 小路十一尺, 兩旁溝廣各二尺. 用營造尺.

상 근무복인 관복은 국가의례시 朝服으로 환복 한다. 조복을 입을 자격은 朝官으로 한정되며, 관품이 낮더라도 국왕과 奏對할 朝會의 참석 자격을 갖는다. 따라서 朝路는 朝服을 입은 朝官이 朝會에 참석하기 위해 다니는 전용도로가 아닌가 한다. 참고로 중국 측 문헌에 전하는 신라의 朝服은 흰색이었다고 한다.¹⁵⁾

조로는 국가의 공식행사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왕궁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인 셈이다. 물론 조정의 관원들의 전용 도로와는 달리 하급관리나 궁녀, 혹은 지방관들의 길도 있었던 것 같다. 무주의 安吉이 上守吏로 상경하여 車得公을 찾을 때의 일이다. 노인이 궁성 서쪽의 귀정문으로 가서 출입하는 궁녀를 기다려 사실을 말하라고 일러 주었다.¹⁶⁾ 이는 지방관 신분인 안길이가 거득공의 거취를 묻기 위해 궁녀 전용의 통로로 갈 필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럴 경우 월성의 서문은 궁녀와 같은 궁인 및 하급 관인층들의 주된 출입로가 아닌가 한다.¹⁷⁾ 그렇다면 서문과 연결된 도로는 朝路보다는 격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신라에서 조로는 어떻게 활용되었을까. 이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김춘추이다. 그는 진덕여왕 2년(648) 아들 문왕과 함께 당에 조공하였다. 당의 국학에서 석전 참관을 요청하였고, 강론 참관을 청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숙위 시키고 章服을 고쳐 중국 제도를 따르고자 청하였다.¹⁸⁾ 이듬해(649) 정월 신라는 중국의 의관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¹⁹⁾ 『日本書紀』를 보면 진덕여왕 5년(651) 신라의 朝貢使 沙滄 知萬이 唐服을 입고 築紫에 정박하였다고 한다. 일본 조정에서는 마음대로 복장을 바꾼 것을 불쾌히 여겨 책망하여 쫓아 보냈다.²⁰⁾ 일본은 이 일을 두고 신라

15) 『舊唐書』 卷199, 列傳149 上 東夷 新羅; 其風俗·刑法·衣服, 與高麗·百濟略同, 而朝服尙白.

16) 『三國遺事』 卷2, 紀異, 文虎王法敏條

17) 이경섭, 2013, 「新羅 月城垓子 木簡의 출토상황으로 본 月城 周邊의 景觀 변화」, 『신라 목간의 세계』, 景仁文化社, 62~63쪽.

18)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二年; 春秋又請改其章服, 以從中華制, 於是, 內出珍服, 賜春秋及其從者.

19)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三年; 春正月, 始服中朝衣冠.

정벌 계획을 세울 정도로 충격에 빠졌던 것 같다. 이 사례를 통해 당시 신라 사회에 휩쓴 唐風의 유행 속도가 짐작된다.

한편 진덕왕 5년(651) 朝元殿에서 거행된 하정례²¹⁾도 주목된다. 물론 『隋書』에도 신라 고유의 정월 하례가 있었음이 전한다. 『隋書』의 정월 하례는 왕이 연회를 베풀고 군신을 위로하며, 그날 일월신에게 제를 올린다²²⁾는 점에서 농경의례적인 성격이 강하다. 651년 처음으로 시작된 하정례는 중국력에 따른 정월 초하루의 기원의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한다. 650년부터 당의 연호 永徽를 사용함으로써²³⁾ 중국의 시간질서 속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진덕왕 2년(648) 한질허가 당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당태종이 신라가 사사로이 연호를 칭하는 것을 질책하자 천자의 조정에서 正朔을 반포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대었다. 그래서 범흥왕 이래 사사로이 기년을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²⁴⁾ 역법의 공포는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조치였다. 외국이 역법을 수용하는 것은 황제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즉 역법의 제정은 통치자와 조정의 전유물이기 때문이다.²⁵⁾

한편 동 왕 4년 진골로서 관직에 있는 사람은 牙笏을 들게 했다.²⁶⁾ 아마 중국의 황제에 준해서 정비되었을 것이다. 『三國史記』 色服志에 따르면 아홉의 사용범위는

20) 『日本書紀』 卷25, 孝德天皇 白雉 二年; 是歲, 新羅貢調使知萬沙浪等, 着唐國服, 泊于筑紫. 朝廷, 惡恣移俗, 訶嘖追還

21)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五年, 春正月朔, 王御朝元殿, 受百官正賀. 賀正之禮始於此.

22) 『隋書』 卷81 東夷列傳46 新羅; 每正月元旦相賀 王設宴會 班賚羣官 其日拜日月神

23)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四年; 是歲, 始行中國永徽年號.

24)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二年; 冬, 使邯軼許朝唐. 太宗勅御史問, “新羅臣事大朝, 何以別稱年號.” 軼許言, “曾是天朝未頒正朔, 是故先祖法興王以來, 私有紀年. 若太朝有命, 小國又何敢焉.” 太宗然之.

25) 하워드 J. 웨슬러 지음·임대희 옮김, 2005, 「제11장 역법의 공포」 『비단갈고 주옥같은 정치』, 고즈윈, 447쪽.

26)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四年; 夏四月, 下教, 以眞骨在位者, 執牙笏.

태대각간에서부터 급찬까지였다.²⁷⁾ 홑은 관복을 입을 때 허리띠에 꽂거나, 국가의 공식행사에 입는 朝服이나, 祭服을 착용할 때는 손에 쥐는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다. 홑을 쥐었다는 사실은 朝會에 참석 자격을 얻었다는 의미이며, 이는 왕과 대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원전에서 베풀어진 하정례는 정기적으로 왕과 대면하는 의례의 시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문헌에서 확인되는 조원전은 아래와 같다.

G: 五年, 春正月朔, 王御朝元殿, 受百官正賀.(『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五年)

H: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二日並現挾旬不滅. 日官奏請, “緣僧作散花功德則可攘.”於 是潔壇於朝元殿駕幸青陽樓望緣僧. 時有月明師行于阡陌時之南路, 王使召之命開壇作啓. (『三國遺事』 卷5, 感通7 月明師兜率歌)

I: 七年, 春三月, 日本國使至, 引見朝元殿.(『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哀莊王 7년)

J: 秋八月, 重修朝元殿.(『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景文王 8年)

K: 八月, 日本國使至, 王引見於朝元殿.(『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憲康王 4年)

조원전은 진덕여왕 5년에 처음 확인된다(사료 G). 왕이 조원전에서 신년하례식을 거행한 것이다. 이는 조원전이 정전이었음을 시사한다. 경덕왕대에 이르러 해의 괴변이 발생하였을 때도 조원전에 단을 깨끗이 만들고 인연 있는 승려를 기다렸다. 이에

27) 『三國史記』 卷33 雜志2 色服; 法興王制, 自太大角干至大阿滄紫衣, 阿滄至級滄緋衣並牙笏.

월명사가 계문을 지어 괴변을 사라지게 만들었다(사료 H). 하늘의 이상을 없애고자 정전에 단을 만든 셈이다. 조원전에서는 일본국의 사신을 맞이하거나(사료 I, K), 시간이 지나 중수공사를 하기도 하였다(사료 J). 진덕여왕대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조원전에서는 災異 퇴치의식, 하정례, 외교사절 접견 등이 이루어졌다.

당에서는 대명궁의 함원전에서 정월 초하루의 의례가 거행되었다. 신라 역시 함원전을 의식하고 조원전이라 명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후대의 일이지만 후량의 後梁의 肅元殿이나 劉宋의 乾元殿은 중조의 정전이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朝元殿으로 개칭하였다. 조원전에서는 공통적으로 외교사절 접견, 황태자 책봉 등 국가 의례가 거행되었다. 다만 당의 경우 신년하례를 함원전 이외에도 태극전에서도 거행한 바 있다. 당의 태극전이 중조의 정전이라는 점에서 신라가 이를 모방하면서도 남당의 기능을 계승하여 조원전을 조영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²⁸⁾

신라의 조원전은 중조의 정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여겨진다. 공교롭게도 650년 정월 조원전의 하정례가 거행되기 직전인 649년 정월에 중조의관을 착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조원전은 신하가 국왕에게 신년을 하례하는 공간이며, 외국 사신의 접견 공간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국왕 중심의 공간이 된다. 조원전에서 이루어진 조회의 정례화는 장소의 제한, 혹은 고정된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전각의 명칭은 그 건물에 내포한 상징성과 연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원전은 신라 왕경에서 내에서도 권위가 집중된 場이라 하겠다. 따라서 조로는 국가의례의 중심인 조원전으로 진입하기 위한 왕경의 중심도로로 판단된다.

이때 조회 참석을 주관한 관청으로 시야에 넣을 수 있는 것이 태종무열왕 4년(654)에 설치된 대일입전이다.²⁹⁾ 대일입전은 의례를 담당할 관청으로 조회와 같은 일상적 모임의 출입자 명단 보고와 확인, 출입과 인도 등의 업무를 담당했을 것이다.³⁰⁾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도로가 조로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

28) 여호규, 2014, 「6~8세기 신라 왕궁의 구조와 정부·의례 공간의 변화」 『역사와 현실』 94, 57~58쪽.

29) 『三國史記』 卷38, 雜志7 職官上; 大日任典, 太宗王四年置.

기로 하자.

IV. 조로의 후보지

7세기 후반이 되면 왕경 전역에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루어진다. 기존의 도로가 폐기되거나 전대의 건축물을 없애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선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왕경의 경관을 새롭게 재편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였을 것이다. 현재까지 발굴성과만 놓고 보면 왕경의 도로에서는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다시 말해 소형과 중형의 도로는 왕경의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지만 대형 도로는 월성, 황룡사지, 전랑지를 중심으로 한 인왕동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³¹⁾ 신라시대 이 지역은 관청과 궁이 밀집한 곳이었으므로 도로의 설계에도 인간의 통행량, 통행수단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최근 도로 유구를 중심으로 신라도성제를 파악한 한 연구에 의하면 도로의 규모, 축조방식, 배수시설의 구조, 도로의 배치양상과 방향 등을 감안하여 분류를 진행하였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가늠할 수 74개 유적 105기에 달하는 도로를 분석한 결과 너비를 알 수 있는 유구는 대략 28기라고 한다. 이를 종합하여 5m 내외 및 이하를 소형도로, 6m 이상 12m 이하를 중형도로, 13m 초과하는 것을 대형도로로 구분하였다. 인왕동 일대 집중된 대형도로의 존재를 월성 주변의 확장 결과로 보고 있다.³²⁾

신라 왕경에서 비교적 넓은 너비의 도로는 경주박물관 미술관부지 내 유적에서 확인된 남북도로로서 23.7m에 달한다. 이어 경주박물관 남측부지 내 유적에서 확인된 남북도로 역시 너비 19.8m이다. 이 두 도로는 서로 연결되어 월성 동측을 지나 동궁

30) 한영화, 2022, 「신라의 왕경 관련 행정조직과 운영-6부소감전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108, 199쪽.

31) 성소현, 2013, 「신라 왕경의 구조와 공간 활용」 부산대학교 대학원 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32) 공미르한, 2022, 「경주지역 출토 도로 유구를 중심으로 본 신라도성제」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고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49~50쪽.

과 월지 A지구 26호 건물지와 황룡사 서사지 사이를 관통한다. 경주박물관 일대가 남궁이 위치했을 것이므로 이 도로는 남궁을 경유하여 황룡사 서측을 관통하는 셈이다. 한편 동궁의 정문은 황룡사 남측 광장 방향으로 개방된다. 동서도로는 황룡사와 동궁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이다. 이 도로는 원래 경주공고(홍륜사지)와 황룡사와 연결되는 동일한 축선상에 있었다. 그러다가 7세기 후반 무렵 동궁과 월지 1호 건물을 조영하기 위해 폐기되었다.

최근 발천유적에서 확인된 남북도로도 주목된다. 석교지 북쪽으로 너비 20m에 달하는 남북도로는 월성의 대척점에 위치한 전랑지의 서쪽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³³⁾ 이 도로는 11.2m의 석교를 지나 월성의 북문으로 연결된다. 월성의 북문과 관련하여 신문왕의 혼례 기사를 보자.

L: 納一吉滄金欽運少女爲夫人, 先差伊滄文穎波珍滄三光定期, 以大阿滄智常納采. 幣帛十五輦, 米·酒·油·蜜·醬·豉·脯·醢 一百三十五輦, 租一百五十車.(『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神文王 3年 2月)

M: 五月七日, 遣伊滄文穎·愷元抵其宅, 冊爲夫人. 其日卯時, 遣波珍滄大常·孫文·阿滄坐耶·吉叔等, 各與妻娘及梁·沙梁二部嫗各三十人, 迎來. 夫人乘車, 左右侍從·官人及娘嫗甚盛. 至王宮北門, 下車入內.(『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神文王 3年 5月)

사료 L은 신문왕이 김흠운의 작은 딸과 혼인하는 과정을 전하고 있다. 혼례에 앞서 683년 2월 먼저 이찬 문영과 파진찬 삼광을 보내 날짜를 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대아찬 지성은 신부 덕으로 납채 하였는데 예물의 규모가 비단이 15 수레, 떡거리가 135 수레, 벼가 150 수레에 달했다. 이때 운반수단으로써 輦과 車가 확인된다. 폐백과 떡거리를 실은 輦은 어깨에 끈을 두르고 손으로 잡는 가마이며, 벼를 실은 車는 짐승이

33) 이민형, 2021, 「경주 동부사적지대 발천 유적 조사성과」 『撥川 신라왕경의 옛 물길』, 74쪽.

끄는 수레였다. 그렇다면 예물을 옮기는 인원만 최소 폐백 30명, 먹거리 270명, 벼 수레 150명이 동원되었다. 아마 내성 산하의 物藏典에서 예물을 모은 후³⁴⁾ 김흠운의 집으로 옮겨졌을 것이다.³⁵⁾

한편 사료 M은 납채 한 후 683년 5월 7일, 신문왕이 김흠운의 딸을 부인으로 책봉하고 친영할 때의 일이다. 문영과 개원을 그 집에 보내 그녀를 부인으로 책봉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묘시, 곧 오전 5~7시 무렵에 여러 관인과 양부와 사랑부의 여성으로 구성된 인원들이 수레의 좌우를 시종하여 왕궁으로 이동한다. 관인과 여인들이 매우 많았다(甚盛)는 점에서 성대한 행렬이었던 것 같다. 납채는 담당 관원, 음식물 순의 행렬이 확인되며, 친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담당 관원, 좌우시종, 관원, 부인 등의 행렬이 확인된다. 수많은 사람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행사의 동선이 중요하며, 이 경우 이동하는 인원을 통제하는 관원이 배치되었을 것이다. 이때 시야에 넣을 수 있는 관부가 바로 내성 산하의 引道典³⁶⁾이 아닐까 한다.³⁷⁾

우마의 동원과 관련해서는 문무왕 9년(669) 馬法 174곳을 재분배한 기사가 유의된다.³⁸⁾ 재분배 시 所內 곧 왕실이 22개소, 행정관청이 10개소, 군공 귀족에게 174개소

34) 『三國史記』 卷39, 雜志8 職官中; 物藏典, 大舍四人, 史二人.

35) 물자와 관련하여 월지 183호 목간과 196호 목간이 유의된다. 183호 목간은 [앞면]·「√□天?□□□□□月廿一日上北廂」, [뒷면]·「√猪水助史第一行竈一入」, [우측면]·「√五十五□□丙番」((139)×15×9)으로 삼면에 묵서되어 있다. 한편 196호 목간은 「√南瓮汲上汁十三斗」(182×19×12)으로 판독된다. 이 목간들은 창고내 물자의 구체적인 위치를 적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간의 판독은 橋本繁, 2020, 「월지(안압지) 출토 목간의 연구 동향 및 내용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00, 한국고대사학회.

36) 『三國史記』 卷39, 雜志8 職官中; 引道典, 景德王改爲禮成典, 後復故. 上引道二人, 位引道三人, 官引道四人.

37) 한영화는 이를 왕의 이동이나 행차와 관련된 관사로 파악한 후, 신문왕의 혼례를 대일임전에서 관할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한영화, 2022, 앞의 논문, 199~200쪽. 다만 혼례는 지극히 왕실과 관련있음을 유념한다면 중앙관청인 대일임전은 국가의례에 한정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한다.

38)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9년; 頒馬法, 凡一百七十四所. 屬所內二十二, 官十,

가 분배되었다. 관청의 경우 중앙관부인 乘府, 왕실은 供奉乘師나 苜蓿典이 관할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행렬에는 供奉乘師나 苜蓿典이 감독하던 수레가 동원되었을 것이다. 수레가 왕궁의 북문에 이르렀고 그녀는 수레에 내려 안으로 들어간다. 신라 귀족의 딸은 왕비가 되기 이전에 부인이 되는 절차를 거쳤다. 묘시에 친영이 이루어졌으므로 부인 책봉은 그 이전 시간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진골귀족의 여인은 왕실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절차가 있었음이 짐작된다. 그리고 왕비를 태운 수레가 왕궁의 북문에 이르렀다는 점은 이 문이 궁의 정문이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발천 석교지 인근에서 확인된 적어도 3×4칸 이상의 전후퇴칸 건물지, 인근의 우물, 전 깔린 배수로, 석조시설 등도 유의된다. 전후퇴칸 건물의 경우 제의시설과 관련되기 때문이다.³⁹⁾ 궁을 聖域으로 본다면 출입하기 전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정화의식을 상정할 수 있을 듯하다.

신문왕의 혼례에 관한 사실은 조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우선 납채한 예물들을 운반했을 긴 수레 행렬, 역으로 부인으로 책봉된 김흠운의 딸이 왕궁으로 이동한 길은 왕궁에서 뺏어나간 도로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하대 혼례의 납채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신문왕의 혼례가 특기된 이유는 유교식 진풍경이라는 점이 크게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성덕왕 33년(734) 봄 정월조에 백관들에게 교시를 내려, 직접 북문으로 들어와 직접 奏對하게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이점 월성의 북문이 백관들이 왕과 奏對하기 위해 출입하는 중요한 창구였음을 시사한다. 최근 경북대학교 성덕왕대의 이 하교기사를 재해석한 견해가 있다. 즉 친히 북문으로 들어와 奏對하라는 지시는 곧 신하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왕의 길이었다는 것이다.⁴⁰⁾ 다만 이 기사는 신

賜庾信太角干六, 仁問太角干五, 角干七人各三, 供滄五人各二, 蘇判四人各二, 波珍滄六人·大阿滄十二人各一, 以下七十四所, 隨宜賜之.

39) 이현태, 2021, 「7세기 후반 월성 외곽의 공간적 재편과 그 의미」 『신라문화』 59, 24~27쪽.

40) 윤선태, 2019, 「역사 속의 월성」, 『한성에서 만나는 신라 월성』, 한성백제박물관.

하의 소리를 들겠다는 유교적 정치 퍼포먼스의 연장선에 있다고 여겨진다. 즉 모든 관료, 즉 백관의 소리를 모두 아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한다. 주대하는 신하의 폭을 확대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북문은 중대뿐 아니라 하대에도 여전히 월성의 정문으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발천 유적에서 확인된 20m에 이르는 남북도로로 되돌아가보자. 이 도로는 전랑지의 서쪽으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殿廊址는 7세기 후반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7년 齊藤忠에 의해 발굴되었다. 발굴 당시 동서 180m, 남북 100m 규모의 長廊이 노출되었다. 이런 연유로 전랑지로 명명된 것이다. 유구는 殿堂址 6기, 長廊址 6기, 門址 2기, 담장지 3기 등이 확인되었다.⁴¹⁾ 이후 1993년에 도로 건설에 따른 추가 발굴조사가 결과 서쪽으로 동서 45m, 남북 130m 규모의 건물지 6기, 담장지 2기가 더 확인되었다.⁴²⁾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지 ‘나’는 잔존 규모만 남북길이 75.4m(24칸), 동서너비 15.3m(3칸), 면적 1,154㎡에 달하는 대형건물이다. 내부에는 礎石積心群과 동서를 가로지르는 배수로, 기단부에는 地臺石이 있었다. 지대석은 원래 面石, 甲石이 갖추어진 架構式基壇이었음이 밝혀졌다.⁴³⁾ 이러한 기단은 일반 거주용의 건축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전랑지는 국가 권력이 개입하여 세워진 건물이 된다. 특히 왕궁인 월성과 대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물의 격 역시 이에 버금간다. 이와 관련하여 『三國遺事』 혜공왕 3년 北宮庭에 떨어진 별뿔별 기사가 유의된다. 庭은 곧 뜰을 의미하며 같은 기사가 『三國史記』에는 王庭으로 나온다.⁴⁴⁾ 北宮庭은 곧 王庭과 대응한다. 국왕이 거주하던 공간은 본궁이었던 것 같다. 본궁을 기준으로 방위상 동궁, 남궁, 북궁의 명칭이 부여된 셈이다. 통일 이후 월성 인근에는 각종 관부의 대대적인 신설과 확충에 따른 공간 확대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

41) 齊藤忠, 1973, 「新羅の王京跡」, 『新羅文化論攷』, 吉川弘文館.

42)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5, 『殿廊址·南古壘 發掘調査報告書』

4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5, 위의 보고서.

44) 『三國遺事』 卷2, 紀異2 惠恭王; 是年七月北宮庭中先有 二星墜地又一星墜, 三星皆没入地.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9 惠恭王 3年 7月; 三星隕王庭相擊, 其光如火迸散.

때 궁도 확충되었을 것인데 한정된 공간으로 別宮이나 離宮의 형태로 조영 되었던 것 같다. 동궁의 경우 황룡사로 진입하는 동서도로를 폐기한 후 공간을 확보하였고, 남궁은 월성에 인접해서 덧대어 조영하였다. 북궁은 전랑지로 추정된다. 전랑지는 왕궁으로 추정된 이래,⁴⁵⁾ 통일기 정궁이거나 북궁,⁴⁶⁾ 新宮,⁴⁷⁾ 壤宮,⁴⁸⁾ 북궁,⁴⁹⁾ 신궁과 명당,⁵⁰⁾ 영창궁,⁵¹⁾ 만월성,⁵²⁾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 상황이다. 본궁을 중심으로 방향에 따라 조영된 만큼 각기 용도나 성격에도 차이가 났을 것이다. 예컨대 태후나 왕자, 공주의 거처로서 기능했을 경우 대궁에서 분리되어 某宮으로 불리었을 가능성이 있다.⁵³⁾ 무열왕의 과공주가 瑤石宮에 살았던 사례,⁵⁴⁾ 경덕왕이 즉위한 후 대궁에 살다가 바깥인 永明新宮으로 옮기게 된 혜명왕후의 사례,⁵⁵⁾ 공주시절 북궁에 살다 양위 후 그곳에서 死去한 北宮長公主 진성여왕의 사례⁵⁶⁾ 등이 참고된다. 북궁인 전랑지에서 월성의 정문인 북문은 거의 직선으로 연결된다. 왕경의 외연에는 궁으로 진입하기 위한 사방의 큰길(大道)이 있었다. 신라는 雜祀로 東道の 古里, 南道の 簷并樹, 西道の 渚樹, 北道の 活併岐에서 큰길에 대한 제사를 올렸다.⁵⁷⁾ 아마 이 제장들은 당시

45) 齊藤忠, 1973, 「新羅の王京跡」, 『新羅文化論攷』, 吉川弘文館

46) 尹武柄, 1987, 「新羅 王京의 坊制」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韓國史學論叢』, 知識産業社

47) 田中俊明, 1988, 『韓國の古代遺蹟』, 中央公論新社.

48) 오영훈, 1992, 「신라 왕경에 대한 고찰」 『경주사학』 11

49) 文暉鉉, 1995, 「新羅王京攷」 『新羅王京研究』(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16); 주보돈, 2020, 「신라 궁성의 형성과 변화」 『신라 왕경의 이해』, 주류성.

50) 金昌鎬, 1995, 「古新羅 都城制 문제」 『新羅王京研究』(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16)

51) 전덕재, 2009, 『신라 왕경의 역사』, 새문사.

52) 이근직, 2013, 『천년의 왕도, 천년의 기억』, 학연문화사.

53) 주보돈, 2020, 위의 책, 98쪽.

54) 『三國遺事』 卷4, 義解5 元曉不羈

55)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9 景德王 7年; 秋八月, 太后移居永明新宮.

56) 崔致遠撰, 「上宰國戚大臣等奉爲獻康大王結華嚴經社願文」

57) 『三國遺事』 卷32, 잡지1 祭祀 四大道祭.

시가지의 가장자리, 곧 성속의 경계점에 위치하였을 것이다. 아마 왕경 내로 사악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제사였을 것이다.

왕경의 가장자리에는 전불칠처가람의 인연이 있는 사찰들이 있었다. 그중 흥륜사(서북), 황룡사(동북), 영묘사(서남), 사천왕사(동남)의 앞에는 큰길이 존재하였다. 이 길이 왕궁의 각 대문으로 이어지고 각 루와 시각적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있다.⁵⁸⁾ 다만 서쪽의 길이 귀정문으로 연결되었을지는 정치한 분석이 요구된다. 왕경의 서쪽은 실질적인 대문의 기능을 하는 곳이다. 외국의 사신을 비롯하여 고위급 인사들이 왕경으로 들어오는 길목이다. 이들이 궁녀가 출입하는 귀정문을 통해 월성으로 진입했을지는 의문이 든다. 사방에서 왕경으로 진입하여 월성의 정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랑지와 연결된 길로 진입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곧게 뻗은 대로, 이 길이 곧 신라의 조로가 아닐까.

한편 조로의 폐기와 관련하여 남고루 유적이 유의된다. 남고루는 고려시대 축조된 시설인데 애초 성곽으로 보았다. 다만 북천의 범람을 막는 제방으로 본 견해가 제출된 이래,⁵⁹⁾ 실제 남고루 주변 일대를 발굴한 결과를 바탕으로 석성의 하부시설과 문지 등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된 상황이다.⁶⁰⁾ 그런데 남고루는 고려시대 조영된 인공물이라는 점이 유의된다. 바로 통일신라시대 도로를 폐기하면서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석축을 할 때 일부 석재조달을 전랑지에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도로와 전랑지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조로의 폐기는 신라 왕경의 소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58) 윤선태, 2020, 「新羅王宮과 國家寺刹-그 분포와 도로 체계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57.

59) 강봉원, 2006, 「경주 南古壘에 대한 일고찰」 『신라문화』 27.

60) 서라벌문화재연구원, 2019, 『경주 황오동(162-1번지) 양정로(대3-4) 개설부지 내 유적 1차 발굴조사 보고서』.

V. 맺음말

왕경의 도로는 기능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월성 인근에 대로가 집중된 양상은 도로의 너비가 권위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왕경의 도로 가운데 조로가 확인된다. 조로는 왕경내 도로 가운데 가장 권위가 높다. 조로는 왕과 주대 할 자격이 있는 관원들의 전용도로이다. 신라에서 당시 정치를 비방한 글이 조로에 걸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여겨진다. 고려시대 기록에서도 조로는 넓은 너비에 직선화된 길이었음을 증언한다. 비록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모든 관원이 통행할 수 없었다.

조로는 조회, 조관, 조복 등의 공통분모를 추출할 수 있다. 특히 신라는 진덕여왕 이래 조원전에서 신년하례식을 하였다. 이는 곧 중국적 시간질서에 포섭된 결과였다. 그 이면에는 김춘추에 의해 주도된 유학적 정치질서의 영향이었다.

왕경에서는 각 궁에서 뻗어나가는 직선화된 대로가 확인된다. 우선 월성 인근 도로 가운데 가장 너비가 넓은 것이 경주박물관 남측부지 내 유적(19.8m)에서 경주박물관 미술관 부지 내 유적(23.7m)을 지나 황룡사 서측을 지나는 남북도로이다. 이 도로는 남궁에서 황룡사 서측을 관통하는 대로였다. 황룡사 남측 소위 광장은 동궁의 정문과 연결된다. 그리고 발천에서 확인된 남북도로(20m)는 월성의 정문과 전랑지의 서측과 연결된다. 이 도로는 궁의 정문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조로일 가능성이 높다.

「신라 왕경의 朝路」 토론문

이현태(국립경주박물관)

신라 왕경 내에서 현재까지 발굴된 도로 유구는 100기가 넘는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도로 유구가 증가할수록 도로를 조성하는 방법과 분포 양상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은 넓어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하나는 왕경 내에서 과연 어떤 도로가 중심적인 기능을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당나라 장안성처럼 흔히 주작대로라고 부를 수 있는 대형도로가 여전히 발굴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100기가 넘는 도로 유구가 발굴된 상황에 비추어보면 주작대로의 부재를 단지 ‘미발굴’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렇다면 신라 왕경 내에서 어떤 도로가 주작대로처럼 왕궁으로 이어지는 중심 도로로 기능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동주 선생님이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2년 조에 보이는 朝路에 주목하고 그 실체를 밝히고자 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발표문의 핵심은 朝路를 “朝服을 입은 朝官이 朝會에 참석하기 위해 다니는 전용 도로”이자 “국가의 공식행사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왕궁으로 진입하는 도로”로 규정하면서, 월성의 북문에서 北宮인 전랑지로 이어지는 남북 도로를 朝路로 상정한 점이다. 매우 흥미로운 견해인데, 朝路의 성격이나 의미는 발표자와 의견이 다르지 않다. 하지만 월성 북문에서 전랑지로 이어지는 남북 도로를 朝路로 판단한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 월성 북문에서 전랑지로 이어지는 남북 도로는 2019년 말부터 지금까지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 발천 일대에서 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 도로를 朝路로 보려면 적어도 이 도로를 남쪽으로 연장한 지점에 朝會를 열 수 있는 正殿이

위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야 “朝服을 입은 朝官이 朝會에 참석하기 위해 다니는 전용도로”(70쪽)라는 朝路의 개념 규정이나 朝路가 “국가의례의 중심인 조원전으로 진입하기 위한 왕경의 중심도로”(73쪽)라는 주장과도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발표자가 朝路로 추정된 도로를 남쪽으로 연장하면 월성 내 석빙고 남쪽 지역, 즉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하고 있는 월성 C지구로 이어진다. 하지만 아쉽게도 월성 C지구에서는 正殿으로 볼 수 있는 건물지가 발굴되지는 않았다. 사실 월성 내부에서 C지구를 가장 먼저 발굴한 것은 여기에 正殿이 위치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인데,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월성 북문에서 전랑지로 이어지는 도로를 朝路로 보기에 주저되는 면이 있는데,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하다.

2. 朝路의 위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왕궁에서 정전이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먼저 밝혀져야 하고, 왕궁의 각 문이 도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드러나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양자 모두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월지 서편 건물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A건물지를 正殿으로 보려는 경향이 주목된다. 토론자는 물론이고 발표자도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건물지는 內陣 減柱와 踏道가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앞의 넓은 마당은 회랑으로 에워싸여 있어서 朝賀 의식 등을 거행하기에 손색이 없다. 따라서 朝路와 관련 있는 朝會가 가능한 正殿을 굳이 월성 내부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한다. 월지 서편 A건물지를 正殿으로 볼 수 있다면 7세기 후반 이후에는 朝路와 관련해 진덕여왕대의 朝元殿처럼 월성 내부에 위치한 正殿과 월지 서편의 A건물지를 동일선상에 두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朝路가 혹 월지 서편 A건물지와 연관될 가능성은 없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3. 사료상에서 신라 朝路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은 진성여왕 2년(888)이다. 그런데 발표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라에서 朝路가 성립된 시점을 언제로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었으면 한다. 발표자가 朝路의 후보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했던 朝元殿은 이미 진덕여왕 5년(651)에 존재가 확인되므로, 월성 외곽에서 朝元殿으로 가기 위한 도로는 늦어도 7세기 중반에는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발표자가 朝路로 비정한 월성 북문에서 전랑지로 이어지는 남북 도로는 발천 일대의 발굴 성과를 염두에 둘 경우, 7세기 후반 이전으로 소급하기는 곤란하다. 물론 아직 발천 일대의 발굴조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발천 일대의 대지 조성층에서 출토된 인화문 토기편과 기와편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조원전의 건립과 발표자가 상정하는 朝路 사이에 존재하는 20~30여 년 이상의 시간차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4. 발표자를 비롯해 여러 연구자들이 월성의 북문을 정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성덕왕 33년(734) 왕이 교서를 내려 백관들에게 북문으로 들어와 직접 진언토록 하였다는 『삼국사기』 기사에 주목한다면, 다르게 파악할 여지도 있다. 기왕에도 성덕왕의 하교는 백관들이 자유롭게 북문을 드나들 수 없었으며, 북문은 백관의 출입이 통제되던 ‘왕의 길’임을 보여준다고 이해하기도 하였다.¹⁾ 즉, 월성의 북문은 734년을 기점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車得公을 찾아온 安吉을 궁성의 서쪽 歸正門으로 가서 출입하는 궁녀를 기다리라고 했던 것은 월성의 서문이 궁인 및 하급 관인층의 주된 출입로가 아니라 오히려 정문으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월성을 출입하는 시설이나 내부 건물의 기능이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이상 두서없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발표자의 논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愚問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愚問에 대한 賢答을 부탁드립니다.

1) 윤선태, 2019, 「역사 속의 월성」, 『한성에서 만나는 신라 월성』(특별전 도록),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68쪽.

人名으로 본 ‘靺鞨系 종족’의 계승과 단절

김락기(인천문화재단)

1. 머리말
2. 8~12세기 ‘말갈계 종족’ 인명 기록
3. 작명법으로 본 말갈-여진의 변천
4. 맺음말

1. 머리말

한국고대사와 고대 동아시아 관계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실제 및 계보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 종족으로 靺鞨이 있다. 중국 역대 사서의 기술에 근거를 두고, 거주 지역과 풍속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숙신-읍루-물길-말갈-여진의 계보를 상정하기도 하지만, 혈연을 기반으로 한 종족의 계승관계와 일치하는지는 의문이다.

또 위와 같은 계보를 상정하기는 하지만 한국고대사 연구에서는 숙신에서 말갈까지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고, 말갈에서 여진으로 이어지는 관계에 대해서는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서인지 활발하게 연구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말갈과 여진의 계승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으로, 그 방법으로 삼은 것은 作名法이다. 종족은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데, 만주라는 넓은 지역에서 분산과 통합을 반복하면서 살아간 종족을 모두 단일한 혈연 관계에 기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스로 계보를 설정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염두에 둔 선언적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하나의 문화적 공동체에 가깝다는 점을 가설로 삼고, 말갈, 여진의 인명을 정리·분석하여 두 종족 사이의 작명법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름짓는 법은 문화의 소산이다. 여기에 작명법을 통해 종족의 계승과 단절 여부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말갈과 여진의 인명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그 수가 적지 않다. 말갈에 관해서는 《魏書》와 《隋書》, 《舊唐書》, 《新唐書》 등이 있고, 역대 중원 왕조에 조공한 기록을 따로 실은 《冊府元龜》도 비교 대상이 된다.

여진에 관해서는 《遼史》와 《金史》에 여진 인명이 많지 않은데 비해 《高麗史》世家에는 고려에 조공, 투항, 대립한 여진인들의 이름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어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된다.

《조선왕조실록》과 《용비어천가》 등 조선시대의 사료에도 여진 계열의 여러 종족의 구성단위와 인물들에 대한 정보가 매우 많지만, 시간 차이를 고려해 이 글에서는 《고려사》 세가의 여진인명을 말갈인명의 비교 대상으로 삼아 살펴보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시간적 범위는 발해 건국 전후인 8세기부터 12세기까지 약 500년가량이 되는데, 이 시기 말갈계 종족의 인명을 최대한 다양하게 분석하여 계승의 측면과 단절의 측면을 아울러 살펴보고 《欽定滿洲源流考》(이하 《만주원류고》라 함)에서 설명하고 있는 만주족의 작명법의 타당성도 검토하고자 한다.

논란이 많은 주제이고, 작명법이 종족의 계보 관계 파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불투명하지만,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연구 방법이므로 말갈계 종족의 양태를 파악하는 방법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비판과 조언을 바란다.

2. 8~12세기 '말갈계 종족' 인명 기록

1778년에 淸 乾隆帝의 명령으로 편찬된 《만주원류고》에는 《책부원귀》에 실린 말갈의 조공 기록을 전재하며 말갈 사신 중 일부의 이름을 언급하고, 의미를 해석한 부분이 있다.¹⁾

만주어에 비추어 살펴보았다[以滿洲語考]는 문구처럼 말갈의 후예로 일컬어지는 만주족이 스스로 만든 기록이란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말갈 인명과 만주어의 유사한 단어를 비교하여 의미를 추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부족/직위	人名	만주어 유사음	만주어 의미
拂涅靺鞨/首領	失異蒙	賽音/莽阿	좋다/잘한다(好/能)
越喜靺鞨/首領	烏施可蒙	烏克紳莽阿	갑옷을 잘 만드는 사람(工於甲者)
越喜部	茂林蒙	摩琳莽阿	말타고 활을 잘 쏘는 사람(善騎射者)
越喜部	努布利	努伯哩	쇠뇌(努)
鐵利/大首領	封阿利	豐阿拉	깃털이 다 자라다(羽毛豐滿)
拂涅部	薛利蒙	蘇呼莽阿	영리하여 일을 잘 한다(聰明能事)
黑水	諾箇蒙	諾凱莽阿	아주 잘 한다(甚能)
鐵利部	米象	密色	활이 뒤틀린다(弓彎)
拂涅部	兀異	烏延	부드럽다(柔軟)

[표-1] 『만주원류고』의 말갈 인명 해석

위 표를 통해 청대 만주족의 말갈 인명의 작명 방법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볼 수

- 1) 《欽定滿洲源流考》 권5, 部族5, 靺鞨, “…案册府元龜所載靺鞨人名以滿洲語考之如謂好曰賽音謂能曰莽阿與失異蒙音近工於甲者曰烏克紳莽阿與烏施可蒙音近善騎射者曰摩琳莽阿與茂林蒙音近謂努曰努伯哩與努布利音近羽毛豐滿曰豐阿拉與封阿利音近聰明能事曰蘇呼莽阿與薛利蒙音近甚能曰諾凱莽阿與諾箇蒙音近稱弓彎曰密色與米象音近謂柔軟曰烏延與兀異音近傳譯之訛尚有可訂也”.

있다. 하나는 말갈계 인명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蒙'을 해석하는 방식인데, 말갈계 인명에 붙은 '蒙'은 만주어 '莽阿'와 같은 말로서 '□□을 잘하는 사람'이란 뜻이 된다. 다시 말해 특성에 잘한다는 접미사를 붙여 이름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런 생각은 고구려 시조 朱蒙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란 의미의 부여 속어에서 비롯된 것²⁾이라는 기록과도 연결해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름 자체가 만주어의 유사한 努布利와 封阿利를 각각 발음이 비슷한 '쇠뇌'와 '깃털이 다 자라다'라는 의미의 만주어와 연결해 해석하는 방식이다. 두 사람의 이름은 공통적으로 '利'로 끝나지만, 여기서는 '利'를 '蒙'과 같은 접미사가 아니라 한 단어의 일부로 본 것이다.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쓰였는지, 아니면 어느 하나의 해석이 잘못되었는지, 또는 기록자의 말갈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접미사를 붙이기도, 떼기도 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같은 불열부에 '失異蒙'과 '兀異'가 있는데, '蒙'이 특정 의미의 접미사로 쓰였다면 '兀異蒙'으로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만주원류고》에서 인용한 《책부원귀》의 말갈 인명을 정리해 보았는데, 그것이 아래의 [표-2] 이다.

부족/직위	人名	사행시기	부족/직위	人名	사행시기
靺鞨/帥	阿固郎	武德 5 年 (622)	黑水部/將	五郎子	開元 13 年 (725)
拂涅靺鞨/首領	失異蒙	開元 2 年 (714)	鐵利/大首領	封阿利	

2) 《三國史記》 권제13, 고구려본기 제1, 東明聖王, “…自作弓矢射之, 百發百中. 扶餘俗語, 善射爲朱蒙, 故以名云…”.

越喜靺鞨/首領	烏施可蒙	開元10年 (720)	越喜部	苾利施	開元15年 (727)
鐵利靺鞨/首領	闕許離		拂涅部	薛利蒙	
拂涅部	靺如價		黑水/大首領	烏素可蒙	
鐵利部	買取利		黑水	諾箇蒙	
越喜部	茂利蒙		黑水	職紇蒙	
鐵利部	可婁計		鐵利部	米象	
黑水部	倪屬利稽	鐵利	失伊蒙	開元18年 (730)	
越喜部	勃施計	黑水部	阿布科思 (阿布思利)		
拂涅部	朱施蒙	黑水	倪屬利稽		
鐵利部	倪處梨	拂涅部	兀異	開元24年 (736) 開元25年 (737) 開元28年 (740) 開元29年 (741)	
鐵利部	溼池蒙	越喜部/首領	聿棄計		
越喜部	努布利	拂涅/首領	兀異		
拂涅部	魚可蒙	越喜部	野古利		
黑水/首領	屋作箇	鐵利部	綿度戶		
越喜部	破支蒙	越喜部	烏舍利	開元29年 (741)	
		黑水部	阿布利稽		
		拂涅部	那棄		

[표-2] 『만주원류고』에서 인용한 『책부원귀』의 말갈 인명

위 표에는 모두 35명의 말갈 인명이 등장하는데,³⁾ ‘□□蒙’ 형태의 인물이 12명, ‘□□利’ 형태의 인물은 5명이고, 闕許離나 倪處梨처럼 마지막 글자의 발음이 ‘利’와 비

3) 失異蒙과 失伊蒙은 같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으나, 소속 부가 불열부와 철리부로 서로 달라 다른 인물로, 사행시점은 다르지만 소속부와 이름이 같은 倪屬利稽는 같은 사람으로 보고 계산하였다.

슷한 것을 기록자가 임의로 유사한 발음의 글자로 골라 썼다고 추정하여 ‘利’와 같은 이름이라 본다면 모두 7명이 되며, 阿布思利라고도 기록된 阿布科思를 마지막 ‘利’가 생략되었다고 보면 모두 8명이 된다.

다음으로 마지막 글자가 ‘稽’와 ‘計’, ‘箇’인 경우 역시 같은 발음의 다른 글자를 선택하여 쓴 것이라 보면 ‘□□稽’ 형태의 이름이 6명이다. 靺如價의 ‘價’와 那棄의 ‘棄’도 ‘계’와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제외하였다.

이렇게 보면 모두 35명 중에서 특정 접미사를 이름에 붙인 경우가 25명이나 된다. 따라서 《만주원류고》에서 努布利와 封阿利를 특정 명사에 대응하여 해석한 것은 착오이고, ‘蒙’의 사례와 같이 각각 努布/利와 封阿/利, 可婁/計, 倪屬利/稽, 勃施/計로 끊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말갈의 작명법은 ‘□□/몽’, ‘□□/리’ ‘□□/계’처럼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이나 행위의 이름에다가 ‘몽’처럼 잘한다는 식의 접미사를 붙인 것이라 일단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추정이 실제 작명법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말갈의 후에라고 하는 여진의 인명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고려사》 세가에는 태조 때의 흑수 추장 高子羅⁴⁾부터 인종 때의 동여진 추장 實現까지⁵⁾ 모두 중복 포함 수백명의 범 말갈계로 볼 수 있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일일이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같은 글자로서 동일 인물임이 분명한 경우(현종대의 毛逸羅, 정종대의 高豆老 등)와 글자는 다르지만 기록자의 음차에 따른 차이로 동일 인물로 볼 수 있는 경우(현종대의 沙一羅/沙逸羅, 凌舉/凌渠, 曼鬪/萬豆, 현종대의 高之門과 덕종대의 古之門, 덕종대의 開老와 정종대의 開路, 정종대의 阿加主와 문종대의 阿家主, 문종대의 符巨/夫舉, 摩里害/摩離害, 예종대의 實顯과 인종대의 實現) 등 중복이 명확한 인물을 한 사람으로 보고 계산하면 모두 397명이다.(【참고자료】 참조)

4) 《高麗史》 1권, 세가1, 太祖 4년(921), 2월 甲子, “黑水酋長高子羅率百七十人來投”.

5) 《高麗史》 15권, 세가15, 仁宗 30년(1122), 11월, “東女眞酋長實現來獻馬”.

말갈계 작명법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소속 부명과 직위, 조공이나 내투의 배경 등은 고려하지 않고, 10명 이상이 같은 계열의 글자를 접미사 형태로 쓴 경우를 정리한 것이 표-3이다.

그 숫자는 172명으로 전체 397명의 약 43%를 점하고 있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보여주는데, 기록된 말갈, 여진 인명은 대부분 해당 집단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던 인 물임을 감안할 때 10세기에서 12세기 초반의 여진 사회에서도 개인의 특성을 부각시 키는 접미사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계열	숫자	이름
‘佛’ 계열	28	居多弗 居羅弗 那拂 那沙弗 襄弗 尼多弗 尼烏弗 尼于弗 冬弗 豆也弗 羅弗 摩里弗 曼豆弗 曼投弗 沙伊弗 鋤栗弗 實弗 阿羅弗 阿盧弗 阿離弗 耶伊弗 余羅弗 吳沙弗 烏乙弗 烏伊弗 要弗 陶弗 巴訶弗
‘羅’ 계열	23	居伊羅 黔佛羅 高子羅 仇突羅 仇羅 仇知羅 仇陶囉 那忽邏 都仇羅 閻羅 屢羅 慕伊羅 毛逸羅 沙羅 沙伊羅 沙一羅 沙好羅 所羅 所智羅 阿號羅 耶盼羅 邀揭囉 這羅
‘老’ 계열	20	加西老 加伊老 開老 古豆老 古老 高夫老 多老 冬弗老 董化盧 無伊老 門質老 夫乃老 分那老 阿老 耶思老 耶施老 魚弗老 吳老 仍化老 陶老
‘蓋’ 계열	15	骨蓋 骨羅介 那闕蓋 豆盧蓋 摩頭蓋 摩底介 麻叱蓋 木開 蘇無蓋 蘇勿蓋 阿蓋 耶沙蓋 耶於蓋 延蓋 伊蓋
‘漢’ 계열	14	皆多漢 計陶漢 古毛漢 弓漢 多老閒 麼豆漢 亡閒 阿刀閒 阿豆閒 阿盧漢 阿夫漢 阿於閒 也乙漢 鹽漢
‘達’ 계열	14	古刀達 奴于達 奴鬱達 紐弗達 尼之達 禿達 麻闕達 麻胡達 未闕達 瑟弗達 吳於達 烏乙達 主達 巴乙達
‘那’ 계열	13	弗那 徐乙那 須于那 阿闕那 闕那 烏頭那 烏於那 烏乙那 要羅那 要於那 于那 伊那 齊主那

'豆' 계열	12	古豆 昆豆 求頭 群豆 尼句豆 漫豆 沙於頭 山豆 鉏乙豆 所隱 豆 阿豆 儵寶
'乃' 계열	11	裊於乃 裊乙乃 麼舍乃 毛乃 阿於乃 烏頭乃 烏於乃 要於乃 要乙乃 于毛乃 表於乃
'夫' 계열	11	居夫 黔夫 古於夫 骨夫 骨於夫 怪夫 歸夫 率夫 阿夫 烏夫 昌夫
'大' 계열	10	尼于大 多老大 分大 阿羅大 阿廬大 阿留大 阿於大 阿志大 於厚大 烏臨大

[표-3] 『고려사』 세가의 10명 이상의 특정 접미사 활용 말갈-여진 인명

고려 문종 33년 4월 기유일에 동북면병마가 여진의 耶邑幹이 와서 먼저 고려에 귀화한 부모와 형을 따라 본인도 고려에 들어와 살기를 원한다고 보고하자 국왕이 허락한 일이 있었는데, 야읍간의 부친은 阿羅弗이고, 모친은 吳曬이며, 형은 齊主那였고,⁶⁾ 예종 원년 2월에 北虜 沙八이 내조했을 때 도병마사가 과거 고려에서 토벌한 적의 우두머리인 高守가 바로 사팔의 아버지로서 그 원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시를 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⁷⁾ 적은 사례이긴 하지만 부자간, 형제간에 작명의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말갈의 예와 같이 개인의 특성과 관련한 단어를 활용해 이름을 지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많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접미사는 그 앞 단어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부족내 지위 등에서 비롯된 꾸밈말일 개연성이 있다.

[표-3]에서 10건 이상 나타나는 같은 계열의 접미사가 바로 그런 예로 보이는데, 열 한가지의 사례 중 '라'와 '로' 계열이 같은 발음의 다른 표기라고 볼 수 있다면 52건으로 '불' 계열보다 숫자가 많아지며, '慕伊羅'와 '無伊老'는 같은 사람이 가능성도

6) 《高麗史》 권9, 세가9, 文宗 33년(1079), 4월 己酉, “東北面兵馬使奏 女眞耶邑幹 自定州弘化戌來款云 父阿羅弗母吳曬兄齊主那等六人曾於丁巳年向化來投願隨居之 王曰 夷狄雖同禽獸尚有孝心 宜令隨父母親屬徙置嶺南”.

7) 《高麗史》 권12, 세가12, 睿宗 元年(1106) 2월 丙子, “北虜沙八等來朝 都兵馬使奏曰 昔我所討賊魁高守者即沙八之父也 必懷宿怨 請處之新興館 令軍校驍勇者守之 從之”.

생긴다. 이 점은 한자 중고음을 통해서도 방증할 수 있는데, ‘羅’의 중고음과 反切은 ‘la’와 ‘魯何’로서 ‘老’의 ‘lau’, ‘盧皓’와 유사하기 때문이다.⁸⁾

또 ‘那’와 ‘內’ 역시 각각 ‘na’, ‘諾何’, ‘noi’, ‘奴亥’로서 같은 발음의 이표기로 보면 24건으로 숫자가 늘어나며, ‘烏頭那’와 ‘烏頭乃’, ‘烏於那’와 ‘烏於乃’, ‘要於那’와 ‘要於乃’도 사실상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의미의 이름으로 볼 수 있다. 위 표에는 없지만 ‘阿兜幹’, ‘阿豆幹’, ‘阿盧幹’, ‘耶邑幹’, ‘胡幹’의 ‘幹’은 ‘kan’과 ‘古案’으로 ‘漢’의 ‘han’, ‘呼盱’과 구별되어,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다양한 한자로 표기하는 ‘간’의 同音異字로 묶어 볼 수 있다면 ‘한’ 계열도 19건으로 늘어난다.

단일 문자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불’ 계열인데, 말갈과 흑수말갈에서 추장을 “大莫拂瞞咄”이라 부른다는 기록과 연결해 볼 수 있다.⁹⁾ ‘夫’의 경우, 높임말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본다면 발해에서 국왕을 부르는 속어인 ‘可毒夫’와 관련해 살펴볼 여지도 있다.¹⁰⁾ ‘달’은 고구려의 관직명으로 나오는 ‘大模達’, ‘可邏達’과 연결되어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10~12세기의 말갈·여진 인명을 8세기 말갈 인명과 비교하기 위해 대표적인 접미사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 표-4이다.

8) 이 글에서 언급하는 한자 중고음 발음과 반절은 李珍華·周長楫 編撰, 《漢字古今音表》(中華書局, 1993)의 설명을 따른 것으로 이하 모두 같다.

9) 《隋書》東夷列傳, 靺鞨, “…渠帥曰大莫弗瞞咄…”; 《新唐書》北狄列傳 黑水靺鞨, “…其酋曰大莫拂瞞咄, 世相承爲長…”.

10) 《新唐書》北狄列傳, 渤海, “…俗謂王曰 可毒夫…”. ‘俗謂’는 민간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데, 발해 백성 중 숫자의 다과를 떠나 말갈 계열도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말갈에서 국왕을 칭하는 전통적인 호칭과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신라의 異斯夫, 居柒夫와도 연결해 볼 수 있으나, 기록의 배경이 되는 시간차를 고려할 때 발해의 속어와 관련해 보는 것이 우선이다.

계열	8세기 말갈 [전거 : 《책부원귀》]	10~12세기 말갈, 여진 [전거 : 《고려사》 세가]
'몽'	失異蒙 烏施可蒙 茂利蒙 朱施蒙 溟池蒙 魚可蒙 破支蒙 薛利蒙 諾箇蒙 職紇蒙 失伊蒙	-
'리'	鬪許離 買取利 倪處梨 努布利 封阿利 阿布思利 野古利 烏舍利	云突梨 弗遮利
'계' / '개'	可婁計 倪屬利稽 勃施計 屋作箇 倪屬利稽 聿棄計 阿布利稽	骨蓋 骨羅介 那闕蓋 豆盧蓋 摩 頭蓋 摩底介 麻叱蓋 木開 蘇無 蓋 蘇勿蓋 阿蓋 耶沙蓋 耶於蓋 延蓋 伊蓋
'이'	兀異	渠伊 尼骨伊 排門異 阿伊 居燮 伊 滿尹伊 惱一伊 押閒伊
'호'	綿度戶	奴好 耶好
'자'	五郎子	若吾者
'가'	靺如價	耶古伽 阿駕 盈歌
'기'	那棄	寶伎 包伎

[표-4] 『책부원귀』와 《고려사》 세가의 말갈, 여진 인명 비교

위의 [표-4]를 보면 8세기 초·중반과 10~12세기 사이의 말갈계 인명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8세기의 말갈 인명이 10~12세기의 그것과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利'의 한자 중고음은 'li'로서 反切은 '力至'이고, '離'는 'liei'와 '郎計', '里'는 'liə'와 '良士'로서 어느 쪽으로든 비슷한 발음이다. '稽'는 'kiei'와 '古奚', '介'는 'koi'와 '古拜', '蓋'는 'kai'와 '古太', '開'는 'khei'와 '古哀'로서 기록자에 따라 다른 글자를 차용했다고 해도 무리가 없으며, 阿固郎과 米象의 경우는 유사한 발음으로 끝나는 이름을 찾을 수 없지만 '郎'의 중고음 'laŋ'과 반절 '魯當'는, 여진 인명으로 나오는 高亂의 '란'의 발

음과 반절인 ‘luan’, ‘郎段’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弗’의 중고음 ‘pʰuat’과 반절 ‘分勿’ 및 ‘達’의 ‘dat’과 ‘唐割’은 8세기 이름에서 유사한 것을 찾기 어렵고, ‘逸’은 ‘jiēt’과 ‘夷質’로서 ‘異’의 ‘jia’, ‘羊吏’와 초성은 비슷하지만 종성이 달라 연결짓기 쉽지 않다.

이런 유사함 속에서 발견되는 차이점은 일정한 연결성 속에 무언가 변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해서 말갈과 여진이 혈연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주변 국가 및 세력과 구별되는 넓은 의미의 문화권으로서 말갈-여진을 상정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3. 작명법으로 본 말갈-여진의 변천

앞에서 8세기의 작명법과 10세기 이후의 작명법이 전반적으로 유사함에도 분명한 변화가 보이고 있으며, 말갈의 ‘몽’과 ‘리’ 계열은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말갈에 보이지 않던 ‘불’, ‘라’, ‘로’, ‘한’, ‘달’ 등의 새로운 이름이 다수 등장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물론 8세기 말갈 인명은 표본이 너무 적기 때문에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몽’ 계열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고, ‘불’, ‘달’ 계열의 이름이 다수 나타나는 점 등에서 볼 때 말갈에서 여진으로 이어지는 9세기에서 10세기에 걸치는 기간 동안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추정 가능하다.

변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말갈계 인명을 대표한다고 알려진 ‘□□蒙’이란 이름이 단 한건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¹¹⁾ 숫자는 적어졌지만 여전히 보이는 ‘리’ 계열의 이름이나 표본 증가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오히려 숫자가 늘어난 ‘계’, ‘개’ 계열과 비교해 보면 그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

11) 《고려사》에는 현종 3년 봄에 여진 추장 麻尸底가 30성부락의 자제를 이끌고 와서 말을 바쳤다고 하면서 30성의 이름을 나열하였는데, 이중에 蒙骨拽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몽’이 이름의 끝이 아니라 앞에 나오고 있어 ‘□□蒙’ 형태와는 다르다.

‘蒙’의 중고음은 ‘muf’, 반절은 ‘莫紅’으로서 10~12세기 인명 중 초성이 같은 것은 ‘毛’가 있다. ‘毛’의 중고음과 반절은 각각 ‘mau’와 ‘莫袍’인데, 사서에 ‘朱蒙’으로 기록된 고구려 동명성왕을 후손인 고구려인들은 <광개토왕비문>에 ‘鄒牟’라고 새긴 점에서 ‘몽’과 ‘모’의 관련성을 상정할 수 있다. 문제는 ‘逸’과 ‘異’의 사례에 나타나는 중성의 차이는 무시한다 하더라도 ‘蒙’이 적은 표본 속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 비해 ‘毛’는 상대적으로 늘어난 표본속에서도 숫자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당의 기록자는 ‘蒙’으로 쓴 것을 고려의 기록자가 ‘毛’로 썼다면 둘의 비중이 엇비슷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 차이가 너무 커서 ‘蒙’의 대체글자로 ‘毛’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蒙’ 형태의 이름은 《고려사》 세가에만 안보이는 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수많은 여진 인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서¹²⁾ 기록의 누락에 따른 결과로 보기는 어렵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쓰이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려사》 세가에 기록된 여진의 내투, 조공 등과 비슷한 시기에 중국 사료에도 여진의 조공 등을 기록하며 일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阿辨’,¹³⁾ ‘只骨’,¹⁴⁾ ‘曷陌’,¹⁵⁾ ‘朮不直’와 ‘賽里’,¹⁶⁾ ‘朮不里’,¹⁷⁾ ‘速魯里’,¹⁸⁾ ‘活骨德’,¹⁹⁾ ‘阿海’,²⁰⁾ ‘夷離底’,²¹⁾

12) 한성주, 《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景仁文化社, 2011) 251~325쪽 <별표 1> ~ <별표 4> 및 박정민, 《조선시대 여진인 내조 연구》((景仁文化社, 2015) 285~350쪽
【별표】 참조. 두 자료에 따르면 특히 ‘介’로 끝나는 이름이 많고, ‘乃’, ‘里’, ‘老’, ‘大’, ‘阿’ 등도 상당히 많아 《고려사》 세가의 여진 인명과 연결된다. 반면에 ‘弗’로 끝나는 이름은 없어 ‘蒙’이 사라진 것과 비슷한 측면도 있다.

13) 《新五代史》 권12 周本紀第12, 世宗 顯德 6년(959) 春正月 辛酉, “女真使阿辨來”.

14) 《宋史》 권1 본기1, 太祖 建隆 3年 春正月 庚辰, “女直國遣使只骨來獻”.

15) 《遼史》 권7 본기7, 穆宗 應曆 18年(968) 9月 甲辰, “以夷曷葛兼政事令, 仍以黑山東抹真之地數十里賜之. 以女□為近侍, 女直詳穩曷陌為本部夷離董”.

16) 《遼史》 권10, 본기10, 聖宗 統和 2年(984) 8月 辛卯, “東京留守兼侍中耶律末只奏, 女直朮不直, 賽里 等八族乞舉□內附, 詔納之”.

17) 《遼史》 권10 本紀第10 聖宗 統和 3年(985) 閏9月 丙申, “女直宰相朮不里來貢”.

18) 《遼史》 권12 本紀第12 聖宗 統和6年(988) 8月 丁丑, “瀕海女直遣使速魯里來朝”.

19) 《遼史》 권12 本紀第12 聖宗 統和7年(989) 2月 丙子, “以女直活骨德為本部相”.

‘蒲撚’,²²⁾ ‘殊只你’,²³⁾ ‘白縷’,²⁴⁾ ‘著骨里’,²⁵⁾ ‘臺押’,²⁶⁾ ‘遮母’,²⁷⁾ ‘高家奴’,²⁸⁾ ‘朮乃’,²⁹⁾ ‘蕭袍里’,³⁰⁾ 등이 그 예로서 《고려사》 세가의 이름들과 큰 차이가 없으며, ‘阿海’는 글자까지 같은 경우도, ‘리’ 계열이 상당히 많은 것도 대략적인 추세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蒙’ 계열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근대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인에 대한 創氏改名 같은 강제된 조치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작명법은 문화의 변화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한국사에서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성과 본관제도가 확대되는 고려시대를 거치며 향렬에 따른 돌림자를 활용하는 金富軾 형제와 같은 사례가 나타나고, 조선시대에는 각 집안별로 나름의 방법을 선택해 상당히 먼 후손들까

-
- 20) 《遼史》 권13 本紀第13 聖宗 統和8年(990) 5月 庚寅, “女直宰相阿海來貢, 封順化王”.
- 21) 《遼史》 권14 本紀第14 聖宗 統和20年(1002) 春正月 辛酉, “女直宰相夷離底來貢”.
- 22) 《遼史》 권15 本紀第15 聖宗 開泰 元年(1012) 春正月 丁亥, “女直太保蒲撚等來朝”.
- 23) 《遼史》 권15 本紀第15 聖宗 開泰 元年(1012) 夏4月 丙辰, “曷蘇館部請括女直王殊只你戶舊無籍者, 會其丁入賦役, 從之”.
- 24) 《遼史》 권17 本紀第17 聖宗 太平 7年(1027) 春正月 辛亥, “以女直白縷為惕隱, 蒲馬為巖母部太師”.
- 25) 《遼史》 권18 本紀第18 興宗 太平 11年(1031) 夏6月 辛丑, “皇太后賜駙馬蕭鈕不里, 蕭匹敵死, 圍場都太師女直著骨里, 右祇候郎君詳穩蕭延留等七人皆棄市, 籍其家, 遷齊天皇后于上京”.
- 26) 《遼史》 권18 本紀第18 興宗 重熙 2年(1033) 春正月 壬辰, “女直詳穩臺押率所部來貢”. / 興宗 重熙10年(1041) 冬10月 庚寅, “以女直太師臺押為曷蘇館都大王”.
- 27) 《遼史》 권19 本紀第19 興宗 重熙15年(1046) 秋7月 丁未, “以女直部長遮母率衆來附, 加太師”.
- 28) 《遼史》 권21 本紀第21 道宗 清寧6年(1060) 6月 戊午朔, “以東北路女直詳穩高家奴為惕隱”.
- 29) 《遼史》 권24 本紀第24 道宗 大康8年(1082) 3月 庚戌, “黃龍府女直部長朮乃率部民內附, 予官, 賜印綬”.
- 30) 《遼史》 권24 本紀第24 道宗 大安元年(1085) 11月 丁酉, “以南女直詳穩蕭袍里為北府宰相”.

지 사용할 돌림자를 미리 만들어 놓기도 한다.

이런 사례는 명백히 문화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집안이 혈연적으로 단절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도 조선시대 기준 양반층에 한정된 것으로 신분제가 철폐되는 1894년 직전의 준호구에서도 노비의 경우는 태어난 달이나 계절, 용모의 특징 등에 기반해 이름을 짓고 이를 한자를 차용해 기록했다.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도 준호구나 호구단자의 발급시점에 따라 다른 한자로 표기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전제로 몇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 우선 '□□蒙' 계열의 작명법은 여전히 활용되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가 '몽'과 음이나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만주원류고》에서 '□□蒙'의 몽을 잘한다 라는 '莽阿'와 연결시킨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蒙'이 현대 한국어의 '□□님'과 같은 일종의 존칭 표현으로서 때에 따라 쓰이기도, 안 쓰이기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가능성과 연결해 보면 특정 시점 이후 존칭 표현이 다른 말로 변화해 갔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몽'이 말갈 전체가 아니라 결속력이 높은 특정 집단에서 주로 쓰는 작명법이었고, 이 작명법을 활용하는 집단이 더 이상 예전의 작명법을 활용하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는 몽의 작명법을 쓰던 집단이 다른 집단에 완전히 흡수되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위의 네 가지 중에서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세 번째다. 8세기에 '몽'으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말갈의 특정 부가 아니라 여러 부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몽 계열의 이름이 사라지는 시기를 보면 발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2]를 보면 책부원귀에 기록된 말갈계 '몽' 계열의 마지막 조공사는 727년 鐵利部の 失伊蒙이다. 하지만 발해까지 포함해 보면 일본과 교류 과정에서 사신으로 파견된 739년의 雲磨將軍 己珎蒙,³¹⁾ 기진몽 일행 중 한 명으로 首領 직위의 闕棄蒙,³²⁾

31) 《統日本紀》卷13, 天平11年(739) 7月 癸卯 “渤海使副使雲磨將軍己珎蒙等來朝. 己珎蒙等來朝”.

32) 《統日本紀》卷13 天平12年(740) 正月 丙辰 “遣使就客館. 贈渤海大使忠武將軍胥要德從二

752년의 輔國大將軍 慕施蒙,³³⁾ 776년의 司賓少令 開國男 史都蒙³⁴⁾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사도몽을 끝으로 8세기 후반에 몽 계열의 이름이 기록에서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두 사례를 구분해서 보면 말갈 제부의 사행에서 몽 계열의 이름은 727년을 끝으로 사라졌고, 발해의 지배층을 구성하고 있던 몽 계열의 인물들은 그로부터 50년 남짓한 776년 무렵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고도 할 수 있다.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갈제부에서 활동하던 ‘몽’ 계열의 인물들은 사라졌지만, 발해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활동했다는 의미가 된다.

철리부 사신으로 실이몽이 조공하는 727년은 발해와 말갈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726년에 당은 흑수말갈 땅에 흑수주를 설치하고 長史를 두어 통제에 나서³⁵⁾ 발해와 긴장이 고조되었고, 발해 내부에서는 무왕을 중심으로 한 반당파와 대문예 등의 친당파의 갈등으로 번졌다.³⁶⁾

발해의 흑수말갈 토벌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726년 말에서 728년 사이에는 흑수말갈을 공략한 것으로 여겨진다.³⁷⁾ 이와 관련해서는 726년에서 732년 사이에 불열부, 흑수부 등 말갈제부의 사행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를 발해의 흑수말갈 토벌에서 찾아, 발해에게 흑수말갈 문제가 단순히 흑수말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

位. 首領无位已闕棄蒙從五位下. 并賻調布一百十五端. 庸布六十段”.

33) 《統日本紀》卷18 天平勝宝 4年(752) 9月 丁卯 “渤海使輔國大將軍慕施蒙等著于越後國佐渡嶋”.

34) 《統日本紀》卷34 宝龜7年(776) 12月 乙巳 “渤海國遣獻可大夫司賓少令開國男史都蒙等一百八十七人. 賀我即位. 并赴彼國王妃之喪. 比着我岸. 忽遭惡風. 柁折帆落. 漂沒者多. 計其全存. 僅有■六人. 便於越前國加賀郡安置供給”.

35) 《舊唐書》卷199下 列傳第149下, 北狄, 渤海靺鞨, “(개원) 十四年, 黑水靺鞨遣使來朝, 詔以其地爲黑水州, 仍置長史, 遣使鎮押”.

36) 당의 흑수부에 대한 기미주 설치 이후 발해의 내분과 흑수말갈 토벌에 관해서는 김종복, 《발해정치외교사》(일지사, 2009), 112~120쪽 참조.

37) 권은주, <발해의 등주공격을 통해 본 국제동맹과 외교> 《역사와 세계》44(효원사학회, 2013), 140쪽.

나라 여타 말갈제부의 통제와 연동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³⁸⁾

이렇게 보면 727년은 발해와 말갈제부의 관계에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는 시점으로, 말갈제부에 대한 발해의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말갈의 조공 횡수가 이전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대외관계에서 역할을 하던 '몽' 계열의 작명법을 가진 집단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발해로 흡수된 것이 아닐까 한다.

지나친 억측이지만 '朱蒙'이란 이름이 부여의 속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蒙'은 부여 멸망 이후 고구려에 편입되지 않고 원거주지에 살며 말갈제부의 세력 아래 생활했던 부여 유민들이 계승해 온 작명법일 가능성은 없는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려 문종 27년에 동여진의 각 부락 수령들이 백성을 이끌고 와서 군현을 내려줄 것을 청하자 이들에게 이름을 내려 古刀化는 孫保塞, 高舍는 張誓忠, 耶好는 邊最, 多老는 劉咸賓, 吳沙弗은 魏蕃, 阿忽은 揚東茂, 古舍는 文格民, 黔夫는 康績, 巴阿弗은 盧守, 那居首는 張帶垣, 三彬은 韓方鎮, 阿老大는 高從化, 尼多弗는 趙長衛로 한 적이 있다.³⁹⁾ 의미는 알 수 없지만 姓과 名으로 구성된 고려식 작명법에 따른 이름을 내린 것으로 그들에게 수여한 작위와 함께 '고려문화권'에 편입시키려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역시 추측에 불과하지만 만약 고려처럼 발해에서도 말갈인들을 지배체제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한자식 사성 방법을 활용하였거나, 또는 한자식 성명이 말갈제부를 포함한 지배층에서 주류를 이루게 되는 상황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蒙'과 같은 특정 단어

38) 김종복, 《발해정치외교사》(일지사, 2009), 121쪽 참조.

39) 《高麗史》9卷 世家9 文宗 27년(1073) 7월 乙未, “東女眞 歸順州都領大常古刀化 副都領古舍益 昌州都領歸德將軍高舍 都領黔夫 甌城州都領奉國將軍耶好 歸德將軍吳沙弗 恭州都領奉國將軍多老 番長巴訶弗 恩服州都領元甫阿忽 都領那居 首溫州都領三彬 阿老 大誠州都領尼多弗等 率衆內附乞爲郡縣賜 古刀化名孫保塞 高舍名張誓忠 各授懷化大將軍 耶好名邊最多老名劉咸賓各授奉國大將軍; 吳沙弗名魏蕃授懷化將軍; 阿忽名揚東茂授歸德將軍; 古舍名文格民黔夫名康績巴阿弗名盧守那居首名張帶垣三彬名韓方鎮阿老大名高從化尼多弗名趙長衛各授大常. 仍賜物有差”.

가 쓰이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억측에 억측을 거듭하며 ‘蒙’ 계열의 이름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8세기에 전혀 보이지 않던 ‘弗’, ‘羅’, ‘老’, ‘達’ 등 10세기 이후 자주 나타나는 이름에 대해 살펴보겠다.

‘弗’의 중고음은 ‘p̄iuāt’, 반절은 ‘分勿’인데, 이름 끝자의 초성이 p로 시작하는 인명은 8세기 말갈에서는 찾을 수 없고, 《고려사》 세가에서는 ‘夫’의 ‘p̄iu’, ‘甫無’와 비교해 볼 수 있다. ‘弗’, ‘夫’와와 비슷한 경우가 ‘達’과 ‘大’다. ‘達’은 중고음과 반절이 ‘dat’과 ‘唐割’이고 ‘大’는 ‘dai’와 ‘徒蓋’인데, 흑룡강 하류에 거주하는 赫哲族의 경우, 씨족의 작은 단위인 屯의 長을 ‘嘎深達(gaʃɛda)’로, 큰 단위인 城의 主는 ‘竹深達(tsuʃɛda)’로 부른다고 한다.⁴⁰⁾

후대 혁철족의 사례를 앞선 기록과 바로 연결시키는 것에 무리가 있지만, 중고음상 ‘達’과 ‘大’의 발음이 비슷하고, 높다-크다에서 집단의 長이란 의미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글자는 비슷한 의미의 접미사로 추정된다. 고구려에도 당의 衛將軍에 비견된다는 大摸達이 있는데⁴¹⁾ 阜衣頭大兄 이상이 말하는 고위 무관직으로 ‘ 높다’라는 의미와 연결되기도 한다.

10세기 이후 여진 인명에서 단일 글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불’의 경우에는 다른 접미사를 쓰는 이름과 글자까지 같은 이름이 많은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沙伊弗과 沙伊羅, 烏乙弗과 烏乙達/烏乙那, 尼于弗과 尼于大, 曼豆弗/曼投弗과 曼鬪, 阿羅弗과 阿羅火, 阿盧弗과 阿盧幹/阿盧漢/阿老火, 摩里弗과 摩里害, 那沙弗과 那沙, 尼于弗과 尼于大/尼迂火, 冬弗과 冬弗老, 要弗과 要結, 實弗과 實顯 등이 그 예이다.

《요사》 등 중국 사서에 기록된 여진 인명 중에는 ‘弗’로 끝나는 이름이 없고, 阿羅弗과 阿羅火, 阿盧弗과 阿老火처럼 ‘弗’과 ‘火’만 대응된다면 《고려사》의 기록이란 점에서 중세 한국어의 음으로는 ‘弗’로, 뜻으로는 ‘火’로 표기했다는 흥미로운 결론을

40) 凌純聲, 《松花江下游的赫哲族》(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34), 226쪽 참조.

41) 《翰苑》蕃夷部, 高麗條의 「高麗記」, “…其武官曰大摸達 比衛將軍 一名莫何羅繡支 一名大幢主 以阜衣頭大兄以上爲之…”.

내릴 수 있겠으나, 다른 접미사의 이름과도 상당히 대응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어쨌든 끝 글자만 다른 같은 이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弗', '達', '利' 등이 앞의 단어와 일체를 이루는 게 아니라 앞의 말을 꾸며주는 접미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하며, 그 의미는 존경어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다.

'蒙'이 사라지고 '弗', '達' 등이 새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10세기 이전 말갈 사회에 문화적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고, 그 배경에 발해 멸망 등 주변 세력의 역관계가 작용했다고 추정되나 구체적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8세기의 말갈 인명과 10~12세기의 여진 인명을 비교하여 양자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말갈과 여진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두 시기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접미사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은 두 집단 전체가 반드시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문화적 친연성이 크다는 의미에 가깝다.

다만 8세기 말갈의 대표적 인명으로 나타나는 '蒙' 계열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롭게 '弗', '達' 등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말갈-여진 사회에 모종의 변화가 있었음도 알 수 있었다. 변화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단계로는 나가지 못했으나, 발해의 성장과 멸망에 따른 통제력의 작동과 와해가 배경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한편 《만주원류고》에서 말갈의 작명법으로 제시한 설명을 바탕으로 말갈-여진 인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개인의 특성에 존경의 의미나 지위를 나타내는 접미사를 붙여 이름을 짓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만주원류고》의 말갈 작명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말갈-여진-만주는 1천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의 역대 왕조와 다채로운 관계를 맺었고, 한국사의 전개에서 결코 작지 않은 비중과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분야 연구가 왕조별, 시기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그들 스스로의 발전과 변화를 통시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는 못했다.

향후 조선시대 기록의 여진-만주족 사례까지 포함하여 말갈에서 청 건국 이전의 여진족에 이르는 그들 내부의 변화를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참고자료】 《고려사》 세가 소재 말갈·여진 인명

국왕	이름	숫자
태조	高子羅 阿於閒	2
정종	蘇無蓋	1
현종	措信擒 居閭鬱 居蔚 渠伊 渠逸 居質阿 黔佛羅 計陶漢 古刀 買 高豆 高豆老 高豆花 孤這 高之問(高之門) 骨蓋 骨夫 仇 突羅 求頭 仇陶囉 群豆 那沙 那沙弗 那闕蓋 那忽邏 獠於 奴鬱達 奴乙堅 惱一伊 尼骨伊 尼方固 尼烏弗(尼牛弗/尼于 弗) 尼質阿 尼忽 達魯 闍羅 塗沒尼 徒怠 冬骨逸 豆盧蓋 拏 乙信 拏乙晏 凌學 摩頭蓋 麻捫 麻尸底 麻闕達 麼乙逸 摩底 介 滿尹伊 曼鬪 曼投弗 毛逸羅 木開 木史 陸史 蒙骨拽 門 質老 未闕達 排門異 弗那 佛徐逸 弗遮利 沙訶門 史彬 沙逸 羅(沙一羅) 鋤栗弗 徐乙那 鉏乙豆 蘇勿蓋 踈意 瑟弗達 實 弗 實彬 阿駕 阿干頓 阿蓋 阿箇朱 阿骨 阿頭 阿羅大(阿盧 大/阿盧太) 阿羅弗(阿盧弗) 阿令朱 阿梨古(阿里古) 阿離弗 阿夫閒 阿闕那 阿主 阿次 阿忽 闕那 闕尸頃 押閒伊 耶古伽 耶邏多 耶兀逸 耶盼羅 魚尼底 魚瑟殷 鹽之渠 烏頭那 烏頭朱 烏臨大 烏沙弗 烏乙那 烏乙 弗 烏伊弗 邀揭囉 要悅逸 于那 牛那特 云突梨 暈底憲 鬱喑 伊那 這羅 黏閒逸 諸毛 支闍逸 昌夫 噲拔 陶老 陶弗 陶億	
덕종	加伊老 開多閒 開老 居於蔚 居伊羅 [古刀化] [古豆老] 古 毛漢 古舍 古於夫 古音波 [古之門] 骨甫 尼仇刀 尼冬 尼于 弗 多老閒 大宛 大由 豆於甫 毛烏 毛伊羅 武那沙 寶伎 甫 失 沙於下 沙伊羅 阿角八 阿刀閒(阿豆閒) 阿於乃 阿志大 阿浦 也半 也於浦 也乙漢 若吾者 烏頭那(烏頭乃) 烏於那 要賓 要乙乃 于火 者昆 主達	
정종靖宗	哥兒古 皆多漢 開老(開路) 古陶達 [高陶化] 高寶 [高豆老]	

	<p>古史門 [高之問] 高之知(高支智) 高遮 昆豆 骨盖 骨輔 仇 尼道 仇羅 仇知羅 貴正 紐弗達 尼句豆 尼多弗 尼于大 尼于 弗 尼迂火 大信 冬弗 冬弗老 董化盧 羅弗 慕伊羅(毛伊羅) 孚巨 沙羅 沙於頭 沙蘊 沙伊羅(沙伊邏) 所智羅 阿加主 阿 盖 阿骨 阿刀閒(阿道閒) 阿豆 阿兜幹(阿豆幹/阿豆簡) 阿豆 主 阿盧幹 阿留大 阿伊化 耶半(耶盤) 耶沙盖 也賜老 耶於 盖 耶伊弗 魚弗老 鹽漢 吳多 烏夫 烏夫賀 烏於古 吳於達 烏乙達 吾乙耶 烏陁 傜竇 要耶 傜漁 要於那 姚乙道 伊盖 仍保 仍化老 巴桀 巴乙達(波乙達) 包伎</p>	
<p>문종</p>	<p>可封 加西老 康守 [開老] 居多弗 黔夫 [古刀達/高都達] [古刀化] 高亂 高麻秀 古無諸 高反知 [古舍(高史/高舍/高 謝)] 古守 高演 [高之智] [高遮] 古河舍 [昆豆] 骨羅介 骨 於夫 魁拔 仇羅 那居首 那拂 奴于達 裹於古 裹演 [尼多弗] 尼冬火 [尼于弗] 尼之達 多老 多盧昆 多老大 大蘭 都仇羅 豆也弗 老道 屢羅 勒於乙 麼豆漢 摩里弗(麻里弗) 摩里害 (摩離害/麻里害/麻離害) 麼舍乃 馬志 麻叱盖 馬波 麻胡達 漫豆 曼豆弗 漫頭弗 毛乃 毛阿眞 毛下 沒於金 無伊老 方鎮 夫舉(符巨) 分大 紛泰 比丹 沙支何 沙時賀 沙於賀 [沙伊 羅] 沙伊弗 山豆 三彬 霜昆 霜絲 徐害 蘇德 所羅 須于那 實彬 [阿加主(阿家主)] [阿骨] [阿豆] [阿兜幹] 阿羅弗 阿 老大 阿藺 阿隣(阿麟) 阿夫漢(阿符漢/阿夫渙) 阿下費 阿亥 阿忽 安矩 也古 [耶思老(耶賜老)] 耶施老(耶時老) 耶於害 耶邑幹 耶好 [鹽漢(塩漢)] 英孫 烏弗遮 吳史 吳沙弗 吳曬 烏於乃 吳火文 要結 要羅那 姚彬 要於乃 于毛乃 劉信 紉主 仍于憲 仍蔚 張向 齊主那 祖仰仁 陳順 遮亶 巴訶弗 包加主</p>	

	包棄 胡幹 懷德 懷化	
선종宣宗	皆多漢 [高舍] 怪八 裊於乃 禿達 分那老 [三彬] [西害] 所隱豆 阿盧漢 阿於大 也沙 餘羅弗 仍于	
헌종獻宗	豆門 所羅	
숙종肅宗	居羅弗 古豆 古羅骨(高羅骨) 高闌昆 高夫老 [高舍] 古洒 古時毛 昆豆 骨夫 怪夫 弓漢 [豆門] 豆門小 令波 馬要 麻 浦 芒閒 未應 甫馬 夫乃老 分那老 斜葛 舍毛 沙溫 沙好羅 霜昆 率夫 阿羅火 阿老 阿老火 阿夫 阿夫漢 阿號羅 安旦 余羅弗 盈歌 榮孫 烏雅束 臥突 臥英 要眞 乙古 氈工古 從 昆 昌昆 表於乃 下夫免 恢八	
예종	居夫 居熨伊 古伋 古羅骨 高亂 古老 [高守] [骨夫] 公牙 果下 歸夫 奴好 裊弗 裊乙乃 多老 萬壽 [亡閒] 沙八 史顯 守弗首 實顯 [阿於大] 阿伊 阿只 於厚大 延盖 烏羅骨 吳老 烏無免 要弗 之訓	

「人名으로 본 ‘靺鞨系 종족’의 계승과 단절」 토론문

김종복(안동대 사학과)

1. 주최측으로부터 토론의 부탁을 받은 저는 언어학에 대해 문외한이라 적합한 토론자는 아니다. 다만 논지와 관련하여 발해사도 조금 언급되었기에 글을 읽으며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2. 머리말에서 현재 한민족의 원류/조상에 해당되는 예맥 계통의 족속과 구별되는 “숙신-읍루-물길-말갈-여진”으로 이어지는 계보 관계에 대해 “혈연을 기반으로 한 종족의 계승관계와 일치하는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서술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종족/種族의 개념을 ‘혈연’이라는 협소한 범위로 국한시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인류학에서는 (민족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요소로서의) 혈연보다 (주관적 요소로서의) 언어적, 문화적 동질성을 갖는 집단으로 개념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2장 8~12세기 ‘말갈계 종족’ 인명 기록」은 『만주원류고』 권5 말갈에 轉載된 『책부원귀』의 말갈 조공 기록에 나오는 말갈 사신을 인명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말갈계 인명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蒙’의 ‘蒙’은 『만주원류고』의 해석에 따라 ‘□□을 잘하는 사람’로 보고 있다. 반면 역시 말갈계 인명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利’나 ‘□□계(稽, 計, 簡)’의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그 의미가 궁금하다.

4. 다음으로 『고려사』 세가에 나오는 여진 인명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인명이 ‘□□佛’, ‘□□羅’, ‘□□老’, ‘□□漢’, ‘□□達’ 등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발표자의 독창적인 견해가 드러난다. 즉 ‘□□蒙’와 ‘□□利’ 계열의 이름이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佛’ 등의 이름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말갈에서 여진으로 이어지는 9세기에서 10세기에 걸치는 기간 동안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4-1 그런데 『고려사』 세가에 나오는 인명상의 변화가 (발표자에 따르면 『요사』 등의) 중국 사료에도 보인다고 하는데, 阿辨只骨·憂陌朮不直·活骨德·阿海夷離底·浦燃臺·押遮母 등은 그러한 증거가 되는지 의아하다. 또한 ‘□□佛’, ‘□□羅’, ‘□□老’, ‘□□漢’, ‘□□達’ 등이 중국 사료에도 보이는지,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10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여진 인명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중국측 사료와 한국측 사료에서 공통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면, (말갈이나 여진의) 作名法의 차이가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표기법의 차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다.

4-2 ‘□□蒙’이 사라지는 시기가 발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대외관계에서 역할을 하던 ‘몽’ 계열의 작명법을 가진 집단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발해로 흡수되었다는 추론은 추정에 추정을 거듭한 것이라 조금 당혹스럽다.

4-3 朱蒙이 부여의 속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蒙’이 부여 유민들이 계승해 온 작명법일 가능성도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따르기 어렵다. 참고로 776년의 史都蒙은 소그드 계의 성씨로 파악하는 견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5. 말갈계 인명 분석의 시기와 범위를 좀더 (위로) 확장하면 어떻게 제안하고 싶다. 발표자는 『만주원류고』 권5 말갈과 『고려사』 세가만 대상으로 하였는데, 『만주원류고』 권6 발해에도 발해에 속한 말갈계 인명이 적지 않다. 또한 『위서』~『신당서』에도 乙力支, 突地稽 등이 나오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말갈 인명이 있다.(『삼국사기』 신라본기 무열왕 8년(661) 5월 9일 生階 ; 『삼국유사』 흥법, 백률사의 大都仇羅 등)

회원가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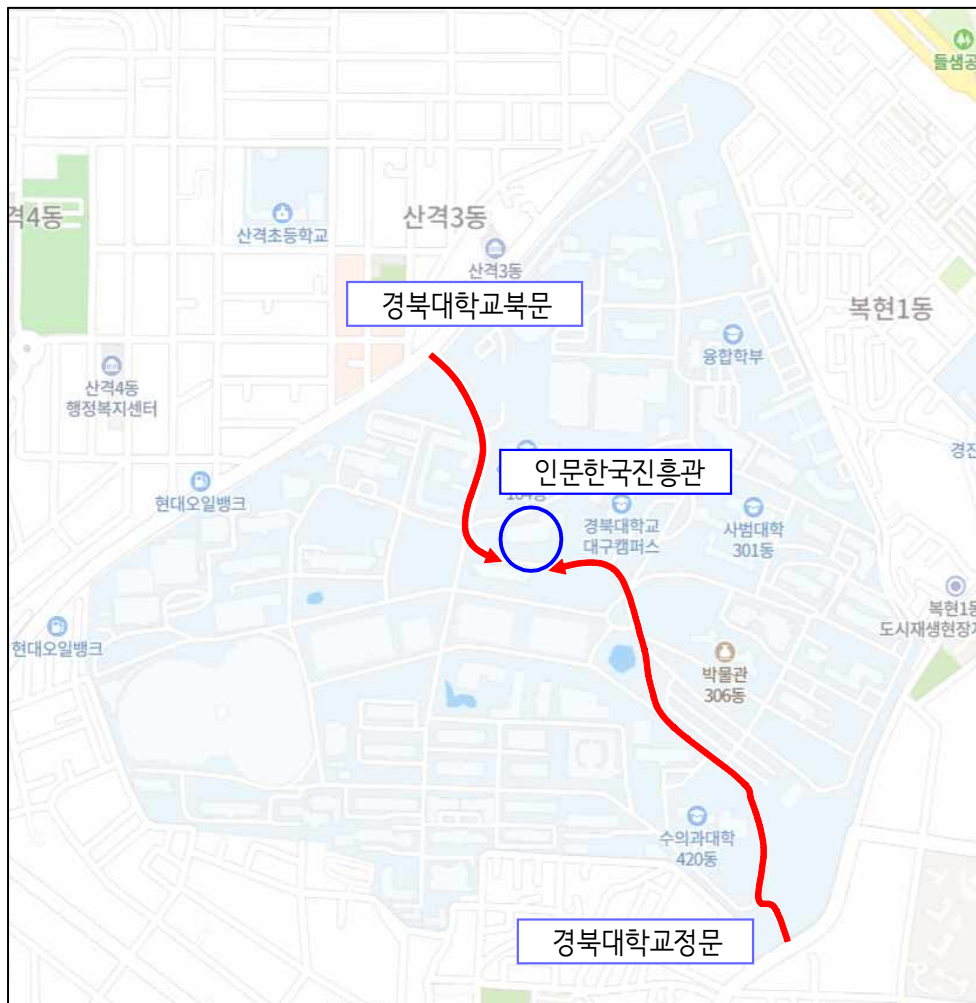
[신한은행] 100-032-168110 (예금주: 한국고대사학회)

학생회원 3만원, 일반회원 4만원, 종신회원(개인) 80만원-분납 가능

문의: 총무간사 김정환(한양대 박사과정), jhjk8831@naver.com

학술발표회장 찾아오시는 길

인문한국진흥관 학술회의실2 (B103호)



저녁식사 장소 안내

남원골추어탕(053-958-1878), 대구 북구 대구체육관로 45

